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현대중국어 양태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연구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宋 少 萌

현대중국어 양태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연구

指導教授 박 정 구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0년 6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宋 少 萌

宋少萌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0년 7월

위 원 장 이 옥 주 (인)

부위원장 김 현 철 (인)

위 원 강 병 규 (인)

위 원 유 수 경 (인)

위 원 박 정 구 (인)

국문초록

현대중국어에서 양태사의 분포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는 정보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태사의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문장은 서로 다른 정보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중국어 양태사의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양태사와 그 분포 원리를 밝히는 데 있다. 본 논문이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양태사의 분포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선행연구의 통사 및 의미적 접근에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양태사들이 각각 다른 분포에 위치할 때 그 기능적 차이가 무엇인지와 각각의 양태사들이 서로 다른 정보적 위치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구조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삼고 정보구조 유형 및 중국어 정보구조 구현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양태개념과 유형분류를 살펴보았다. 학자들의 양태범주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이전 연구들을 점검하고 나름대로 중국어 양태사의 유형과 범위를 정리하였다. 서양학자들은 주로 조동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양태를 의미에 따라 동적, 의무, 인식 세 가지 유형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중국어 양태사도 동적, 의무, 인식 세 가지 양태 유형을 포함하지만 양태부사에서 이미 참인 명제에 대한 태도 혹은 평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 양태도 중국어에서 중요한 양태의 하위범주라 할 수 있다. 양태조동사와 양태부사가 비록 공통적으로 의무 양태 혹은 인식 양태를 포함하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일부 의무 양태부사는 양태조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되었기에 의무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 의무 양태 의미를 강화 또는 약화하는 역할로도 쓰인다. 인식 양태조동사는 가능성 정도에 따라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으로 나누는데 양태부사에서 더 높은 확정성을 갖는 확실성이라는 부류도 있다.

제3장에서는 주로 초점 표지 ‘是’와 의문사 검증을 통해서, 양태조동사의 다양한 분포에 상응하는 정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양태조동사에서 동적 양태조동사는 주어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앞에 올 수 없다. 이들은 주어가 통제 가능한 성분, 예를 들어 시간, 장소 등의 성분의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 의무 양태사는 화자가 사회적 규정 혹은 외재적 조건에 의한 허가 혹은 필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만약 양태사가 화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행위의 주체를 부각하고자 하면 주어 앞에 오게 되며, 초점을 부각시키게 된다. 의무 양태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주어를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무 양태조동사는 주어와 함께 출현하는 주제 앞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제 앞에도 올 수도 없다. 이러한 양태사들이 오는 문장의 정보구조는 일반적으로 어휘적 수단과 운율적 수단에 의해 작용하며, 통사적으로 양태사의 위치 변경을 통해 초점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실현된다.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객관적 사건의 가능성이나 필연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이동할 수 없다. 오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조동사 ‘应该₂’와 ‘可能₂’만이 주어 앞에 올 수 있다. 주어 앞에 올 때 그 뒤의 문장은 세 가지 정보구조 유형 모두 가능하다. 이들은 주어와 함께 출현하는 주제 앞에 올 수 있기에 다른 주제 앞에 올 수도 있다. 그 뒤에 오는 주제는 그 앞에 오는 주제와 달리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제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양태조동사가 부정형식 혹은 정반의문형식으로 사용될 경우, 이 두 가지 형식은 화자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두에도 올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주로 양태부사의 다양한 분포에 상응하는 정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양태부사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태도나 관점을 나타내므로 표현 의도에 의해 문장의 정보구조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미유형에 따라 분포양상이 다르다. 의무 양태부사는 의무 양태조동사와 같이 화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주체를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양태부사가 문두로 이동하여 논항초점을 나타낼 수 있다. 주어 앞에 이동하는 것이 주어를 초점으로 삼는 것이기에 주제 앞에 올 수는 없다. 인식 양태부사는 화자가 사건의 필연성을 나타내면 술어초점 구조를 갖는다. 사건의 주체, 발전 등에 대한 추측이면 각 정보구조 유형 모두 나타낼 수 있다. 평가 양태부사는 비록 전체적으로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지만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포 양상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화자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의 경우 주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이끌어 내는 양태부사는 항상 주어 앞에 온다. 일반적으로 양태부사가 주어 뒤에 위치하면 술어초점을 드러내고 주어 앞으로 이동할수록 주제를 이끌어 내는 기능이 더 두드러진다.

제3장과 제4장에서도 양태사가 구어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특수한 분포 현상도 살펴보았다. 양태사가 문말에 오는 현상은 구어 대화에서 말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정보를 먼저 나타내기 쉽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는 후치시키는 것이다. 일부 양태사도 이와 같이 문말에 위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적 양태사, 의무 양태사는 후치할 수 없고 인식 양태사와 평가 양태사 대부분은 후치할 수 있다. 후치할 때 문장과 양태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어기조사가 있다. 양태사가 후치하는 문장도 일반적으로 주제문이다. 왜냐하면 주제부분이 일반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제문에서 양태사는 술어초점에 가깝게 후치된 후, 객관적인 술어 정보가 더욱 돋보이게 한다. 유표적인 논항초점 구조를 사용할 경우, 양태사와 주어 논항의 관계가 더 긴밀하기 때문에, 주어 논항에 가까워야 함으로 후치할 수 없다. 또한, 화자가 하나의 새로운 사건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문장의 양태사는 일반적으로 명제 정보의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어 혹은 술어에 근접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후치는 정보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태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양상도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명제의 일부로 쓰일 수 있는 동적 양태사와 일부 의무 양태사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다. 동적 양태사와 일부 의무 양태사는 명제의 일부분이기에 단독적으로 사용될 때 문장의 초점이 된다. 일부 인식 양태사와 평가 양태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양태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대답의 경우, 양태부사만 사용하거나 또는 어기조사와 함께 출현한다. 청자는 이러한 양태사를 통해 초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양태사들의 연용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태사의 연용은 통사적 혹은 의미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보구조 제약도 받는다. 즉 같이 출현하는 양태사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정보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태사의 문법화 정도가 클수록 명제 외부에 위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본 논문의 성과를 함축적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 양태사 체계에 대해서 공시적 고찰을 통해 양태사의 문법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양태사는 외적인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인식 혹은 평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하고,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양태사의 문법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초점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다는 것을 다양한 예증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초점에서 출발하여 초점을 부각하는 역할을 거쳐 초점에 민감하지 않은 담화표

지로까지 변하는 과정을 양태체계에서 연구하고 증명하였다. 동사로부터 접속사까지의 점진적인 문법화 과정뿐 아니라, 화용적 역할에서도 초점에서 주제 도입 표지로 점진적으로 변모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연구에서 확장하여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요어: 양태, 양태조동사, 양태부사, 분포, 정보구조
학 번: 2015-30727

목 차

국문초록	i
1. 서 론	1
1.1 문제 제기	1
1.2 선행연구	5
1.2.1 생성문법적 접근법	6
1.2.2 의미 영역 분석	12
1.2.3 초점민감 연산자 분석	15
1.3 연구방법 및 내용	17
1.3.1 정보구조 이론	18
1.3.2 논의의 구성	22
2. 양태와 현대중국어의 양태사	24
2.1 양태와 양태사	24
2.1.1 양태와 양태의 하위범주	24
2.1.2 현대중국어의 양태체계와 양태표현	28
2.2 양태사 범위 설정	30
2.2.1 양태조동사의 범위와 의미 분류	31
2.2.2 양태부사의 범위와 의미 분류	36
2.3 소결	42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43

3.1 양태조동사와 주어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43
3.1.1 동적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44
3.1.2 의무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48
3.1.3 인식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57
3.2 양태조동사와 주제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69
3.2.1 동적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70
3.2.2 의무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71
3.2.3 인식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72
3.3 양태조동사와 시간사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73
3.3.1 동적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74
3.3.2 의무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77
3.3.3 인식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79
3.4 양태조동사와 전치사구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81
3.4.1 주어와 술어 사이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82
3.4.2 주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86
3.4.3 주어의 앞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88
3.5 양태조동사의 특수 분포 및 정보구조	90
3.5.1 양태조동사가 문말로 후치되는 경우	90
3.5.2 양태조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94
3.6 소결	96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98

4.1 양태부사와 주어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98
4.1.1 의무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100
4.1.2 인식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104
4.1.3 평가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109

4.2 양태부사와 주제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118
4.2.1 의무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119
4.2.2 인식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120
4.2.3 평가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121
4.3 양태부사와 전치사구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123
4.3.1 주어와 술어 사이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123
4.3.2 주어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125
4.3.3 주어 앞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126
4.4 양태부사의 특수 분포 및 정보구조	128
4.4.1 양태부사가 문말로 후치되는 경우	128
4.4.2 양태부사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131
4.5 소결	135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138
5.1 양태조동사 간의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139
5.2 양태부사와 양태조동사의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143
5.2.1 의무 양태조동사와 연용하는 경우	144
5.2.2 인식 양태조동사와 연용하는 경우	150
5.3 양태부사들 간의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151
5.3.1 의무 양태부사와 연용하는 경우	152
5.3.2 인식, 평가 양태부사와 연용하는 경우	155
 6. 결론	160
 【参考文献】	163
【中文摘要】	170

표 목 차

표1: 양태조동사와 주어의 생성관계	11
표2: Lambrecht(1994) 세 가지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19
표3: Van der Auwera & Plungian(1998)의 양태유형	27
표4: 谢佳玲(2004)의 양태체계	29
표5: 조동사와 부사의 통사적 차이	30
표6: 학자들의 양태조동사의 범위와 분류	31
표7: 본고의 양태조동사의 범위와 분류	36
표8: 최근의 연구에서의 양태부사의 하위분류	36
표9: 학자들의 양태부사의 분류	37
표10: 본고의 양태사의 범위와 종류	41
표11: 양태조동사가 위치한 문장에서 정보구조의 차이	65
표12: 양태조동사의 분포 양상	97
표13: 양태부사와 주어의 위치관계 (단위: %)	98
표14: 양태부사가 위치한 문장에서 정보구조의 차이	112
표15: 양태부사가 ‘NP’ 앞에 있을 때 문장의 정보구조	113
표16: 杨德峰(2008) 후치할 수 있는 부사의 비율	128
표17: 양태부사의 분포 양상	136
표18: 동적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140
표19: 의무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141
표20: 인식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143
표21: 의무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147
표22: 인식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의 공기 양상	150
표23: 인식 양태부사와 인식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151
표24: 의무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	154
표25: 인식, 평가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	156
표26: 양태사의 분포 양상	161

그림 목 차

그림1: 蔡维天(2010) 양태사의 분포와 의미의 대응관계	11
그림2: 양태부사와 주어의 위치관계	100
그림3: 史金生(2003) 양태부사의 연용순서	152

1. 서론

1.1 문제 제기

현대중국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위치하지만 주어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 (1) | a. 他 <u>应该</u> 负责 ¹⁾ 。 |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
| | b. <u>应该</u> 他负责。 |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 |
| (2) | a. 他 <u>可能</u> 去过。 | 그는 아마 가봤을 것이다. |
| | b. <u>可能</u> 他去过。 | 아마도 그는 가봤을 것이다. |
| (3) | a. 我 <u>也许</u> 错了。 | 나는 아마도 틀렸을 것이다. |
| | b. <u>也许</u> 我错了。 | 아마도 내가 틀렸을 것이다. |
| (4) | a. 他 <u>大概</u> 不知道。 | 그는 아마 모를 것이다. |
| | b. <u>大概</u> 他不知道。 | 아마 그는 모를 것이다. |

양태를 나타내는 성분 중 어떤 것이 주어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지, 두 분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함께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朱德熙(1982)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大概他不知道’는 수식구조이고 ‘他大概不知道’는 주술구조이며, 두 문장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적 분석만으로는 그 문장의 기능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순은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문법 수단이다. 특히 조동사와 부사의 분포 변화는 문장의 의미나 기능의 차이를 야기한다. 다음 예를 보자.

- (5) a. *他应该负责, 而不是我。
b. 应该他负责, 而不是我。
내가 아니라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

1) 본고에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예문은 ‘BCC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을 다시 정리하여 만든 예문이다.

- (6) a. 他可能去过, 也可能没去过。
그는 가 보았을 수도 있고, 가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b. *可能他去过, 也可能没去过。
- (7) a. *我也许错了, 他没错。
b. 也许我错了, 他没错。
아마도 내가 틀렸고 그가 옳았을 것이다.
- (8) a. *他大概不知道, 她也不知道。
b. 大概他不知道, 她也不知道。
아마 그도 모르고 그녀도 모를 것이다.

위 예문에서 문맥에 따라 양태의 분포에 대한 문장의 수용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양태성분의 분포가 의미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예문 (5)의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应该’가 주어의 앞에 와야 함을 보여준다. 즉, 문맥에 따라서 양태성분의 분포는 엄격히 통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태 성분들은 중국어에서 주로 양태조동사(modal auxiliary)나 양태부사(modal adverb)로 충당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양태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들을 통칭하여 ‘양태사(modals)’라고 부를 수 있다. ‘양태(modality)’란 명제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가리킨다. 본고는 문장 내에서의 양태사의 분포가 화자의 정보포장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즉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원하는 정보를 적절히 구성하여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는 문장의 형식, 즉 어순, 강세, 문법 표지 등으로 표현된다. 본고는 양태사의 분포가 정보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태사의 분포에 있어 차이가 있는 문장은 서로 다른 정보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양태사의 하위범주나 의미유형에 따라 분포 양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긍정과 부정, 의문 등의 형식적 특성에 따라서도 어순에 있어서 다른 제약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 예를 보자.

- (9) a. 他会打她。 그는 그녀를 때릴 것이다.
 b. *会他打她。
 a1. 他不会打她。 그는 그녀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 b1. *不会他打她。
 a2. 他会不会打她? 그가 그녀를 때릴 수 있을까요?
 b2. 会不会他打她了? 그가 그녀를 때렸을까요?
- (10) a. 他应该负责。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b. 应该他负责。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
 a1. 他不应该负责。 그는 책임지지 말아야 한다.
 b1. 不应该他负责。 그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
 a2. 他应不应该负责?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b2. 应不应该他负责?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 (11) a. 他应该已经走了。 그는 아마 이미 갔을 것이다.
 b. 应该他已经走了。 아마 그는 이미 갔을 것이다.
 a1. *他不应该已经走了。
 b1. *不应该他已经走了。
 a2. *他应不应该已经走了?
 b2. *应不应该他走了?
- (12) a. 他们可能会打起来。 그들은 아마도 싸움이 날 것이다.
 b. 可能他们会打起来。 아마 그들은 싸움이 날 것이다.
 a1. 他们不可能会打起来。 그들은 싸움이 날 리가 없다.
 b1. *不可能他们会打起来。
 a2. 他们可不可能(*会)打起来? 그들은 싸움이 날까요?
 b2. *可不可能他们会打起来?

예문(9b)와 (9b1)과 같이 ‘会’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은 문두에 위치할 수 없지만, (9b2)와 같이 그의 정반의문형식이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문(10a1)과 (10b1)을 보면 ‘应该’가 부정사의 수식을 받아 문두나 문장 가운데에 모두 올 수 있고, 예문(10a2)와 (10b2)의 정반의문형식도 그렇다. 그러나 (11)은 (10)과는 달리 ‘应该’는 문장 가운데 혹은 문두에 올 수 있음에도, 상응하는 부정형식과 정반의문형식에서는 모두 출현할 수 없다. 예문(12)의 ‘可能’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예를 통해 문장의 형식에 따른 양태사의 분포특징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일부 양태사는 주어 앞에 올 수 없지만, 주어의 뒤에 출현할 경우 다른 성분과의 공기에 있어 다양한 분포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 예문들은 양태사가 시간사나 전치사구와 함께 공기하는 경우, 다양한 분포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13) a. 我现在要做功课, 不想出去玩儿。
나는 지금 숙제를 해야 해서 밖에 나가 놀고 싶지 않다.
b. *我要现在做功课, 不想出去玩儿。
c. 我要现在做功课。
나는 지금 숙제를 해야 한다.
- (14) a. 他在家不敢玩手机, 只敢玩电脑。
그는 집에서는 핸드폰은 감히 하지 못하고 컴퓨터만 할 수 있다.
b. *他不敢在家玩手机, 只敢玩电脑。
c. 他不敢在家玩手机。
나는 감히 집에서 휴대폰을 하지 못한다.
- (15) a. 我们应该向他道歉。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
b. *我们向他应该道歉。
- (16) a. *应该关于这个, 我向你道歉。
b. 关于这个, 我应该向你道歉。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한테 사과해야 한다.
c. 关于这个, 应该我向你道歉。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양태사들은 연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태사의 유형에 따라 공기 양상은 다르다. 예를 들어, ‘大概’와 ‘必须’는 모두 ‘得’와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大概’와 ‘得’는 (17)에서 세 가지 어순이 모두 문법적인 반면, ‘必须’와 ‘得’는 (18)과 같이 두 가지 어순만 문법적이다.

- | | |
|----------------|-----------------|
| (17) a. 他大概得去。 | 그는 가야 할 것 같다. |
| b. 大概得他去。 | 아마 그가 가야 할 것이다. |
| c. 大概他得去。 | 아마 그는 가야 할 것이다. |
| (18) a. 他必须得去。 | 그는 가야만 한다. |
| b. 必须得他去。 | 그가 가야만 한다. |
| c. *必须他得去。 | |

양태사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어 앞과 뒤뿐만 아니라 문말에 출현하는 것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음 예문들처럼 양태사가 문말로 후치되는 것도

양태사에 따라 그 기능과 제약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a. 他{应该/可能}走了。 그는 아마 갔을 것이다.
 b. 他走了{应该/可能}。 그는 갔을 것이다, 아마도.
 (20) a. 他{大概/也许}不会来了。 그는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
 b. 他不会来了{大概/也许}。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21) a. 他{应该/可能}去。 그는 가야 한다. / 그는 갈 가능성이 있다.
 b. *他去{应该/可能}。

상기 예문들을 통해 양태사에 다양한 분포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양태사의 서로 다른 분포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제약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통사적이나 의미적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용적으로, 특히 정보구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중국어의 양태사, 특히 상술한 양태조동사와 양태부사가 갖는 다양한 분포적 특성이 문맥에 따른 화자의 적절한 정보 전달 책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며, 개별 양태조동사와 양태부사의 분포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여, 정보구조이론을 바탕으로 양태부사의 분포를 결정하는 원리와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과거 중국어 양태 연구는 서양의 양태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태조동사에 집중하였고, 양태부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최근에는 양태부사를 중국어 양태체계 안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양태사의 분포는 양태 의미유형과 대응되며, 그에 따라 주어와의 상대적 위치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태사 체계 전체의 분포와 의미가 어떠한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각 분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전에 본절에서는 양태사의 분포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하고자 한다.

1.2.1 생성문법적 접근법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양태사를 모두 고찰하여 양태체계의 분포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지만, 일부 양태사 혹은 조동사나 부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이들의 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생성문법의 인상과 통제이론(raising and control)을 통해 이런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曹逢甫(1996, 2005)는 중국어에서 ‘可能’, ‘应该’, ‘似乎’와 같은 어휘들은 줄곧 중시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각각 부사, 조동사 혹은 동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들을 모두 ‘인상동사’로 간주하고, 주제 인상 규칙에 적용되며, 내포절 주제를 문장주제로 인상한다고 주장하였다.²⁾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 | |
|--------------------------------------|-----------------------|
| (22) a. <u>可能</u> 他 <u>已经</u> 买了那本书。 | 아마 그는 이미 그 책을 샀을 것이다. |
| b. 他 <u>可能</u> 已经买了那本书。 | 그는 아마 이미 그 책을 샀을 것이다. |
| c. <u>可能</u> 他 <u>那本书</u> 已经买了。 | 아마 그는 그 책을 이미 샀을 것이다. |
| d. 他 <u>可能</u> 那本书已经买了。 | 그는 아마 그 책을 이미 샀을 것이다. |
| e. 他 <u>那本书</u> <u>可能</u> 已经买到了。 | 그는 그 책을 아마 이미 샀을 것이다. |
| f. <u>可能</u> 那本书他 <u>已经</u> 买了。 | 아마 그 책은 그가 이미 샀을 것이다. |
| g. 那本书 <u>可能</u> 他 <u>已经</u> 买了。 | 그 책은 아마 그가 이미 샀을 것이다. |
| h. 那本书他 <u>可能</u> 已经买了。 | 그 책은 그가 아마 이미 샀을 것이다. |

(22)에서 내포절의 주제가 문장 주제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서 ‘내포절 주제’는 주제화 현상이고, 내포절 주제가 문장 밖으로 이동하면 주제가 인상된다. 그는 ‘幸亏’, ‘好在’, ‘好像’ 등을 전통적으로 부사로 보는 것은 의미적 이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여겼다. 즉 동사는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반면, ‘幸亏’, ‘好在’ 등은 의미가 추상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들을 부사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반박하고, ‘可能’, ‘应该’, ‘会’와 같이 심층 구조에서 절의 하위분류를 구분하는 동사라고 보았으며, 각 변이형은 모두 주제 인상 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³⁾ 예는 다음과

2) 曹逢甫(1996)에서는 ‘주제화’와 ‘주제 인상’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한 명사구가 문장에서의 동사와 어떤 기능상 관련이 있으면 그 명사구가 주제화된 것이다. 주제가 내포절 바깥으로 이동되면, 인상된 주제가 된다. 전자를 내포절 주제(혹체로 표시)라고 하고 후자를 문장주제(사체로 표시)라고 한다.

3) 曹逢甫(1996, 2005) ‘会’의 행위자 주어에 대한 인상은 반드시 다른 주제를 인상되기 전에

같다.

- (23) a. 幸亏去年他没有娶阿花。
다행히 작년에 그는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b. 幸亏他去年没有娶阿花。
다행히 그는 작년에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c. 幸亏阿花他去年没有娶。
다행히 阿花는 그가 작년에 아내로 삼지 않았다.
- d. 幸亏他去年阿花没有娶。
다행히 그는 작년에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e. 幸亏他阿花去年没有娶。
다행히 그는 阿花를 작년에 아내로 삼지 않았다.
- f. 他幸亏去年没有娶阿花。
그는 다행히 작년에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g. 去年幸亏他没有娶阿花。
작년에 다행히 그는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h. 阿花幸亏他去年没有娶。
阿花는 다행히 그가 작년에 아내로 삼지 않았다.
- i. 阿花幸亏去年他没有娶。
阿花는 다행히 작년에 그가 아내로 삼지 않았다.
- j. 他去年幸亏没有娶阿花。
그는 작년에 다행히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k. 他去年幸亏阿花没有娶。
그는 작년에 다행히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l. 他阿花幸亏去年没有娶。
그는 阿花를 다행히 작년에 아내로 삼지 않았다.
- m. 阿花他幸亏去年没有娶。
阿花는 그가 다행히 작년에 아내로 삼지 않았다.
- n. 去年他幸亏没有娶阿花。
작년에 그는 다행히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 o. 去年他幸亏阿花没有娶。
작년에 그는 다행히 阿花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

완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 p. 去年阿花幸亏他没有娶。
작년에 阿花는 다행히 그가 아내로 삼지 않았다.
- q. 阿花去年幸亏他没有娶。
阿花는 작년에 다행히 그가 아내로 삼지 않았다.
- r. 他去年阿花幸亏没有娶。
그는 작년에 阿花를 다행히 아내로 삼지 않았다.
- s. 他阿花去年幸亏没有娶。
그는 阿花를 작년에 다행히 아내로 삼지 않았다.
- t. 去年他阿花幸亏没有娶。
작년에 그는 阿花를 다행히 아내로 삼지 않았다.
- u. 去年阿花他幸亏没有娶。
작년에 阿花는 그가 다행히 아내로 삼지 않았다.
- v. 阿花他去年幸亏没有娶。
阿花는 그가 작년에 다행히 아내로 삼지 않았다.
- w. 阿花去年他幸亏没有娶。
阿花는 작년에 그가 다행히 아내로 삼지 않았다.

曹逢甫는 이전 연구에서는 ‘幸亏’의 위치가 왜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웠으며 관련 연구도 시도된 바 없었지만, 만약 ‘幸亏’를 동사로 보면 ‘주제 인상’(topic raising) 이라는 이동규칙에 의거해서 위의 변이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曹逢甫(2005)에서 인식 양태사로 사용되는 ‘好像’, ‘似乎’, ‘可能’, ‘应该’ 등을 전체 명제를 보어로 삼는 일항술어로 분석한 반면, 의무 양태조동사와 동적 양태조동사는 인식 양태사와 달리 주어와 VP논항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동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4) a. *应该你明天念那本书。
b. 你应该明天念那本书。 너는 내일 그 책을 읽어야 한다.
c. 你明天应该念那本书。 너는 내일 그 책을 읽어야 한다.
d. 明天你应该念那本书。 내일 너는 그 책을 읽어야 한다.
e. *那本书应该你明天念。
f. 那本书你应该明天念。 그 책을 너는 내일 읽어야 한다.
- (25) a. *会他说英语。
b. 他会说英语。 그는 영어를 할 줄 안다.

c. 英语, 他会说。

영어는 그가 할 줄 안다.

曹逢甫는 (24b, c, d)에서 비록 시간 부사어가 ‘应该’의 앞과 뒤에 올 수 있더라도, 그들의 위치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초래되며, (24f)와 (25c)에서 목적어가 문두에 온 것은 일반적인 주제화의 결과로 보았다. 하지만 이에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曹逢甫는 인식 양태사를 인상동사로 보았지만, 모든 양태사를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6)에서 보듯, 인식 양태사인 ‘会’는 ‘可能’이나 ‘应该’와 달리 주어를 그 앞으로 반드시 전치해야 하고, 반대로 의무 양태사인 ‘应该’는 주술구조를 그의 보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6) a. *他会买那本书。
 b. 他会买那本书。 그는 그 책을 살 것이다.
 c. *会他那本书买。
 d. *他会那本书买。
 e. 他那本书会买。 그는 그 책을 살 것이다.
 f. *会那本书他买。
 g. *那本书会他买。
 h. 那本书他会买。 그 책은 그가 살 것이다.
- (27) a. 应该他买那本书。 그가 그 책을 사야 한다.
 b. 他应该买那本书。 그는 그 책을 사야 한다.
 c. *应该他那本书买。
 d. *他应该那本书买。
 e. 他那本书应该买。 그는 그 책을 사야 한다.
 f. *应该那本书他买。
 g. 那本书应该他买。 그 책은 그가 사야 한다.
 h. 那本书他应该买。 그 책은 그가 사야 한다.

胡波(2015)는 (27a, g)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어는 전형적인 주어 위치인 문두로 강제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제 인상 규칙에는 완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7c, d, f)에서는 목적어인 ‘那本书’를 내포절 주제로 인상시키면 비문이 되지만, 주절의 주제로 인상시키면 (27h)와 같이 정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胡波는 이에 근거하여 인상 조동사와 통제 조동사의 주절과 내포절의 명사구는

모두 문장주제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인상동사의 범위를 의무 양태조동사, 동적 양태조동사까지 확대하였으며, 인상조동사와 통제조동사의 주절과 내포절의 명사구는 모두 문장의 주제로 인상할 수 있으나 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위의 (27c, d, f)에서 내포절의 주제로 인상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제약이 존재하고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彭利贞(2005)에서도 曹逢甫가 인식 양태조동사를 인상동사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曹逢甫가 ‘会’에 대한 부가적인 규칙에 대해 매우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한 것 외에, ‘要’, ‘能’도 인식 양태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나 인상동사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식 양태동사 ‘可能’, ‘应该’는 모두 부정될 수 있으나, 부정되는 ‘不可能’, ‘不应该’는 더 이상 한 문장을 목적으로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그 예로 ‘*不可能他明天会赢那场球.’를 들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박정구(1996), 蔡维天(2010) 등 학자들이 인상과 통제이론으로 조동사의 이동 문제도 언급하였으나 曹逢甫(2005), 胡波(2015)와의 견해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우선 주제나 주어의 이동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학자마다 상승과 통제동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⁴⁾, 주제 인상인지 주어 인상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4) 학자들의 상승과 통제동사의 범위:(굵은 글씨는 인상동사이다.)

	曹逢甫(2005)	박정구(1996)	胡波(2015)
인식	可能, 很可能, 应该, 会, 该, 应当	可能, 应该	可能, 应该 ₁ , 会 ₁ , 要 ₁ , 能 ₁
의무	能, 能够 要, 必须, 必得, 需要, 得 应该, 应当, 该	可以, 必得, 应该, 会	必须, 应该 ₂ , 可以 ₂ , 要 ₂ , 须要 ₂ , 能 ₃ , 能 ₄
동적	会, 能, 要, 愿意, 肯, 敢	会, 能, 愿意, 要, 可以	能 ₂ , 可以 ₁ 敢, 肯, 会 ₂ , 可以 ₃ , 要 ₃ , 能 ₄ , 可以 ₃

표1: 양태조동사와 주어의 생성관계

	曹逢甫(1996)	박정구(1996)	蔡维天(2010)	胡波(2015)
인식	주제(인상)	주제(인상)	주제(인상)	주제(인상)
의무		주어(인상)	내·외주어	
동적		주어(통제)	내주어(통제)	주어(통제)

또한 상기 연구들은 문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장 간의 기능적 차이를 중시하지 않았다. 주제나 주어가 인상되어 변이형을 이루는 경우, 변이형의 주제나 주어 인상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인상 전후의 문장 간에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알 수가 없다.

蔡维天(2010)은 양태사의 유형이 문법구조상의 위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몇 개의 양태사를 선택하여 양태부사와 양태조동사의 연용, 양태사와 내·외주어(inner and outer subjects), 부정사의 상호 작용 등을 통해 양태사의 분포와 의미 유형간의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蔡维天(2010) 양태사의 분포와 의미의 대응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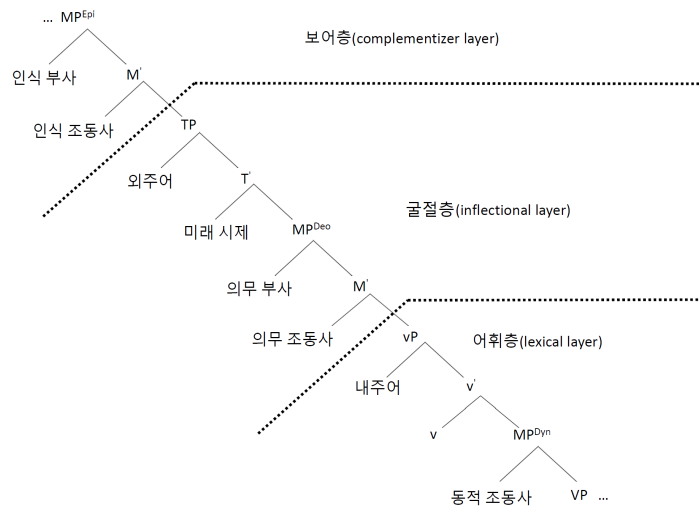


그림1을 보면 양태사의 각 하위범주에서 품사 종류(조동사, 부사)와 관계없이 주어와의 위치관계는 동일하다. 蔡维天은 이를 형식 의미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인

식 양태사가 명제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문장을 그 논리적인 범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적 양태사는 주어와 의미역 관계(thematic relation)를 유지하고, 개체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며, 반드시 내주어(inner subject) 밑에 위치해야 하는 반면, 의무 양태사는 시제구와 같은 위치에, 즉 내·외주어(inner and outer subjects) 사이에 있기에, 양태의 성격은 사건의 환경조건,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최근의 형식이론에 근거해서 양태사의 분포를 논의한 연구로서 이전보다 훨씬 설명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구조 측면에서 그 분포와 기능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데, 이는 형식문법적 접근의 한계이기도 한다.

1.2.2 의미 영역 분석

양태사의 분포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의미 영역(semantic scope)의 관점으로 양태사의 분포를 설명한 것이다.

郭昭军(2003)은 ‘可能’과 ‘会’의 의미 영역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会’는 주어 뒤에 올 수 있을 뿐, 문두에 올 수 없다. 이것은 ‘会’의 의미 영역이 술어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고 주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可能’은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그것의 의미 영역은 문장 전체이다.”라고 하며, 다음의 예를 제시하였다.

- (28) a. 母鸭下蛋, {可能/*会}价钱卖得贵些。

암오리가 알을 낳으면 아마 값이 좀 비싸게 팔릴 것이다.

- b. 没看出来, {可能/*会}我是个俗人。

알아내지 못했어, 아마 난 속인일 거야.

- c. {有可能/*会}老妇人被野兽所伤。

노부인이 들짐승에게 다쳤을 수도 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그것들이 동일한 문장에서 공기되는 경우, ‘可能’은 ‘会’보다 먼저 나타나고, 그 반대는 비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 (29) a. 张三可能会来。 张三은 아마 올 것이다.
 b. 可能张三会来。 아마 张三이 올 것이다.
 c. *张三会可能来。
 d. *会张三可能来。

杨才英·梁万基(2015)는 양태사 ‘可能’의 의미 영역이 반드시 문장 전체가 아니라는 관점도 제시하였다.

- (30) 可能明天他要回家。 아마도 내일 그는 집에 갈 것이다.
 (31) 明天可能他要回家。 내일 아마도 그는 집에 갈 것이다.

(30)처럼 ‘可能’이 문두에 온 경우 의미 영역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 절 명제 ‘明天他要回家’에 대한 추측과 ‘可能’ 뒤의 시간 성분 ‘明天’에 대한 추측이다. (31)처럼 주어 앞의 ‘可能’도 두 가지 의미 영역이 존재한다. 즉 ‘他要回家’에 대한 추측과 ‘他’에 대한 추측이다. 따라서 ‘可能’의 의미 영역으로 볼 때, ‘可能’은 절 전체, 절의 주어, 술어, 부사어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그의 의미 영역은 그 뒤가 되며, 앞으로 이동할수록 한정 범위는 넓어진다. 이를 통해 杨才英·梁万基(2015)의 관점은 郭昭军(2003)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杨才英·梁万基(2015)에서 ‘可能’ 외에 ‘必须’, ‘可以’, ‘应该’가 문두에 오는 경우도 언급하였으나 의미 영역의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必须’, ‘可以’, ‘应该’가 문두에 올 때 주어에 대한 일종의 대비 혹은 강조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2) 我的徒弟有多大本领我清楚, 有些重伤必须我亲自去治。
 제 제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일부 중상은 반드시 내가 직접 치료해야 한다.
 (33) 太太不在, 应该我去发言。
 큰 마님이 없으니 내가 발언해야 한다.
 (34) 可以你写一封信, 我请领事馆代送。
 당신이 편지를 한 통 쓰고 내가 영사관에 대리 송달을 부탁하면 되겠다.

杨才英·梁万基(2015)에서는 비록 왜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태사가 동일하게 문두에 위치해도 문장에 대한 영향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는 다수의 부사, 특히 양태부사가 문두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의미 영역의 관점으로 논의하였다. 史金生(2003)은 일반적으로 부사는 항상 주어 뒤에 위치하고, 양태부사⁵⁾는 주어 뒤에 쓰일 수도 있고 주어 앞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양태부사는 문말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 해당되는 예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 (35) 也许, 他愿意这样永远地, 日久天长地仰卧在大海的碧波之上。
아마도 그는 이렇게 영원히 오래도록 바다의 파란 파도 위에 눕기를 원할 것이다.
- (36) 可见徐承宗的说法儿也许并不准确, 如果是我偏听偏信, 开口骂了义父亲金一趟, 那可就是错上加罪了!
徐承宗의 말이 어찌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소. 만약 내가 그의 말을 무작정 믿고 의부인 金一趟에게 입을 벌려 욕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실수에 실수를 더 한 꼴이 되었을 것이오!
- (37) “没看见, 在纸底下, 也许。” 他们不约而同的说。
‘못 봤는데요. 종이 아래에 있을지도. 어찌면.’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말했다. (史金生2003)

史金生(2003)에 따르면, (37)에서 ‘也许’가 문말에 나타나는 것은 구어에서의 변이 현상이다. 의미 영역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장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사는 이동할 수 없는 부사보다 의미 영역이 더 크다고 하였다.

张谊生(2000)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다. 그는 대다수의 이음절 양태부사가 표현의 필요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위치에 올 수 있다고 보았다. 문장의 앞이나 끝에 올 수 있는 부사는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문장 전체에 대해 평가하고, 문장 가운데에만 오는 부사는 단지 술어 부분만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⁶⁾ 그는 전체 문장을 평가할 때에는, 주제 (주어)를 포함해서 전체 문

5) 史金生(2003)에서는 ‘语气副词’라고 부른다.

6) 张谊生(2000)에서는 양태부사를 ‘评注性副词’라고 부르고 문장 전체와 술어 부분을 평가

장이 모두 새로운 정보이며, 문장의 일부만 평가할 때에는 평언만 새로운 정보이고, 문장의 주제는 구정보라고 분석하였다. 张谊生은 비록 신정보, 구정보 등 정보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언급했지만, 주제가 문두에 있을 경우 이를 신정보라고 여기고 주제와 주어를 동등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이에 대해 화용적 관점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의미 영역의 관점으로 양태사의 분포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에는 모순점이 존재한다. 문두에 있을 때뿐 아니라 문장 가운데에서도 명제 전체가 의미영역에 해당된다는 분석은 문두와 다른 위치에 있을 때의 차이를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어떤 양태부사가 주어 앞과 뒤 혹은 문말에 위치하는지의 구체적인 제약 조건과 각 위치에서의 기능 차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3 초점민감 연산자 분석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양태사의 이동이 초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동할 수 있는 단어들을 초점 표지나 초점에 민감한 연산자(focus-sensitive operator)⁷⁾로 간주한다. 특히 徐烈炯(2001)은 영어의 초점민감 연산자와 대응하는 중국어의 단어들도 초점민감 연산자로 보았다. 그가 언급한 초점민감 연산자는 양태를 나타내는 ‘必须’, ‘真的’, ‘居然’ 등이 있다. 徐烈炯은 초점민감 연산자의 오른쪽 인접 성분이나 내포된 성분(emdedded constituent), 또는 그의 투사된 성분이 모두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38) a. 总是老张星期一开校车。 항상 老张이 월요일에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b. 老张总是星期一开校车。 老张은 항상 월요일에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c. 老张星期一总是开校车。 老张은 월요일에 항상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 (39) a. 必须大家会上表示同意。 반드시 모두가 회의에서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
 b. 大家必须会上表示同意。 여러분은 반드시 회의에서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
 c. 大家会上必须表示同意。 모두 회의에서 반드시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

할 때 각각 ‘全幅评注’, ‘半幅评注’라고 불렀다.

- 7) 진리값 조건 의미론은 초점을 연구할 때 초점민감 연산자의 개념을 제시하며, 초점민감 연산자는 문장의 어떤 성분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문장의 진리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40) a. 居然老张在会上答应了。 뜻밖에도 老张이 회의에서 승낙했다.
 b. 老张居然在会上答应了。 老张은 뜻밖에도 회의에서 승낙했다.
 c. 老张在会上居然答应了。 老张은 회의에서 뜻밖에도 승낙했다.

徐烈炯은 초점이 반드시 초점 연산자의 초점 영역(focus scope) 내에 있어야 하며, ‘都’, ‘也’와 같은 소수의 후치성 초점민감 연산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초점민감 연산자가 초점 앞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祁峰(2012)은 ‘会’, ‘应该’, ‘必须’, ‘可能’과 같이 인식, 의무를 나타내는 양태동사나 양태부사는 문두에 올 수 있고, 문장 가운데에 올 수도 있으며, 초점가능 성분에 대한 구속 작용을 한다고 보고, 이들을 비독립적인 초점강요형식으로 분석하였다.⁸⁾

- | | |
|---------------------------|--------------------|
| (41) a. <u>会</u> 明天下雨。 | 내일 비가 올 것이다. |
| b. 明天 <u>会</u> 下雨。 | 내일 비가 올 것이다. |
| (42) a. <u>应该</u> 他去上海。 | 그가 상하이에 가야 한다. |
| b. 他 <u>应该</u> 去上海。 | 그는 상하이에 가야 한다. |
| (43) a. 这件事 <u>必须</u> 他去。 | 이 일은 반드시 그가 가야 한다. |
| b. 这件事他 <u>必须</u> 去。 | 이 일은 반드시 그가 가야 한다. |
| (44) a. <u>可能</u> 他明天去。 | 아마도 그는 내일 갈 것이다. |
| b. 他 <u>可能</u> 明天去。 | 그는 아마 내일 갈 것이다. |
| c. 他明天 <u>可能</u> 去。 | 그는 내일 갈지도 모른다. |

祁峰(2012)은 이들을 초점강요형식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는 초점 표지이고 일부는 초점 연산자라고 하였다. 전자에는 의무를 나타내는 ‘应该’, ‘必须’가 해당되고, 후자에는 인식을 나타내는 ‘可能’, ‘也许’, ‘会’, ‘将要’ 등이 해당된다. 이는 부정테스트를 통해 판단된 것이다. 하지만 刘林(2016)은 양태조동사 ‘必须’, ‘可能’, ‘能’, ‘一定’ 등이 모두 초점 연산자라고 보았다. 초점 표지인지 초점 연산자인지의 판단 근거는, 초점 연산자의 경우 해당 성분을 제거를 하더라도 문장의 문법과 의미에 영향

8) 祁峰(2012)는 신정보인 초점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초점강요형식을 독립적 초점강요형식과 비독립적 초점강요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가 말한 독립적 초점강요형식은 wh-의문사를 사용하여 그 성분 자체가 문장의 초점이 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고, 비독립적 초점강요형식은 문장 내의 어떤 성분이 문장의 초점이 되게 하는 것으로 초점 표지 ‘是’, 초점민감 연산자 ‘只’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지현(2018)은 ‘居然’, ‘明明’, ‘难道’, ‘反正’, ‘多亏’를 어기성 초점민감 연산자⁹⁾로 보고 그것들의 위치 실현 원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들은 뒤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초점관련성분도 의미지향의 방향과 동일하게 뒤따른다. 이로 인해 초점관련성분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장 내 이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는 (40c)와 같은 어기성 초점민감 연산자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사용된 경우에는 인접하는 술어 전체를 제약하여 초점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술어초점 구조를 구성하며, (40a)와 같은 어기성 초점민감 연산자가 문두에 사용된 경우 초점민감 연산자가 ‘어떤 전체 사건에 대한 평가’라는 특성을 띄기 때문에 그 어휘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인접성의 원칙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경우 초점 연산자가 인접하는 개별 문장 성분이 아닌 전체 문장을 관할하게 되기에, 넓은 초점구조인 문장초점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양태사 뒤의 인접 성분이 초점인지 양태사 뒤의 문장 전체가 초점인지에 대해 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자들은 일부 양태사를 초점표지 혹은 연산자로 보지만, 어떤 양태사가 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위의 양태사의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 개별적이고 나열적 논의가 대부분이다. 양태사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정보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전체 체계 내에서의 개별 양태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연구방법 및 내용

본고는 정보구조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양태사의 분포 원인을 전면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정보구조’는 화자가 담화맥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문장구조이다. 양태사가 다른 분포를 보일 때 문장의 정보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면 양태사가 문장에서 다양한 분포 형식을 가지는 원인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분석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는 양태사의 분포가 주제 또는 초점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

9) 서지현(2018)에서 초점민감 연산자(focus-sensitive operator)를 초점민감사라고 부른다.

다. 주제 혹은 초점의 선택은 학자마다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는지를 반영한다. 하지만 주제와 초점은 정보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으로서 서로 상반되는 정보적 특성을 가진다. 즉 그것들이 신정보인지 구정보인지, 다시 말하면 담화에서 전제되는지 아닌지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 혹은 초점의 측면만으로 살펴보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양태사의 다른 분포 형식에 대해서 정보구조의 관점으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3.1 정보구조 이론

정보구조 이론은 1930년대 프라그 학파의 ‘기능적 문장 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에서 시작하여, Halliday, Kuno, Chafe, Valliduvu, Lambrecht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정보구조란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제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그 구조를 정보의 단위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휘문법적 구조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이다. 문장의 정보구조는 담화에서 명제의 화용적 구조에 대한 형식적 표현이고 문장 문법의 한 부분으로서 형식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1) 문장의 정보구조 유형

Lambrecht(1994)에 따르면 명제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담화 문맥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My car broke down.’ 이 문장은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맥적 상황이 존재한다.

- (45) a. What happened to your car?
네 차에 무슨 일 있어?
你的车怎么了?
b. My car/It broke DOWN.
고장 났어.
(我的车)坏了.
- (46) a.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네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며?

听说你的摩托车坏了?

b.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 났어.

我的车坏了。

(47) a.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b.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 났어.

我的车坏了。

상기 문장들에서 모두 (b)는 동일한 명제이지만, 문장의 화용적 기능은 다르다. (45b)에서 술어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차(车)’라는 주제에 대한 평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때 초점 영역은 술어인 ‘broke down’이다. (46b)에서는 어떤 것이 고장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즉 문장의 목적은 명제에서 공백 논항에 대한 확인이며, 이때 문장의 초점 영역은 명사구인 ‘my car’이다. (47b)는 어떤 화용적 전제도 유발하지 않고 화자는 전체 문장을 하나의 새로운 사건으로서 청자에게 전달하는데, 이 때 초점 영역은 전체 문장이다.

이 세 가지 구조를 각각 술어초점(predicate focus) 구조, 논항초점(argument focus) 구조와 문장초점(sentence focus) 구조라고 부른다. 그는 세 가지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을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냈다.

표2: Lambrecht(1994) 세 가지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초점에 있는 논항	초점에 있는 술어	
술어초점	-	+	주제-평언
논항초점	+	-	논항-확인
문장초점	+	+	사건-보도

Lambrecht는 이 세 가지 정보구조가 인간 언어의 공통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언어의 문법적 형식에서 입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언어에서 같은 문장형식이 종종 운율, 특수한 통사 표지, 성분의 위치와 순서 등의 다른 구현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상기 예문에서 영어는 상이한 초점구조에서 강세 차이를 나

타낼 수 있고, 중국어는 종종 운율적 수단을 사용하지만 생략을 통해 초점구조를 표현할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주제문과 비주제문이 각각 다른 표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제 표지(는/은)와 주격 표지(이/가)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보 전달을 위해 언어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구조를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태사가 어떻게 문장의 정보구조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면 우선 양태사가 부여된 문장의 정보구조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주제와 초점의 구분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관적 직관보다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형식적 표지에 근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또한 중국어 정보구조 구현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할 것인데, 중국어 정보구조, 특히 주제와 초점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2) 주제 및 중국어 주제 구현방식

Lambrecht(1994)에 의하면, 문장의 주제는 그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대하는 (is about) 실체로서 현재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대상이며, 명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였다. Li & Thompson(1976)은 중국어를 주제 부각형 언어라고 주장하였고, Chao(1968)은 중국어의 주어가 바로 주제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정보구조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 논항이 초점인 경우와 문장 전체가 초점인 경우에는 주어가 주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徐烈炯·刘丹青(1998)은 주제의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의미측면: 진술(comment)과 대하여성(aboutness)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문장 가운데 주요 동사구 혹은 기타 동사구와 행위자, 피행위자, 혹은 기타 관계의 논항을 가질 수 있고, 또 직접적인 논항의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통사측면: 문두에 등장하고, 진술 성분 앞에 위치하며, 생략이 가능하고, 뒤에 휴지를 둘 수 있으며, 주제표지를 동반할 수 있고, 문장 성분의 주제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문장 중 원래의 위치에 공지시 성분이 나타날 수 있고, 문장 강세가 놓이지 않는 곳이며, 몇몇 문장 혹은 전체 단락과 공유될 수 있다.
- ③ 화용기능 측면: 한정성분(definiteness)이고, 구정보이며, 화자와 청자 쌍방이

공유하는 정보이고 활성화된 정보이며,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끄는 핵심성분으로 초점(focus)과 상반되어 초점이 될 수 없는 성분이다.

어떠한 문장 성분이 상기한 주제의 특징 중 한 기준에 부합하면 다른 두 기준 또한 항상 일관적으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제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가장 용이한 주제 구현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Li & Thompson(1976)은 주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주제 뒤에 주제 표지(topic marker)를 첨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曹逢甫(1979, 1995), 刘丹青(2016)은 중국어의 휴지사 ‘啊’, ‘呢’, ‘吧’ 등은 주제 표지의 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중국어의 휴지사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강제적 주제 표지는 아니지만, 주제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사용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모든 주제가 반드시 주제 표지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문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제 표지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주제성이 결여된 성분은 절대 주제 표지를 가질 수 없다. 중국어 주제의 또 다른 특성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화자와 청자가 그에 대해서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주제는 생략될 수 있다.

3) 초점 및 중국어 초점 구현방식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에서 청자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초점이다. Lambrecht에 의하면 초점은 단언과 일치하지 않는 단언의 일부라고 하였다. 즉 초점은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와 화용적 단언(pragmatic assertion)¹⁰⁾을 구분해주는 정보적 요소이다. 범언어적으로 초점을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주로 운울을 사용하고, 일본어에서는 운울과 형태 표지(주어/주제 명사에 wa/ga의 사용)로 구현하고, 이탈리아어에서는 운울과 어순을 활용하여 초점을 구현하는 등 언어마다 상이하다.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순, 운울, 형태(어휘) 수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초점이 부각된다.

徐烈炯(2001)은 중국어에서 초점 표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로 이루어

10) Lambrecht(1994: 52)에 의하면,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는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 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이다. 화용적 단언(pragmatic assertion)은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이다.

진다고 요약하였다.

- ① 영형태: 초점이 문장초점이나 술어초점인 경우, 강세가 필요 없어 영형태(null)로 나타낸다.
- ② 음운 강세: 동일한 문장에서 정보초점과 주제초점이 모두 있는 경우, 이 두 초점은 다른 어휘들보다 더 강하게 읽거나 더 길게 읽는다.
- ③ 어순: 중국어에서는 가장 큰 정보 혹은 신정보를 문말에 두거나 그 어순을 변화하여 나타낸다.
- ④ 초점 표지: 중국어는 초점성분 앞에 ‘是’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초점을 나타낸다.

徐烈炯(2001)의 초점에 대한 정보 중에서 음운, 어순, 표지에 관한 특성은 Lambrecht가 일찍이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徐烈炯이 제시한 첫 번째 특성은 본고에서 초점 변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특성은 초점 변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Lambrecht의 관점에 근거하여 徐烈炯이 제시한 ‘주제초점’이란 개념에는 반대한다. 즉, 주제와 초점은 서로 배척되는 개념이므로 하나의 성분이 주제이면서 동시에 초점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중국어 양태사의 어순은 분명 초점의 위치와 관련된다. 음운적 특성과 초점 표지 등의 사용 여부를 통해서 양태사의 어순과 초점의 유형 및 분포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초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어구가 의문사로 대체 가능하다면 해당 위치는 초점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초점의 이러한 특징은 주제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성분이 이러한 음운, 표지, 어휘 등으로도 초점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3.2 논의의 구성

본고는 기능주의적 분석방법, 특히 정보구조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양태사들은 내부 차이가 있어 내부 분류의 구분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문법적 특징에 따라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현대중국어 양태사의 범위와 분류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양태사들의 분포가 문장의 정보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태사들의 연용에 있어 어떤 정보구조 제약이 존재하는지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태사 전체를 하나의 연속체로 보고 양태사의 문법화 정도에 따른 분포와 문장의 정보구조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양태사의 분포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통사 및 의미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양태사들이 각각 다른 분포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기능적 차이가 무엇인지와 각각의 양태사들이 서로 다른 정보적 위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연구 목적으로 삼고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구조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삼고 정보구조 유형 및 중국어 정보구조 구현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다.

제2장에서는 먼저 양태개념과 유형분류를 살펴본다. 학자들의 양태범주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이전 연구를 점검하고 나름대로 중국어 양태사의 유형과 범위를 정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양태조동사의 일반적인 분포와 구어에서의 두 종류의 특수한 분포 현상을 통해서, 다양한 분포에 상응하는 정보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양태조동사의 의미유형에 따른 분포양상을 살펴보고, 각 분포 사이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양태부사의 일반적인 분포와 구어에서의 특수한 분포 현상을 통해서, 다양한 분포에 상응하는 정보구조를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서 다른 분포 특성을 가지는 양태부사가 문장 정보구조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현대중국어 양태사 간의 연용 현상을 살펴본다. 본고는 양태사의 연용은 통사 혹은 의미적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보구조 제약도 받는다고 가정을 증명할 것이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본 논문의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을 함축적으로 서술한다.

2. 양태와 현대중국어의 양태사

2.1 양태와 양태사

2.1.1 양태와 양태의 하위범주

언어학에서 양태(modality)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Lyons(1977), Palmer(1979, 1986, 2001) 등이다. Lyons(1977: 452)는 양태를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혹은 명제가 기술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양태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분류하였다.¹¹⁾ Palmer(1979, 1986, 2001)는 Lyons의 분류에 세 번째 양태동사인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Palmer의 예문은 들면 다음과 같다.

- (48) a. John may be in his office.
John은 아마도 사무실에 있는 것 같다.
b. John must be in his office.
John은 틀림없이 사무실에 있다.
c. John will be in his office.
John은 사무실에 있을 것이다.
- (49) a. You {may/can} go now.
너는 지금 가도 돼.
b. You must go now.
너는 지금 반드시 가야 해.
- (50) a. John can speak French.
John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
b. John can will do it for you.
John은 너를 위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1) 박성하(2019), 문병열(2006)은 각각 ‘당위양태’, ‘당위적 양태’라고 불렀다.

(48)에서 인식 양태는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Palmer는 인식 양태를 추측(speculative), 추단(deductive), 가설(assumptive) 등 개념으로 요약했지만, 화자가 판단하는 명제 실현의 가능성 정도를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확실성(certainty)으로 나누었다. (49)에서 의무 양태는 화자가 사건이 사실이 되는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관점으로, 허가(permission), 의무(obligation) 등의 개념과 관련된다. Lyons(1977)에서도 가능성과 필연성으로 의무 양태를 정의했지만 허가(permission), 의무(obligation)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였다. (50)에서 명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관점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ability)과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volition)를 나타낸다. Palmer(1986, 2001:10)는 능력(ability)은 주어의 물리적, 정신적 힘보다 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중성적(neutral), 혹은 상황적(circumstantial) 가능성과 필연성도 동적 양태의 하위분류라고 하였다. 예는 다음과 같다.

- (51) a. He can go now. (Deontic: I give permission)

그는 지금 가도 된다.

- b. He can run a mile in five minutes. (Dynamic: he has the ability.)

그는 5분 안에 1마일을 달릴 수 있다.

- c. He can escape. (Dynamic: the door's not locked)

그는 도망칠 수 있다.

그러나 Palmer(1986)에서 지적했듯이 동적 양태는 ‘주어 지향적인 비 주관성 양태’이므로 ‘능력’과 ‘바람’의 개념과 관련성이 있으나, 앞의 정의에서 언급한 화자의 태도나 관점과 무관하기 때문에, 서양 학자들 혹은 중국어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 중에는 동적 양태를 양태범주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다.¹²⁾ 그러나 동적 양태는 전형적인 양태의 통시적 기원이 되기 때문에, 동적 양태를 양태 논의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¹³⁾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에 대한 다른 구분 기준 및 방식도 있다는 점이다. Palmer(2001)는 의무 대상이 명제인가 사태인가에 따라 인식 양태를 명제 양태(propositional modality)에 귀속시키고,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는 사건 양태(event

12) Lyons(1977), Tsang(1981) 등은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로 나눴다.

13) Palmer(1986) 재인용.

modality)에 귀속시켰다.

Bybee(1994)에서는 유형론적으로 문법화 경로에 근거하여 양태를 행위자 지향적 양태(agent-oriented modality), 화자지향적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종속서법(subordinating mood)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눴다.

- ① 행위자 지향적 양태: 문장의 행위자와 문장술어부의 의미관계. 의무(obligation), 필요(necessity), 능력, 요구, 의도, 의지, 근원적 가능성 등
- ② 화자 지향적 양태: 화자가 청자에게 문장 의미의 행위를 부과하는 관계. 명령, 금지, 기원, 권고, 경고, 허용 등
- ③ 인식 양태: 문장 명제의 진위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관계. 가능성, 개연성, 추론적 확실성, 반 사실성 등
- ④ 종속 서법: 주절 종속절의 의미관계를 종속절 동사에 표시하는 관계. 보어, 양보, 목적 등

유의해야 할 것은 Bybee(1994)는 기존의 ‘동적 양태’와 ‘의무 양태’라는 부류를 사용하지 않았고, 행위자 지향적 양태와 화자 지향적 양태로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Bybee(1994)에서 언급한 행위자 지향적 양태는 (52)와 같은 행위자에게 존재하는 외재적 조건과 내재적 조건을 보도하는 것이고, 화자 지향적 양태는 행위자에게 존재하는 조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 (52) a. All students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Dean of the faculty concerned before entering for examination. (사회적 조건)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b. I need to hear a good loud alarm in the mornings to wake up.

(물리적 조건)(Bybee 1994)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좋은 큰 알람 소리를 들어야 해.

비록 일부 학자들은 Bybee(1994)의 분류법은 용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

지만, 의무 양태에 행위자 지향 의미와 화자 지향 의미가 모두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an der Auwera & Plungian(1998)에서는 ‘참여자 내재’와 ‘참여자 외재’ 그리고 ‘가능(possibility)’과 ‘필연(necessity)’을 기준으로 양태유형을 분류했다. 다음과 같다.

표3: Van der Auwera & Plungian(1998)의 양태유형

가능 Possibility			
비인식-가능 Non-epistemic possibility			인식-가능 Epistemic possibility (불확실성 Uncertainty)
참여자 내재-가능 Participant-internal possibility (동적-가능, 능력, 잠재력 Dynamic-possibility, Ability, Capability)	참여자 외재-가능 Participant-external possibility		
	(비의무-가능 Non-deontic possibility)	의무-가능 Deontic possibility (허가 Permission)	
참여자 내재-필연 Participant-internal necessity (필요need)	(비의무-필연 Non-deontic necessity)	의무-필연 Deontic necessity (의무 Obligation)	인식-필연 Epistemic necessity (개연성 Probability)
		참여자 외재-필연 Participant-external necessity	
비인식-필연 Non-epistemic necessity			
필연 Necessity			

Van der Auwera and Plungian(1998)은 상황적 양태를 동적양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범주를 ‘참여자 외재 양태(participant-external modality)’라고 하였으며 이는 사태의 참여자가 내적으로 가능성이나 능력을 갖는 ‘참여자 내재 양태(participant-internal modality)’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53) a. To get the station, you can take the bus 66.

역에 가려면 66번 버스를 타면 된다.

- b. To get the station, you have to take the bus 66. (Van der Auwera and Plungian 1998: 80)

역에 가려면 66번 버스를 타야 한다.

의무 양태를 참여자 외재 양태의 특별한 경우라고 보았는데, 상황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서 순수하게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이나 필연성을 참여자 외재 양태라고 하였으며, 사람이나 사회적 또는 도덕적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을 의무양태라고 하였다.

2.1.2 현대중국어의 양태체계와 양태표현

중국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汤廷池(2000:81-101)는 중국어 양태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문말 어기사(modal particle), 문두 혹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출현하는 양태부사(modal adverb)와 서술 기능을 하는 동사구나 형용사구 앞에 출현하는 양태동사(modal verb)와 양태형용사(modal adjective)이다. 鲁川(2003)은 중국어의 양태(modality)는 주로 양태조동사와 양태부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谢佳玲(2006)은 “서양 학자들은 모두 양태사가 문장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관점과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동의한다. 관점과 태도의 의미 범위는 매우 넓어 모두 가능성이나 필요성의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조동사라는 품사에 의해 기술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개념과 품사의 제한을 벗어나면 중국어가 사실 동사와 부사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양태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중국과 서방 문헌에서 비교적 적게 언급한 평가 양태 (evaluative modality)¹⁴⁾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양태체계를 분류하였다.

14) 일부 학자들은 평가 양태를 감정 양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진호(2011)에서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라고 하고,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 두려움, 경계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표4: 谢佳玲(2004)의 양태체계

양태		유형	정의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인식 양태	명제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증거를 나타냄.
		의무 양태	한 사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지령과 보증을 나타냄.
		평가 양태	이미 참으로 알려진 명제에 대한 예측과 소망을 나타냄.
		동적 양태	한 사건을 참으로 만드는 잠재력과 바람을 나타냄.

彭利贞(2005)에서는 중국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에는 양태조동사, 양태부사, 문말 조사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어기조사는 문말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며 중국어의 양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법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徐晶凝(2008)은 중국어는 화자가 문장 내용이나 청자에 대한 주관적 태도와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이 풍부하다고 하였다. 위의 학자들이 언급한 것 외에도 그녀는 문장 종류(sentence type), 명사, 접속사 등도 언급하였다. 또한 문장 종류(sentence type)와 서법(mood), 어기조사, 양태조동사와 양태부사는 체계적으로 양태 범주의 어떤 측면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양태체계는 어휘적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개념의 양태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양태사라는 개념은 글자 그대로 볼 수 있듯이 주로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적 성분을 가리킨다. 양태를 나타내는 동사, 예컨대 ‘认为’, ‘猜想’, ‘估计’, ‘相信’, ‘听说’ 등이 갖는 통사적 특징은 양태조동사나 양태부사와 다르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4) a. 听说他做得很好。 듣자하니 그는 아주 잘 했다고 한다.
 b. 我听说他做得很好。 내가 듣기에 그는 아주 잘 한다고 한다.
- (55) a. 可能他做得很好。 아마 그는 아주 잘 했을 것이다.
 b. *我可能他做得很好。
- (56) a. 也许他做得很好。 아마도 그는 아주 잘했을 것이다.
 b. *我也许他做得很好。

(54)과 같이 ‘听说’의 앞에는 다시 주어를 보충할 수 있는데, ‘可能’, ‘也许’는 그렇

게 할 수 없다. 전자는 행위자 주어를 논항으로 가질 수 있지만, 후자는 행위자를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听说’ 등은 일반 동사와 같이 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양태부사와 조동사는 문두에 올 때 뒤의 절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2.2 양태사 범위 설정

양태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한 가지 복잡한 문제는 일부 단어들의 품사 귀속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동사가 부사로 변하는 것이 문법화의 일반적 과정이다. 따라서 일부 양태동사와 양태부사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조동사를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한 연속체로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彭利贞2005 등). 양태동사와 양태부사 이외에 준부사라는 분류를 따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¹⁵⁾ 본고는 새로운 부류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아직 조동사의 특징이 남아 있는 단어들을 여전히 조동사로 보고 완전히 문법화된 것들을 부사로 분류하겠다.

조동사와 부사는 분포에 있어 많은 공통점¹⁶⁾을 보이지만,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도 찾을 수 있다.

표5: 조동사와 부사의 통사적 차이

	통사적 특징	조동사	부사
구 별 성 특 징	‘不’나 ‘没’로 부정할 수 있다.	+	-
	‘X 不 X’정반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	-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	-
	단독으로 말할 수 있다.	+	-
	‘是……的’구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	-

15) 徐晶凝(2008)에서 부사와 조동사 사이에 ‘준부사(准副词)’라는 부류도 설정하였다. 준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必须’, ‘不必’, ‘一定’, ‘肯定’, ‘必然’, ‘没准’, ‘难免’이 있다.

16) a. 용언성 성분만을 수반할 수 있다.
b. 중첩할 수 없다.
c. 뒤에 ‘了’, ‘着’, ‘过’를 수반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조동사와 모든 부사가 각각의 상기 기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양태조동사에 속한 각 단어마다 문법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태조동사라도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논의에서 살펴보겠다.

2.2.1 양태조동사의 범위와 의미 분류

현재 학계에서 양태조동사의 하위 범주에 대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Palmer(1986)의 삼분법을 많이 채택하여 인식 양태,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 세 가지로 나누지만,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 조동사의 범위와 구체적인 부류는 다르다. 최근의 연구에서 양태의 관점으로 조동사에 대한 분류를 진행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학자들의 양태조동사의 범위와 분류

	曹逢甫(2005)	彭利贞(2005)	최재영(2008) ¹⁷⁾
인식	[가능성 · 개연성] : 可能, 很可能, 会, 该, 应该, 应当	[필연] : 必然, 肯定, 一定, 准, 得, 要; [개연] : 会, 应该(应 当/应/该/当) [가능] : 可能, 能(能	[필연] : 得, 要 [개연] : 会, 应该, 应 当, 应, 该 [가능] : 能, 能够
의무	[필요] : 要, 必须, 必 得, 需要, 得 [도덕의무] : 应该, 应 当, 该 [허가] : 能, 能够, 可 以	[필요] : 必须, 得, 肯 定, 一定, 准 [의무] : 应该(应当/应 /该/当), 要, 会 [허가] : 能, 可以, 准, 许, 可以	[필요] : 得 [당연] : 要, 应该, 应 当, 应, 该 [허가] : 能, 可以, 可
동적	[능력 · 바람 · 소망; 상황의 가능성과 필요성] : 会, 能, 要, 愿意, 肯, 敢	[능력] : 可以, 会, 能 [의지] : 要, 肯, 想, 愿意 [용기] : 敢	[능력] : 可以, 可, 会, 能 [의지] : 要, 肯, 想, 敢

17) 최재영(2008)에서는 彭利贞(2005) 등이 조동사로 분류한 ‘必然(인식), 肯定(인식), 一定(인식), 必须(인식), 可能(인식), 准(인식)’ 등의 분류에 있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들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를 고려해볼 때 조동사로 보기 보다는 부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점을

이러한 정리를 통해 양태조동사 전체 체계를 엮을 수 있다. 하지만 학자마다 분류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고는 상기 학자들의 분류를 참고하되 대표적인 조동사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아래에서 논의할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먼저 이들 중 일부는 서면어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분포의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제외시켰다. 그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应’, ‘当’, ‘可’ 등이 있다. 彭利贞(2005)의 분류에서의 ‘必然’, ‘肯定’, ‘一定’, ‘准’ 등은 부사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부사로 귀속시켰다.

很x: *很必然去, *很肯定去, *很准去, *很一定去, 很可能去
 不x: *不必然去, *不肯定去, *不准去, 不一定去, 不可能去

‘一定’은 ‘不’로 부정할 수 있지만, 통사적으로 보면 ‘一定’은 동사에서 형용사로 변하여 점차 두 가지 의미로 분화했기에(陈勇2011)¹⁸⁾ 일단 부사로 처리하였다. ‘准’, ‘许’, ‘想’, ‘愿意’ 등은 주어 논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에서 제외했다. ‘必须’의 경우는 Li & Thompson(1981)과 彭利贞(2005) 등은 조동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吕叔湘(1981), 张谊生(2000), 崔재영(2008) 등은 부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必须’가 다른 조동사처럼 ‘X不X’ 정반의문문을 만들 수 없으며, ‘不’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必须’는 ‘背单词是必须的’와 같이 ‘是…的’ 구조에 올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 대응적인 ‘不必’라는 부정형식 존재한다. 또한 현대중국어에서 ‘必须’와 같이 필요를 나타내는 ‘要’, ‘得’ 등도 일반적으로 ‘不+要/得’의 부정형식을 취하지 않고 ‘不必’이나 ‘不用’으로 부정한다.

- (57) a. {必须/要/得}表扬这样的人。
 이런 사람을 칭찬해야 한다.
 b. {*不必/ *不要¹⁹⁾/*不得}表扬这样的人。

근거로 들어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准(의무), 许(의무), 愿意(동적)’의 경우는 실제로 동사의 의미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양태의미로만 사용되는 조동사로 보기에 어렵다고 보고 조동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반면에 ‘想’은 대단히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의미를 가진 심리동사와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18) 胡波(2015)에서 재인용.

c. {不用/不必}表扬这样的人。

이런 사람은 칭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必须’를 ‘要’, ‘得’와 같이 조동사에 귀속시켰다.

다음으로 이들 양태조동사들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자.

1) 동적 양태조동사

동적 양태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의 의지와 능력과 관련되어 의지와 능력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要’, ‘肯’, ‘敢’ 등이다. 彭利贞(2005)에서는 ‘敢’을 위해 따로 ‘용기류’를 설정하였지만, 용기도 사람의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지류로 분류하였다. 후자는 ‘可以’, ‘会’, ‘能’ 등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과 공기하는 주어로는 유생(animate) 주어가 온다. 하지만 무생(inanimate) 주어도 올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58) 这间教室能坐五百个人。

이 교실에는 500명이 앉을 수 있다.

曹逢甫(2005)는 여기서의 ‘能’이 중성적인 가능성과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학자는 이를 사물의 용도 혹은 조건으로 분석한다. 또한, 朱冠明(2003), 范晓蕾(2014)는 동적 양태에서 능력류 외에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류도 제시하고 있다.²⁰⁾ 예는 다음과 같다.

(59) a. 从苏州一小时就能到上海。

쑤저우에서 한 시간 안에 상하이에 도착할 수 있다.

b. 学生要遵守考场纪律。

(朱冠明2003)

학생은 시험장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9) ‘不要建立合理的规章制度。’라는 문장은 ‘할 필요 없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를 뜻한다. ‘要’는 필요를 나타낼 때 ‘不’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로 표시하였다.

20) 朱冠明(2003), 范晓蕾(2014)에서는 각각 ‘中性条件’, ‘条件可能’으로 명명하였다.

(60) a. 坐331路公交车, 你可以到香山。

331번 버스를 타면, 너는 향산에 갈 수 있다.

b. 门没有锁住, 他可以从屋里逃走了。 (范晓蕾2014)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그는 방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59a)와 (60)는 Palmer(2001)에서 언급한 상황적(circumstantial) 가능성이므로 동적 양태이지만, Van der Auwera and Plungian(1998)에 의하면 (59b)와 같이 사회적·도덕적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을 의무 양태라고 한다. 따라서 (59b)에서의 ‘要’는 의무 양태를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2) 의무 양태조동사

의무 양태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에 대한 강제성 정도에 따라 허가, 의무, 필요로 분류한다. 허가류, 의무류, 필요류로는 각각 ‘能’, ‘可以’, ‘应该(应当, 该)’, ‘要’, ‘必须’, ‘得’ 등이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要’이다. 曹逢甫(2005)에서는 ‘要’를 ‘必须’ 및 ‘得’와 함께 필요류로 보았고 다른 두 학자들은 ‘应该’와 함께 의무류로 보았다.

郭昭军·尹美子(2008)에서는 ‘应该’, ‘应当’, ‘该’를 필요A류, ‘要’, ‘得’를 필요B류로 분류하였다. 그의 분류기준은 통사적 기능에 의한 것이다. 즉 필요A류는 정도부사와 부정사 ‘不’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필요B류는 그렇지 못하다.

(61) a. 从十八岁到二十五岁这一段, 最应当注意抵抗肺癆。

(郭昭军·尹美子2008)

18세부터 25세까지의 시기에는 폐결핵에 대한 대항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b. *从十八岁到二十五岁这一段, 最要注意抵抗肺癆。

(62) a. 每个革命的同志, 都不应当跟着瞎说。

각 혁명의 동지마다 모두 누굴 따라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b. *过河不要有船。 (郭昭军·尹美子2008)

하지만 郭昭军·尹美子(2008)에서 ‘要’는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不’로 부정할 수 있는 반면, [약한 의무]를 나타낼 때에는 불가하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본고는

의무와 필요라는 범주는 강제성 정도 혹은 의무 강약에 의해 나눈 것이기 때문에 ‘要’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는다고 본다. 분류에 있어서는 일단 의무류로 귀납하였다.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앞의 范晓蕾(2014)에서 Van der Auwera and Plungian(1998)의 참여자 외재 양태를 ‘조건가능’(동적 양태)과 ‘조건허가’(의무 양태)로 나눴다. 예는 (63-64)와 같다.

- (63) 到香山, 你可以坐331路公交车。
향산까지 너는 331번 버스를 탈 수 있다.
- (64) 根据法律, 女孩儿到了二十岁可以结婚。 (范晓蕾2014)
법에 따르면 여자는 20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다.

(63-64)와 같이 참여자에게 외재적 객관적 조건에 의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동사를 의무 양태조동사로 귀납하였는데, 사회적 조건에 의한 강제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도 이 종류에 해당한다.²¹⁾

물론 의무 양태에서 화자 혹은 다른 사람이 청자에게 행위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예를 들어, ‘你不能吃我的。’라는 문장의 의무 부여 주체는 외재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고 화자이다.

3) 인식 양태조동사

인식 양태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명제에 대한 주제의 확정성 정도에 따라 필연성, 개연성, 가능성으로 나뉜다. 필연성, 개연성,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각각 ‘得’, ‘要’, ‘应该(应当, 该)’, ‘会’, ‘可能’, ‘能(能够)’ 등이 있다. 본고는 ‘可能’이 다른 조동사의 전형적인 분포 형식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조동사로 처리하였다. (很能说/ 很会说/ 这样做是应该的。) 그리고 그것은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사는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고는 ‘可能’을 조동사에 귀속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 다루는 양태조동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 范晓蕾(2014) 참조.

표7: 본고의 양태조동사의 범위와 분류

양태 유형	하위범주	조동사
동적	의지	敢, 肯, 要 ₁
	능력	会 ₁ , 能 ₁ , 可以 ₁
의무	필요	必须, 得 ₁
	의무	应该 ₁ (应当,该), 要 ₂
	허가	能 ₂ , 可以 ₂
인식	가능	可能, 能 ₃
	개연	应该 ₂ , 会 ₂
	필연	要 ₃ , 得 ₂

2.2.2 양태부사의 범위와 의미 분류

양태부사의 하위 범주에 대한 분류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다음과 같이 이분법, 삼분법, 사분법으로 양태부사를 나누는 방식이 모두 존재한다.

표8: 최근의 연구에서의 양태부사의 하위분류

	史金生(2003) 张云秋·林秀琴(2017)	谢佳玲(2006)	徐晶凝(2008)
의무	O	O	O
인식	O	O	O
평가	X	O	O
강화	X	X	O

史金生(2003) 등에서는 양태부사를 의무 양태와 인식 양태 두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谢佳玲(2006)에서는 인식 양태부사의 일부를 평가 양태(evaluative modality)라는 부류를 세워 귀속시켰다. Palmer(1986)에 따르면 인식 양태는 일반적으로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张云秋·林秀琴(2017)의 분류에서 인식 양태를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세 가지로 세분화했지만, 다수의 양태부사들을 이 세 가지 부류에 귀속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대중국어 양태부사에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보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도 많기 때

2. 양태와 현대중국어의 양태사

문에 본고는 평가 양태 또한 설정하였다. 그러나 徐晶凝(2008)에서 제시한 강화 양태는 徐晶凝(2008)에서 처음 시도한 분류이고 범언어적인 하위범주가 아니기에 본고는 별도로 강화 양태를 설정하지 않았다.

양태부사는 양태조동사보다 수량이 월등히 많고 의미도 다양하다. 史金生(2003)에서는 130개를 11부류로, 徐晶凝(2008)에서는 108개를 8부류로, 张云秋·林秀琴(2017)에서는 159개를 5부류로 나누었다. 대략적으로 그들의 분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9: 학자들의 양태부사의 분류

史金生(2003) 130개			徐晶凝(2008) 108개		张云秋·林秀琴(2017) 159개			
			문장 부사	VP부사	전형적	준-전형 적	비 전형 적	
강 화 양 태	×			绝对,万万, 根本/简直, 几乎,就,才, 究竟/到底	×			
의 무 양 태	의 지	명령	万万,千万, 必须,不妨	必须,不必, 务必,姑且, 不妨/何妨, 千万,切, 最好,还是, 索性	개 연 성	最好, 还是 ₃ , 不妨,		何苦, 何妨
		바람	只好,只得, 不得不,非得					
	감 정	의문	到底,究竟		필 연 성	必须, 只好, 只得, 非得, 务必	千万, 万万	何必
		감탄	太,多					
	평 가	관계	反而,反倒					
		특징	难怪;反正;明 明;竟然;幸 亏;毕竟;偏偏					
평 가 양 태	×		관계	当然,的确,反正,毕竟	×			
			논평	幸好,好在,恰好				
			증명	果然,难怪,其实,原来				
인 식 양 태	궁 정	증명	当然,其实					
		단정	的确,确实					

태		명 시	才,就						
	추 단	개 연	恐怕,也许 似乎,好像	추측	恐怕, 也许, 似乎		가 능 성	或许,大概 好像,似乎	难道, 莫非
				예측		未免,不免	개 연 성		恐怕, 未免, 难怪, 怪不得
		필 연	必定,一定	추단		一定,必定	필 연 성	肯定,必定 的确,确实	当然, 毕竟 居然, 反而

양태부사의 수량이 양태조동사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본고는 양태부사의 각 하위범주에서 대표적인 단어 몇 개를 선택하여 살펴보겠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양태부사의 의미는 조동사처럼 공통성보다 개별성이 더 부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분류에서 세분화된 하위 부류의 명칭도 다양하다. 따라서 부사의 의미를 개괄할 수 있는 단어를 그 하위 부류의 명칭으로 하겠다.

1) 의무 양태부사

의무 양태부사의 범위와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다. 여러 학자들의 분류를 참고하여, 본고는 ‘只得’, ‘只好’, ‘还是’²²⁾, ‘最好’²³⁾, ‘不妨’, ‘千万’, ‘万万’ 등 대표적인 단어를 연구범위로 삼았다. 史金生(2003)은 ‘只得’, ‘只好’, ‘不得不’, ‘非得’와 ‘万万’, ‘千万’, ‘切’, ‘切切’, ‘必须’, ‘不妨’을 바람과 명령으로 세분화하고 의무 양태의 하위 범주인 의지류에 귀속시켰다. 徐晶凝(2008)은 ‘必须’, ‘不必’, ‘务必’, ‘不妨/何妨’, ‘千万’, ‘最好’, ‘还是’ 등을 의무 양태로 귀속시켜 더 이상 세분화하지 않았다. 张云秋·林秀琴(2017)에서 ‘必须’, ‘务必’, ‘必得’, ‘非得’, ‘只得’, ‘只好’ 등을 필연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론적으로 의지류는 동적 양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의지류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부사와 조동사 ‘得’ 등의 합성어이기에 ‘得’, ‘必须’와 같이 필요류로 분류하였다.

22) ‘还是’는 ‘아직도, 여전히’의 의미도 나타내는데, 여기의 ‘还是’는 ‘...하는 편이 (더) 좋다’는 뜻을 나타내는 ‘还是’이다.

23) ‘最好’는 부사 ‘最’+형용사 ‘好’로 이루어져 ‘가장 좋다’의 의미를 나타내 술어로 쓰이는 용법도 있다. 여기의 ‘最好’는 부사로 쓰이며 ‘(제일) 좋기는’의 의미를 나타낸다.

- (65) 没办法, 我们{只得/只好}下车。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에서 내려야만 한다.

张云秋·林秀琴(2017)에서는 ‘千万’, ‘万万’을 ‘只得’, ‘只好’와 함께 필연성이라는 부류에 귀속시켰는데, ‘千万’, ‘万万’은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只得’, ‘只好’와 같은 전형적 양태부사와 달리 준-전형적인 양태부사에 귀속시켰다.²⁴⁾ ‘千万’, ‘万万’은 항상 ‘别’, ‘不可以’, ‘不能’, ‘不要’ 등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能₂’, ‘要₂’와 같이 허가의미로 분석하였다.

- (66) 哎, 你千万不能说。
이봐, 너 절대 말하면 안 돼. (徐晶凝2008)

‘还是’, ‘最好’, ‘不妨’ 같은 경우, 화자의 주어 혹은 청자에게의 일종의 권유로, 의무 조동사의 하위 부류인 의무라는 부류에 귀속시켰다.

2) 인식 양태부사

인식 양태에서 필연성을 나타내는 부사로는 ‘必定’, ‘一定’, ‘必然’ 등이 있다. 개연성을 나타내는 부사로는 ‘好像’, ‘似乎’, ‘恐怕’ 등이 있다. 张云秋·林秀琴(2017)에서는 ‘好像’, ‘似乎’, ‘也许’, ‘大概’, ‘或许’ 등을 가능성 부류에 분류하였고, ‘恐怕’를 개연성으로 분류하였다. 史金生(2003)에서는 ‘恐怕’, ‘也许’, ‘大概’, ‘大约’, ‘好像’, ‘似乎’ 등을 모두 필연성보다 정도가 낮은 ‘或然’이라는 부류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好像’, ‘似乎’, ‘恐怕’가 나타내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개연성에 귀속시키고, ‘也许’, ‘大概’, ‘或许’는 가능성에 귀속시켰다. Palmer(2001)는 인식 양태의 하위범주에 확실성(certainty)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대중국어의 ‘的确’, ‘确实’, ‘真的’ 등이 이 의미에 분류되었다. 해당 예문은 다음과 같다.

- (67) 张三{真的/的确/确实}考了第一。
张三이 진짜 1등 했어.

24) 张云秋·林秀琴(2017) 에서 말한 ‘준-전형적인 양태부사(较典型的情态副词)’는 ‘전형적인 양태부사’와 ‘비전형적인 양태부사’사이의 한 종류이다.

- (68) 他们俩性格不合, {必定/必然/一定}会分手。
그 둘은 성격이 맞지 않기에, 반드시 헤어질 것이다.
- (69) 下午都过去一半了, 而我的三位同事还没来上班。他们{也许/大概/大约}不会来了。
오후는 반이나 지났는데, 세 명의 동료는 아직도 출근하지 않았네. 그 사람들 아마 안 올 거야.
- (70) 你别等了, 他们{好像/似乎/恐怕}已经走了。
기다리지 마라, 그들은 이미 간 것 같다.

3) 평가 양태부사

일부 학자들은 양태부사를 주관평가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양태부사가 주로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평가 양태부사는 그 양이 가장 많고 다양한 평가 양태를 나타낸다. 史金生(2003)은 평가 양태를 의무 양태의 하위 부류로 귀속시켰는데, 의무 양태가 화자와 주어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张云秋·林秀琴(2017)에서 평가 양태를 대부분 비전형적 인식 양태에 귀속시키고 가능성, 개연성과 필연성으로 나눴다. 대부분 평가 양태부사는 이미 사실이 되는 명제에 대한 평가를 나는데 가능성과 필연성으로 요약하는 것보다 더욱 적합한 개념을 찾을 필요가 있다. 谢佳玲(2006)에서는 평가 양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명제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며 가능성과 필요성이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을 넘어서 예상(presupposition)과 소원(wish)의 두 개의 체계로 통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a. 예상 체계: 명제의 상황을 자신의 예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b. 소원 체계: 명제의 상황을 자신의 소원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 두 체계는 모두 일치(convergence)과 불일치(divergence)와 대립되는 용법이 있다. 예상에 부합하는 예는 ‘难怪’ ‘果然’와 같고,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 예는 ‘反而’, ‘竟然’와 같다. 소원에 부합하는 예는 ‘幸亏’, ‘难得’와 같고, 소원에 부합하지 않는 예는 ‘可惜’, ‘偏偏’과 같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체계적이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서술의 편리상 본고는 일단 양태부사의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하겠다. 기

존연구에 의하면 평가 양태부사는 놀라움(‘居然’, ‘竟然’ 등), 의외성(‘反而’, ‘反倒’, ‘偏偏’ 등), 관계(‘毕竟’, ‘反正’, ‘当然’ 등), 다행(‘幸亏’, ‘幸好’, ‘好在’ 등), 깨달음(‘难怪’, ‘怪不得’ 등), 공교로움(‘正好’, ‘恰好’, ‘恰巧’), 의문(‘到底’, ‘究竟’, ‘难道’, ‘莫非’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위 논의에 근거하여 본고에서 다루는 양태사의 분류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10: 본고의 양태사의 범위와 종류

분류		조동사		부사
양 태 유 형	동 적	의지	要 ₁ , 敢, 肯	
		능력	会 ₁ , 能 ₁ , 可以 ₁	
	의 무	필요	必须, 得 ₁	只好, 只得
		의무	应该 ₁ (应当, 该), 要 ₂	还是, 最好, 不妨
		허가	能 ₂ , 可以 ₂	千万, 万万
	인 식	가능	可能, 能 ₃	大概, 也许, 或许
		개연	应该 ₂ , 会 ₂	好像, 似乎, 恐怕
		필연	要 ₃ , 得 ₂	必定, 一定, 必然
		확실		的确, 确实, 真的 ²⁵⁾
	평 가	놀라움		竟然, 居然
		의외성		反而, 反倒, 偏偏
		공교로움		正好, 恰好, 恰巧
		관계		毕竟, 反正, 当然
		다행		幸亏, 幸好, 好在
		깨달음		难怪, 怪不得
		의문		到底, 究竟 难道, 莫非

25) 史金生(2003)에서는 이 단어들을 인식 양태부사로 보았지만 徐晶凝(2008), 张云秋·林秀琴(2017)에서는 평가 인식 양태부사로 보았다.

2.3 소결

양태 범주는 화자가 명제 혹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관점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서양학자들은 주로 조동사를 대상으로 삼고 양태를 의미에 따라 주로 동적, 의무, 인식 세 가지 유형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양태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태도라고 정의되지만 여러 학자들의 양태유형에 대한 분류를 통해 양태는 화자, 주어(일반적으로 행위자) 혹은 외부 상황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 화자의 태도나 관점은 주로 양태조동사와 양태부사를 통해 표현된다. 중국어에서 일부 양태사는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본고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 단어들의 과도기적 상태를 설정하지 않았고 조동사와 부사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들 간에는 분포나 다른 측면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 양태사도 동적, 의무, 인식 세 가지 양태 유형을 포함하지만 양태부사에서 이미 참인 명제에 대한 태도 혹은 평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 양태도 중국어에서 중요한 양태의 하위범주라 할 수 있다. 양태조동사와 양태부사가 비록 공통적으로 의무 양태 혹은 인식 양태를 포함하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일부 의무 양태부사는 양태조동사와 함께 출현하는 것에 근거하여 분류되었기에 의무양태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 의무양태의미를 강화 또는 약화하는 역할로도 쓰인다. 인식 양태조동사는 가능성 정도에 따라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으로 나누는데 양태부사에서 더 높은 확정성을 갖는 확실성이라는 부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제시하였다.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양태조동사는 주로 술어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일부 조동사는 주어의 앞에 올 수 있고, 일부는 주어와 술어 사이의 성분의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양태조동사와 함께 자주 출현하는 문장 성분의 분포 관계를 통해 양태조동사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겠다.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양태 유형의 조동사는 명사구와의 분포관계 역시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명사구는 주어, 주제화된 성분과 시간성분 등이다. 이 절에서 조동사와 이 몇 가지 성분 사이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양태조동사의 정보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양태조동사와 주어, 주제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可能)那本书 (可能)他 (可能)已经买了。

① T ② S ③ VP

위와 같이 양태사의 분포는 크게 3가지로 다루어 볼 수 있는데, 주어의 뒤인 ③의 위치뿐만 아니라, 주어의 앞인 ②, 주제의 앞인 ①의 위치에도 출현할 수 있다. 각 양태조동사는 의미 유형에 따라서 다른 분포양상을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이 정보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3.1 양태조동사와 주어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본절에서는 먼저 양태조동사와 주어의 분포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주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두에 위치하고 주로 행위자(agent), 경험자(experiencer) 논항을 담당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3.1.1 동적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동적 양태조동사는 주어의 능력이나 의지를 나타내므로 주어 앞에 이동하여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능력을 나타내는 ‘会’, ‘能’, ‘可以’와 의지를 나타내는 ‘要’, ‘敢’, ‘肯’은 모두 그러하다.

- | | |
|------------------------|-------------------------|
| (71) a. 他会说汉语。 |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
| b. * <u>会</u> 他说汉语。 | |
| (72) a. 我可以找到他。 | 나는 그를 찾을 수 있다. |
| b. * <u>可以</u> 我找到他。 | |
| (73) a. 他能说三门外语。 | 그는 세 가지 외국어를 할 수 있다. |
| b. * <u>能</u> 他说三门外语。 | |
| (74) a. 张三敢往下跳。 | 张三은 감히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다. |
| b. * <u>敢</u> 张三往下跳。 | |
| (75) a. 她不肯告诉我实话。 | 그녀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
| b. * <u>不肯</u> 她告诉我实话。 | |
| (76) a. 我要吃汉堡。 | 나는 햄버거 먹을래요. |
| b. * <u>要</u> 我吃汉堡。 | |

따라서 동적 양태조동사는 주어와 단일 분포 형식만을 이룬다. 주어는 본래 문두에 위치하며, 주제화된 성분, 시간 성분처럼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두에 있을 때 문장의 정보구조를 어순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강세 등의 초점을 표시하는 다른 방법으로 문장의 정보구조를 판단할 수 있다. 중국어 문장의 정보구조, 특히 초점의 위치는 초점 표지 ‘是’로 판단할 수 있다. 약하게 읽는 ‘是’는 현재 학계에서 공인된 초점 표지이다. 26) 玄珮(2004)에 따르면 초점표지는 초점민감 연산자에 대해 제약할 수 있으며 연산자가 의미지향하는 모호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장 歧义를 제거하고 연산자가 문장전체의 초점을 명확하게 가리키도록 한다. 따라서 본고는 ‘是’를 통해 양태사가 오는 문장의 초점 위치를 확인하여 문장이 가능한 초점구조를 살펴보겠다. 또한, 袁毓林(2003)은 “의문문에서 문장의 초점은 일반적인

26) 方梅(1995)는 약하게 읽는 ‘是’가 행위자·시간·장소·도구성분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있는 비행위자 성분은 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로 의문사(또는 선택적 의문 단어)에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의문사(또는 의문문 형식)가 의문문의 초점이 되는 명백한 표지가 된다. 또한, 진술문은 초점구조상 대응하는 의문문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문문을 진술문의 초점구조 테스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래에서는 초점 표지 ‘是’와 의문사를 통하여 문장의 정보구조를 살펴보았다.

1) 초점 표지 ‘是’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어 학계에서 일부 학자들은 조동사는 ‘是’와 동일한 분포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동사를 초점민감 연산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是’가 양태조동사와 공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是’를 통해 문장의 초점과 조동사의 위치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是’는 예문(77-78)와 같이 주어 앞, 주어 뒤, 조동사 앞에 각각 올 수 있다.

- | | |
|------------------|----------------------|
| (77) a. 是他们会说汉语。 | 그들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다. |
| b. 他们是会说汉语。 |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
| c. *他们会是说汉语。 | |
| (78) a. 是他敢去。 | 그가 감히 갈 수 있는 것이다. |
| b. 他是敢去。 | 그는 감히 갈 수 있다. |
| c. *他们敢是去。 | |

(77a)와 (78a)에서와 같이 ‘是’는 동적 양태조동사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적 양태조동사 앞의 성분이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문장의 주어가 강세를 지니기 때문에 ‘他们’ 혹은 ‘他’는 초점의 역할을 한다. ‘是’는 (77b), (78b)와 같이 주어 뒤에 올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문장의 강세 위치가 반드시 ‘是’ 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是’와 조동사 또는 일반 동사에 모두 강세가 올 수 있다.

- (79) a. 他们‘是会说汉语, 不是不会说。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b. 他们是会说‘汉语, 不是韩语。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지 한국어가 아니다.

c. 他们是会‘说汉语, 而不是会写。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지 쓸 줄 아는 것이 아니다.

d. 他们是会说汉语, 不是会弹钢琴。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79a)의 경우 ‘是’는 강하게 읽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강하게 읽는 ‘是’를 초점 표지로 보지 않고 강조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간주한다.²⁷⁾ 하지만 동사구 혹은 조동사구 앞에 강하게 읽는 ‘是’를 삽입하면 문장의 초점은 동사에만 있으므로 이러한 ‘是’도 초점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刘林(2016)은 이때의 ‘是’를 비전형적인 초점 표지라고 부르고, 술어초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이 관점에 동의한다. (79b)에서 ‘汉语’는 강세를 지니기 때문에 초점으로 판단된다. 이는 (79c)와 대조할 수 있다. (77c)처럼 ‘是’는 반드시 동적 양태조동사 뒤에 올 수 없으므로 음운적 수단을 통해 문장의 초점을 바꾼다. 초점 표지 ‘是’가 오게 되면 초점 영역은 ‘是’ 뒤의 전체 부분이다. Chao(1968: 88)에서는 술어 부분이 대조식(contrastive)일 때, 즉 기타 술어와 대조를 이룰 경우, 이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특강 강세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만약에 대조가 ‘是’의 뒤를 따른다면, ‘是’가 더 가볍게 읽힌다. (79b-d)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79a)의 술어는 긍정식(assertive)이며, 그것은 다른 동사 술어와 대조되지 않고 그것의 반의와 대조된다.²⁸⁾ 이 경우에는 강세가 없어도 되는데 강세가 있으면 대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대조인지에 따라서 강세 위치가 달라진다.

27) 方梅(1995) 등 참조.

28) Chao(1968:88-91)는 중국어의 술어 형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조식(contrastive), 긍정식(assertive)과 서술식(narrative)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a. 대조식: 我现在说话(不吃东西)。

여기서 동사 ‘说话’는 ‘吃东西’, ‘睡觉’, ‘玩儿’와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과 대조된다. Chao(1968)는 이 대조를 강조할 경우 특별한 특강 강세를 사용한다. 만약에 대조가 ‘是’의 뒤를 따른다면, ‘是’가 그것보다 가볍게 읽거나 심지어 완전히 경성이다.

b. 긍정식: 我现在“说话, 我现在‘是说话(不是不说话)。

동사 술어구는 긍정기능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동사 술어와 대조되지 않고 그것의 반의어와 대조된다.

c. 서술식: 我现在说话了(刚才没有)。

한 동사가 이야기의 진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할 때 이때 기동상(inchocative) 조사 ‘了’는 문말에 붙는다.

2) 의문사(혹은 의문형식)

의문사를 통해서도 정보구조를 검증할 수 있다. 능력류에서의 ‘會’와 의지류에서의 ‘敢’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80) a1: 谁会说汉语? | 누가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 |
| b1: 他们会说汉语。 | 그들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 |
| a2: 他们会不会说汉语? |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 |
| b2: 他们会说汉语。 |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
|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 무슨 일이야? |
| *b3: 他们会说汉语。29) |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
| (81) a1: 谁敢往下跳? | 누가 감히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가? |
| b1: 他敢往下跳。 | 그가 감히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다. |
| a2: 他敢不敢往下跳? | 그는 감히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가? |
| b2: 他敢往下跳。 | 그는 감히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다. |
|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 무슨 일이야? |
| *b3: 他敢往下跳。 | 그는 감히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다. |

예문(80b1)과 (81b1)은 모두 의문사의 대답으로 될 수 있으므로 위의 결론과 일치한다. 즉 ‘他’와 ‘他们’은 모두 문장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예문(80b2)와 (81b2)에서 ‘X不X’ 의문형식이 주어 뒤에 있기 때문에, 주어가 주체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주체 뒤에 표지를 넣을 수도 있고 휴지를 둘 수도 있다.

(80)와 (81)의 a3과 b3을 통해 동적 양태조동사가 출현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적 양태조동사가 출현하는 문장은 문장초점 구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태조동사의 의미 속성과 관련이 있다.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일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양태조동사는 ‘개별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³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사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29) 본고에서는 예문 자체는 문법적이지만 대화에 넣으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를 알파벳 앞에 둔다.

30) Carlson(1977)은 술어를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와 개별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로 나누었다. 전자는 시간 축에서 특정 위치를 차지하는 비항구성 술어를 가리킨다. 후자는 일정한 지속성을 갖는 술어를 가리킨다.

이러한 구조에서 나타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刘丹青(2018)은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는 주로 행위 동사가 담당하고, 개별층위 술어는 형용사, 명사로 쓰이는 술어, 表语³¹⁾가 담당할 수 있고 비현실 양태나 습관상을 나타내는 동사구가 담당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층위 술어는 주제 구조와 무표적인 조합을 이루는 반면 장면층위 술어는 주어와 무표적인 조합을 이룬다고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了₂’와 함께 나타나면 사건화될 수 있다. 예문 (76b2)와 같이 문장 뒤에 ‘了₂’가 부가되면, ‘무슨 일이야?’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이들이 문장초점 구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2) a: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1: 宝宝会走路.
 b2: 宝宝会走路了. 아기가 걸을 수 있게 되었어.

‘了₂’에 대해 刘林(2017)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了₂’ 및 기타 문말 어기는 전체 문장의 사태를 조작하여 문장 전체를 초점, 즉 문장초점으로 부각시킨다. 본고는 문장에 ‘了₂’를 부가한 후의 초점 유형은 여전히 대화 쌍방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了₂’가 문장의 초점구조에 자주 나타나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3.1.2 의무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의무 양태조동사에서 허가 의미를 갖는 ‘能’을 제외하면 필요류인 ‘必须’, ‘得’, 의무류인 ‘应该’, ‘要’와 허가류인 ‘可以’는 모두 주어 앞에 올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83) a. 你{必须/得}来解决这个事情. 당신은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b. {必须/得}你来解决这个事情. 반드시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
 (84) a. 大家{应该/要}好好学习.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31) ‘是’자를 쓰는 문장 중의 ‘是’ 이하의 성분을 가리킴. 넓게는 명사성 술어·형용사성 술어를 가리킴.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b. 大家的事情{应该/要}大家办。 모두의 일은 모두가 해야 한다.
- (85) a. 他{可以/能}去。 그는 가도 된다.
- b. {可以/*能}他去。 그가 가도 된다.

하지만 주어 앞에 위치할 때는 주어 뒤에 있을 때와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 (86) a. 我说我的后车牌丢的第二天司机就去补办了, 车管所的答复是必须你本人来办。
내가 내 차 뒷 번호판을 잃어버린 다음날 기사님이 고치러 가셨다고 했는데, 차량관리소에서 대답하기를 ‘반드시 당신 본인이 와서 처리해야한다’고 했다.
- b. *我说我的后车牌丢的第二天司机就去补办了, 车管所的答复是你本人必须来办。
- (87) a. 到国外搞孔子学院, 效果太不成正比了。其实人家愿意学中文, 应该他们出学费。
외국까지 와서 공자학원을 운영하는데, 효과는 매우 정비례하지 못하다. 사실 그 사람들이 중국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인데, 마땅히 그들이 학비를 내야 한다.
- b. *到国外搞孔子学院, 效果太不成正比了。其实人家愿意学中文, 他们应该出学费。
- (88) a. 撒了一地的水还得我来拖!
바닥에 었지른 물도 내가 닦아야 한다!
- b. *撒了一地的水我还得来拖!
- (89) a. 人生不是DVD, 不能选择REWIND, 但却可以选择STOP。 可以别人按, 也可以你自己按。
인생은 DVD가 아니어서 REWIND를 선택할 수 없지만 STOP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누를 수도 있고 네 스스로 누를 수도 있다.
- b. *人生不是DVD, 不能选择REWIND, 但却可以选择STOP。别人可以按, 自己也可以按。
- (90) a. “我现在问你一个问题, 你觉得生小孩这件事该谁来决定?”
‘제가 지금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은 아이를 낳는 일은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b1: “{应该/要}父母双方来决定。”

‘부모 쌍방이 결정해야 해요.’

b2: ““父母双方{应该/要}决定。”

위의 문장들은 모두 의무를 감당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데, 조동사를 주어 뒤에 이동시키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앞에서 주어를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추측한다. 말뭉치에서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앞에 있을 때 동사 앞에 항상 ‘来’가 많이 붙어 있다. 여기서의 ‘来’에는 주어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다. ‘来’에 대해서는 鲁晓琨(2006)에서 ‘来VP’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녀는 방향의 의미를 표시하지 않는 ‘来’는 초점 표지이며, 정보구조에서 문장초점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곧 그 앞의 성분을 대조초점 또는 자연초점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도 본고의 관점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1) 초점 표지 ‘是’

다음으로 초점 표지 ‘是’를 통해 문장의 초점으로 가능한 위치를 살펴보자. 먼저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뒤에 오는 경우를 보자.

- | | |
|-----------------------------|-----------------------------------|
| (91) a. 是你 <u>必须</u> 去。 | 당신이 가야 하는 것이다. |
| b. 你是 <u>必须</u> 去。 | 당신은 가야 한다. |
| c. *你 <u>必须</u> 是去。 | |
| (92) a. 是你 <u>得</u> 去上课。 | 당신이 수업에 가야 하는 것이다. |
| b. 你是 <u>得</u> 去上课。 | 당신은 수업에 가야 한다. |
| c. 你 <u>得</u> 是去上课, 不是去干别的。 | 당신은 다른 일을 하러 갈 것이 아니라 수업하러 가야 한다. |
| (93) a. 是工作人员 <u>要</u> 提前到。 | 직원이 미리 도착해야 한다. |
| b. 工作人员是 <u>要</u> 提前到。 | 직원들은 미리 도착해야 한다. |
| c. *工作人员 <u>要是</u> 提前到。 | |
| (94) a. 是我们 <u>应该</u> 好好学习。 |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
| b. 我们是 <u>应该</u> 好好学习。 |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
| c. *我们 <u>应该是</u> 好好学习。 | |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95) a. 是你可以去里面。 당신이 안으로 갈 수 있다.
 b. 你是可以去里面。 당신은 안으로 갈 수 있다.
 c. *你可以是去里面。
- (96) a. 是你们不能进。 당신들이 들어갈 수 없다.
 b. 你们是不能进。 당신들은 들어갈 수 없다.
 c. *你们不能是进。

위의 예문을 통해, 의무 양태조동사 대부분은 동적 양태조동사와 같이 ‘是’를 주어 앞에 부가할 수 있고 주어 뒤에도 부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무 양태조동사가 출현하는 문장은 논항초점 구조일 수도 있고 술어초점 구조일 수도 있다. 상기 예문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92c)이다. 문장 동사 뒤에 명사구 혹은 비슷한 성분이 있으면 ‘是’는 ‘得’ 뒤에 올 수도 있다. 이 점은 동적 양태사와 다르다. ‘得’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조동사는 ‘必须’가 있다. ‘可以’, ‘应该’, ‘要’ 등의 동적 양태사와 함께 ‘是’가 뒤따르면 비문이 된다. 예는 다음과 같다.

- (97) a. 你得是去上课, 不能去干别的。
 너는 수업하러 가야지, 다른 일을 하러 가서는 안 된다.
 b. *你是得去上课, 不能去干别的。
- (98) a. 春节必须得到一笔钱呀, 而且必须是掌握在自己手里。
 설날에는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다.
 b. *春节必须得到一笔钱呀, 而且是必须掌握在自己手里。

(97-98)에서의 ‘是’는 모두 약하게 읽어야 하고 ‘他是会说汉语, 不是会说韩语’에서의 ‘是’와 같이 ‘是’ 바로 뒤의 동사 혹은 조동사를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 뒤의 성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앞에 오는 경우를 보자.

- (99) a. 是必须你本人来。 반드시 당신 본인이 와야 한다.
 b. 必须是你本人来。 반드시 당신 본인이 와야 한다.
 c. *必须你本人是来。
- (100) a. 是得我收拾。 내가 치워야 한다.

- | | | |
|-------|-------------------------|--------------------|
| | b. <u>得</u> 是我收拾。 | 내가 치워야 한다. |
| | c. * <u>得</u> 我是收拾。 | |
| (101) | a. 是 <u>应该</u> 他们交学费。 | 그들이 학비를 내야 하는 것이다. |
| | b. <u>应该</u> 是他们交学费。 | 그들이 학비를 내야 하는 것이다. |
| | c. * <u>应该</u> 他们是交学费。 | |
| (102) | a. 是 <u>要</u> 父母双方来决定。 | 부모 쌍방이 결정해야 한다. |
| | b. * <u>要</u> 是父母双方来决定。 | |
| | c. * <u>要</u> 父母双方是来决定。 | |
| (103) | a. 是 <u>可以</u> 他去。 | 그가 갈 수 있다. |
| | b. * <u>可以</u> 是他去。 | |
| | c. * <u>可以</u> 他是去。 | |
| (104) | a. 是 <u>不能</u> 你一个人去。 | 너가 혼자 갈 수 없는 것이다. |
| | b. * <u>不能</u> 是你一个人去。 | |
| | c. * <u>不能</u> 你一个人是去。 | |

의무 양태사가 주어 앞에 있을 때 ‘是’와의 공기 양상은 조금 복잡하다. 먼저 예문(99)부터 (104)까지의 c를 보면, ‘是’는 일반 동사 앞에 올 수 없으므로 문장의 초점이 동사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99)부터 (101)까지의 b에서 모두 ‘是’가 주어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02)부터 (104)까지의 ‘是’는 모두 조동사 앞에만 올 수 있고 강하게 읽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기서의 ‘是’는 이른바 강조 역할을 하는 ‘是’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동사의 술어성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앞 절에서 강세를 지닌 ‘是’가 동적 양태조동사 앞에 오면 조동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의무 양태조동사는 동적 양태조동사와 조금 다르다. 대화 쌍방의 관심사는 의무를 행사하는 주체에 있다. 예를 들어, ‘是应该他们交学费’와 같은 문장에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문장의 초점이 여전히 주어 부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론을 더 검증하기 위해 아래에 의문형식으로 검증하겠다.

2) 의문사(혹은 의문형식)

다음으로 의문사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적 양태조

동사가 모두 ‘X不X’형식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일부 의무 양태조동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X不X’형식이 존재하는지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는 없다. ‘X不X’형식을 이루지 못하는 단어들은 ‘必须’, ‘得’, ‘要’이다. ‘必须’, ‘得’는 그 자체가 부정사 ‘不’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반의문형식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³²⁾ ‘要’는 ‘要不要’와 ‘不要’의 형식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必须’나 ‘得’와 다르다. 하지만 (107a)와 같이 ‘要’가 문장 가운데에 오는 경우 ‘要不要’로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要不要’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要’는 주어 뒤에 올 때 주어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주어 앞에 오면 주어의 의지로 해석할 수 없기에 필요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의무 양태조동사인 ‘必须’, ‘得’, ‘要’는 모두 필요의미를 가지며, 부정형식도 모두 ‘不用’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정반의문형식 역시 ‘用不用’으로 질문할 수 있다.

- (105) a. *我本人必不必须去?
 → 我本人用不用去? 저 본인은 가야 합니까?
 b. *必不必须我本人去。
 → 用不用我本人去? 저 본인이 가야 합니까?
- (106) a. *我得不得收拾?
 → 我用不用收拾? 저는 치워야 합니까?
 b. *得不得我不收拾。
 → 用不用我收拾? 제가 치워야 합니까?
- (107) a. *双方父母要₂不要₂去?
 → 双方父母用不用去? 양가 부모들은 가야 합니까?
 b. 要₂不要₂双方父母去? 양가 부모들이 가야 합니까?
 → 用不用双方父母去? 양가 부모들이 가야 합니까?

따라서 이들을 검증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뒤에 있는 경우를 보자.

32) Chao(1968)에서는 ‘得不得带钱’, ‘得不得等’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그는 부정형식 ‘不得’은 기본적으로 ‘得不得...?’형식에서 쓰이며 단독적으로 쓰이는 것은 ‘不用’만큼 많지 않다고 하였다. “你不得老跟着他”보다 더 자주 보이는 용법은 ‘你不用老跟着他.’이다. 李临定(2011)에서 “咱们得不得带点儿钱?”와 같은 예도 들었는데, 부정형식은 ‘不得’를 사용하지 않지만 반문문에서 ‘不得’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吃的、用的、穿的、哪样不得从国内运上去?’가 있다.

(108) a1: 要获得诺贝尔奖, 我必须做什么呢?

노벨상을 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b1: 要获得诺贝尔奖, 你必须努力学习。

노벨상을 받으려면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a2: 到底是谁必须对结果负责?

도대체 누가 반드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b2: 他自己。

그 자신이다.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b3: 你必须交学费。

(109) a1: 我们应不应该好好学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

b1: 我们应该好好学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

a2: 本次审议的热点是谁应该为会计工作和会计资料的真实完整性负责。请你
说说你的意见。

이번 심의의 핫이슈는 누가 회계업무와 회계자료의 진실된 완전성에 대
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b2: 法人、单位负责人和会计都应该承担。

법인, 부서장과 회계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b3: 你应该好好学习。

(110) a1: 不能吃辣不能吃酸不能吃冷……请问那我还能吃什么??

매운 것도 못 먹고, 신 것도 못 먹고, 찬 것도 못 먹고...그럼 나는 무엇을
더 먹을 수 있습니까?

b1: 你{可以/?能}喝热水。

당신은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a2: 请问, 请问哪些人群不能申报职称啊?

실례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전문가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b2: 离退休人员、公务员和参照公务员法管理的事业单位人员不能参加职称评
审。

퇴직자, 공무원과 공무원법 참조 관리사업 부서의 인원은 전문가 자격
심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무슨 일이야?

*b3: 工作人员能进去。

직원들은 들어갈 수 있다.

(108-110)를 통해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뒤에 있을 때 의문사와의 공기 양상은 동적 양태조동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무 양태조동사 앞의 성분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초점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앞에 있는 경우를 보자. 의무 양태조동사가 주어 앞에 올 경우, 의문사는 바로 그 뒤인 주어 위치에 올 수밖에 없다. 예는 다음과 같다.

(111) a1. 征收集体土地协议必须谁来签?

집단 토지를 징수하는 협의에는 반드시 누가 서명해야 합니까?

a2. *你能告诉我必须我做什么呢?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3: 必须车主本人来取。

반드시 차주 본인이 찾으러 와야 한다.

(112) a1. 明天晚上的文艺座谈会, 应该谁去参加? 请反映意见。

내일 저녁 문예 좌담회에 누가 가야 합니까?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a2. *明天晚上的文艺座谈会, 应该他去做什么?。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3: 应该他参加。

그가 참석해야 한다.

(113) a1. 大家想一想可以谁来演?

여러분은 누가 연기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a2. *大家想一想可以他做什么?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3: 可以作者本人来演。

작가 본인이 출연할 수 있다.

따라서 (111-113)와 같이 의무 양태조동사 뒤의 NP는 초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허가류의 ‘能’은 주어 앞에 올 수 없지만 ‘能不能’ 형식은 주어 앞에 올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114) a. *能我排第一个。
b. 能不能我排第一个?
제가 첫 번째 줄에 서면 안 될까요?
c. 能我排第一个吗?
제가 첫 번째 줄에 서도 되요?
d. 不能我排第一个吗?
제가 첫 번째 줄에 서면 안 되요?

물론 ‘能’ 이외에 다른 정반의문형식이 존재하는 조동사의 정반의문형식도 문두에 출현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115) 可不可以我们也到那里看看?
저희도 거기 한번 가볼까요?
(116) 能不能我们也去看看?
우리도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117) 要不要我亲自去看一下? (李临定2011)
내가 직접 한번 가볼래?

李临定(2011)은 이러한 이동 특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조동사가 반드시 동사구와 조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자유성이 있고, 그것은 오히려 전체 문장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의무 양태조동사에서 ‘能’만 문두에 올 수 없고, 오직 화자가 청자한테 허가를 구하는 ‘能不能’과 ‘能...吗?’ 형식만 주어 앞에 올 수 있으며, ‘能’의 앞에 초점이 출현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의무 양태사와 달리 뒤에 올 수 없는지는 이 두 가지 초점구조의 차이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예문 (118)과 (119)를 보자.

(118) a: 谁必须去?

누가 반드시 가야 합니까?

b: 你必须去, 他也必须去。

너가 반드시 가야 하고, 그도 반드시 가야 한다.

(119) a: 谁去?

누가 가?

b: 必须他去, 她不行。

반드시 그가 가야 해. 그녀는 안 돼.

일반적으로 의무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은 전제이다. (118)을 보면 의무 양태조동사 앞이 초점인 경우 의무 양태조동사도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 ‘谁必须去?’의 경우는 누군가 가야 한다는 것이 이미 정해졌고, 화자는 청자에게 누가 가야하는 사람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119)에서 ‘必须他去’는 누가 간다는 것에 대한 단언인데, 여기서의 ‘必须’는 화자가 자신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초점구조는 화자의 요구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118)은 화자의 입장에서 누가 가야 하냐는 것이고, (119)는 화자의 요구가 아니고 외부 조건, 예컨대 학교 규정이나 다른 사람의 요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동사 앞이 초점인 경우에는 화자의 요구가 아니고, 조동사 후의 초점인 경우에는 화자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能’은 ‘可以’와 같이 모두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왜 문두에 올 수 없는지도 알 수 있다. 이는 ‘能’과 ‘可以’의 차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재승·이명정(2012)은 허가범주에서 ‘能’과 ‘可以’ 간의 차이를 제시한 바 있다. ‘可以’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이고, ‘能₂’은 화자가 청자에게 객관적인 규정에 근거한 허가여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可以’는 화자가 특정한 행위자에 대한 허가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能’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문두에 올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能不能’과 ‘能……吗?’ 형식도 청자에게 허가를 구하는 의미이므로 주어 앞에 올 수 있다.

3.1.3 인식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인식 양태조동사들은 주어의 분포 관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단음절 인식 양태조동사인 ‘能’, ‘会’, ‘要’, ‘得’는 모두 주어 뒤에 올 수밖에 없고, 이음절 인식

양태조동사인 ‘可能’, ‘应该’는 주어 앞뒤에 모두 올 수 있다. 曹逢甫(2005)는 이에 대해 ‘会’의 인식 양태의미가 동적 양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유생성 주어에 대한 요구를 보류하고, 강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생성 명사를 주어로 인상시킨 것으로 분석하였다. 胡波(2015)는 ‘能’, ‘会’, ‘要’가 문두에 올 수 없는 이유는 이 단어들이 운율적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 단어들이 문두에 올 수 없는 원인이 정보구조 제약을 받기 때문인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겠다.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자.

- | | |
|-------------------------------|-----------------------------|
| (120) a. 婚礼应该结束了。 | 결혼식은 끝났을 것입니다. |
| b. <u>应该</u> 他们还会再来。 | 아마도 그들이 다시 올 것이다. |
| (121) a. 他们可能不想去。 | 그들은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
| b. <u>可能</u> 他们不想去。 | 아마 그들은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
| (122) a. 她又得冲我吼。 | 그녀는 또 나에게 소리칠 거야. |
| b. *又 <u>得</u> 她冲我吼 | |
| (123) a. 我看哪, 大清国 <u>要</u> 完。 | 내가 보기에선 아무래도 대청제국이 망할 것 같다. |
| b. *我看哪, <u>要</u> 大清国完。 | |
| (124) a. 老师 <u>会</u> 来。 | 선생님께서 오실 것이다. |
| b. * <u>会</u> 老师来。 | |
| (125) a. 我看他 <u>不能</u> 来了。 | 내가 보기에 그는 올 수 없을 것 같다. |
| b. * <u>不能</u> 他来了。 | |

의무 양태조동사와 달리, 인식 양태조동사는 문두에 있을 때와 주어의 뒤에 있을 때에 의미가 비슷하다. 의무 양태조동사 뒤의 주어는 강세를 지니는데, 인식 양태조동사 뒤의 주어는 강하게 읽을 수도 있다. 인식 양태조동사가 오는 문장의 정보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초점 표지 ‘是’

먼저, 인식 양태조동사가 주어 뒤에 있을 때 ‘是’의 위치를 보자.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126) a. *是他们{应该/可能}去那边了。
 b. *他们是{应该/可能}去那边了。
 c. 他们{应该/可能}是去那边了。 그들은 아마 저쪽으로 갔을 것이다.
- (127) a. 是他们可能去。 그들이 갈 수도 있다.
 b. 他们是可能去。 그들은 갈 수도 있다.
 c. *他们可能是去。
- (128) a. 是我们会去。 우리가 갈 것이다.
 b. 我们是会去。 우리는 갈 것이다.
 c. *我们会是去。
- (129) a. *是你们这里要出问题的。
 b. 你们这里是要出问题的。 너희 쪽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c. *你们这里要是出问题的。
- (130) a. *是妈妈又{得/要}说你。
 b. 妈妈是又{得/要}说你。 엄마는 또 너를 혼낼 것이다.
 c. *妈妈又{得/要}是说你。

인식 양태조동사 ‘应该’가 출현하는 문장 (126)을 보면 ‘是’는 조동사 ‘应该’ 뒤에 만 위치할 수 있다. 즉 ‘应该’가 오는 문장의 주어도 초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应该’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可能’도 그러하다. 하지만 예(127)은 (126)과 달리 ‘是’가 ‘可能’ 뒤에 올 수 없으며 주어 앞과 ‘可能’ 앞에 위치할 수 있다. 이 때의 ‘可能’은 화자의 추측이 아닌 객관적 가능성을 나타낼 때에는 동적 양태조동사나 의무 양태조동사와 분포가 같다. 이에 대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객관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会’도 그러하다. ‘要’와 ‘得’가 필연성을 나타낼 때, ‘是’가 그들 앞에만 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술어초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식 양태조동사가 주어 앞에 출현하는 경우 ‘是’의 위치를 살펴보려 한다.

- (131) a. *是应该他去过。
 b. 应该是他去过。 그가 가 봤을 것이다.
 c. 应该他是去过。 그는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 (132) a. *是可能他去过。
 b. 可能是他去过。 아마 그가 가 봤을 것이다.

c. 可能他是去过。

아마도 그는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문(131-132)를 통해, 이 단어들이 문두에 오는 경우 초점 표지 ‘是’가 주어 앞에 올 수도 있고 술어 앞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점 영역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 앞에 ‘是’가 주어 앞에 오면 논항초점 구조이고 ‘是’가 술어 앞에 오면 술어초점 구조이라는 것이다.

2) 의문사(혹은 의문형식)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인식 양태조동사는 대부분 의문사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133) a1: *谁应该到了?

a2: 他应该到了。

그는 도착했을 것이다.

b1: *他应该到哪儿了?

b2: 他应该到北京了。

그는 북경에 도착했을 것이다.

c1: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c2: 张三应该到了。

张三은 도착했을 것이다.

(134) a1: *谁这样要吃亏?

a2: 你这样要吃亏的。

너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b1: *你这样要怎么样?

b2: 你这样要吃亏的。

너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c1: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c2: 你这样要吃亏的。

너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135) a1: *谁又得说你?

a2: 妈妈又得说你。

엄마가 또 너를 혼낼 것이다.

b1: *妈妈又得说谁?

b2: 妈妈又得说你。

엄마가 또 너를 혼낼 것이다..

c1: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c2: 妈妈又得说你。

엄마 또 너를 혼낼 것이다..

(136) a1: *谁能来?

a2: 他能来。

그는 올 것이다.

b1: 他能去哪儿?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b2: 他能去那儿。 그는 그곳에 갈 것이다.
 c1: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c2: 他能来。 그는 올 것이다.

그 원인을 말하자면, 논항초점 구조는 일반적으로 [X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 ‘能’을 예로 들자면, ‘谁能去’라고 물었을 때, 전제는 [有人能去]이다. [有人能去]를 전제로 설정하면, 이로써 ‘能’이 자연스럽게 능력 혹은 허가의 의미로 인식된다. ‘可能’이나 ‘会’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식 양태조동사는 전제에서 나타날 수 없다. 이들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예측할 때 쓰이기 때문에 술어초점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주제-평언 구조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可能’과 ‘会’가 의문사와 함께 나타나는 예문을 보자.

- (137) a. “你想想看, 谁可能散发这些传单?” 利斯特尼茨基问他。
 ‘누가 이 전단들을 뿌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리스테니츠키가 그에게 물었다.
 “没有这样的人, 老爷。” 司务长很有信心地回答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나리.’ 사무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b. 阿克苏, 喀什, 库尔勒谁可能成为南疆的交通枢纽?
 악수, 카슈, 쿠엘러 중 무엇이 남쪽 지역의 교통 허브가 될 수 있을까?
 (138) a. 我想知道, 谁会成为我第600位粉丝呢?
 누가 600번째 팬이 될지 궁금합니다.
 b. 海选赛今天就要结束了哦! 谁会赢得比赛冠军呢? 3999元现金大奖哇!
 오디션이 오늘 끝나가네요! 누가 시합에서 우승하게 될까요? 3999원 현금대상이네요!

‘可能’과 ‘会’는 모두 전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문(138) ‘会’의 경우 ‘谁会成为我第600位粉丝呢’의 전제는 [x会成为我第600位粉丝]이다. ‘会’는 미래의미로 미래 시간에 발생할 상황을 전제로 한다. ‘可能’의 경우, (139-140)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상황에서는 의문사 뒤에 올 수 없다. 앞의 예문에서 ‘可能’은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며 의문사 뒤에 올 수 있지만,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应该’는 의문사와 함께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와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可能’이 단지 미래의 상황을 묘

사하는 경우에는 의문사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139) a: 谁{*应该₂/可能/会₂}去?
 b: 他{应该₂/可能/会₂}去。
 (140) a: 谁{*应该₂/*可能}到了?
 b: 他{应该₂/可能}到了。

예문(140b)에서의 ‘他可能到了’, ‘他应该到了’는 ‘그는 아마 도착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可能’과 ‘应该’는 ‘谁’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可能’과 ‘应该’는 모두 어떤 실체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기엔 객관적 명제의 일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 명제의미에 속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명제의 일부인 전제에서도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139b)에서 ‘他可能去’는 ‘그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추측이 아닌 미래 시간의 ‘가능성’을 나타내 ‘谁’와 함께 올 수 있다. 이는 ‘是’와 공기하는 양상은 유사하다. 따라서 ‘可能’을 객원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可能₁’과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可能₂’로 구분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부정형식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应该₂’가 오는 문장을 부정하려면 부정사 ‘不’를 일반 동사 앞에 위치시켜야만 한다. 예는 (141)와 같다.

- | | | |
|-------|----------------|-------------------|
| (141) | a. 他们(*不)应该去。 | 그들은 아마 갈 것이다. |
| | b. 他们(*不)应该不去。 | 그들은 아마 가지 않을 것이다. |
| (142) | a. 他们可能去。 | 그들은 아마 갈 것이다. |
| | b. 他们可能不去。 | 그들은 아마 가지 않을 것이다. |

‘可能’도 이러한 양상을 띤다. 이는 화자의 추측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화자가 추측하는 내용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화자의 추측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인식 양태조동사인 ‘要’, ‘得’ 등도 부정할 수 없지만, ‘应该₂’와는 다르다. 郭昭军·尹美子(2008)에 의하면 인식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要₃’의 부정형식은 ‘不会/不可能’이다. 刘月华(2001)에서도 ‘得’의 부정형식에 대해 ‘不会/不可能’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본래 ‘得’는 부정형식이 없지만, ‘要₃’은 부정형식 ‘不要’가 존재한다. 하지만 ‘不要’는 의무 양태의미만을 나타내므로 ‘要₃’를 부정하기 위해 다른 인식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다. ‘可能’, ‘能’과 ‘会’의

부정형식은 각각 ‘不可能’, ‘不能’과 ‘不会’이다. 따라서 대부분 인식 양태조동사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应该₂’는 이미 완전히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사로서 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문장 가운데에 나타나는 ‘可能’은 아직 완전히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2b)를 예로 들자면, 일반적으로 문장의 초점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있을 때 ‘可能’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건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문두에 있는 ‘可能’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두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부정될 수 없다.

- (143) a. 他们两个人很可能会争论起来。
그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b. 很可能他们两个人会争论起来。
아마도 그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일 것이다.
- (144) a. 尹海勒很可能已经达到了这个水平。
尹海勒는 이미 이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b. 很可能尹海勒已经达到了这个水平。
아마도 尹海勒는 이미 이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다.
- (145) a. 他们两个人不可能会争论起来。
그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일 리가 없다.
b.* 不可能他们两个人会争论起来。
- (146) a. 尹海勒不可能已经达到了这个水平。
尹海勒는 이미 이 수준에 도달했을 리가 없다.
b.* 不可能尹海勒已经达到了这个水平。 (戴耀晶2003)

하지만 말뭉치에서 ‘不可能’이 문두에 출현하는 예문을 찾을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47) a. 不可能每班都有一名老师, 更别说是每堂课不同老师。
반마다 교사가 한 명씩 있을 수도 없는데 수업마다 다른 선생님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b. 不可能任何人都喜欢你, 也不可能任何人都讨厌你; 不可能任何人都赞叹你,

也不可能任何人都诽谤你。

모두가 다 널 좋아할 수 없고, 또한 모두가 다 널 싫어할 수 없어. 모두가 다 너를 칭찬할 수 없고, 또한 모두가 다 너를 비방할 수 없어.

‘不可能’이 문두에 오는 경우 문장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총칭 주어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149)와 같이 ‘可能’의 정반의문형식은 문두에 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会’와 ‘不会’는 문두에 쓰일 수 없지만 그 정반의문형식과 ‘不会...吗?’형식은 문두에 올 수 있다. ‘不应该’는 인식 양태가 아닌 의무 양태의 부정이므로 정반의문형식 ‘应不应该’도 의무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기 위해 문두 출현이 불가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48) a. 老头子会不会是凶手?
늙은이가 살인자일까?
b. 马上去追剧了, 会不会老头子是凶手呢?
곧 연속극 켤 건데, 늙은이가 살인자일까?
c. 不会老头子是凶手吧?
늙은이가 살인자는 아니겠지?
- (149) a. 老头子可不可能是凶手?
늙은이가 살인자일 수 있을까?
b. 可不可能老头子是凶手?
늙은이가 살인자일 리가 있나?
c. ?不可能老头子是凶手吧?
- (150) a. *老头子应不应该是凶手?
b. *应不应该老头子是凶手?
c. *不应该老头子是凶手吧?

이에 대해서 胡建华(2003)는 宁波话의 주제와 부-주제의 위치를 논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 (151) a. *小明会作业做好。
b. 小明会不会作业做好该勒? 小明이 숙제를 다 할 수 있을까?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그는 의문문에서 ‘会不会’로 파생된 ‘会不会’는 의문의 특징을 갖는데, 의문 특징을 가진 단어가 연산자(operator)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会不会’가 첫 번째 주제의 중심어 자리로 옮겨 넓은 영역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전치된 목적어도 두 번째 주제의 위치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151b)가 성립된 이유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완전하게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사는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다.

- (152) a: 车怎么了? 차가 왜 그러니?
? b: 可能车坏了。(可能坏了。) 차가 고장 났나 봐.
*b1: {可不可能/会不会}车坏了? 혹시 차가 고장난 건 아니니?
- (153) a: 谁是凶手? 누가 살인범이야?
b: 可能老头子是凶手。 아마 영감이 살인범이야.
b1: {可不可能/会不会}老头子是凶手? 혹시 영감이 살인범이 아닐까?
- (154) a: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 {可能/应该}火山爆发了! 아마도 화산이 폭발했을 것이다.
会不会火山爆发了? 혹시 화산이 폭발한 건 아니니?
*b1: 火山{可能/应该}爆发了! 화산은 폭발했을 것이다.
火山会不会爆发了? 화산은 폭발했을까?

(152-154)에서 보이듯, 인식 양태조동사는 문장초점 구조와 논항초점 구조에서 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152)의 대화에서 주제에 대한 진술을 할 때에 인식 양태조동사가 문두에 있으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위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표11: 양태조동사가 위치한 문장에서 정보구조의 차이

양태 유형		조동사	NP+조동사+VP/AP			조동사+NP+VP/AP		
			논항 초점	술어 초점	문장초 점	논항 초점	술어 초점	문장 초점
동	능력	會 ₁	O	O	△	*	*	*

적	의지	能 ₁	O	O	△	*	*	*
		可以 ₁	O	O	△	*	*	*
		敢	O	O	△	*	*	*
		肯	O	O	△	*	*	*
		要 ₁	O	O	△	*	*	*
의무	필요	必须	O	O	×	O	×	×
		得 ₁	O	O	×	O	×	×
	의무	要 ₂	O	O	×	O	×	×
		应该 ₁	O	O	×	O	×	×
	허가	能 ₂	O	O	×	*	*	*
		可以 ₂	O	O	×	O	×	×
인식	필연	要 ₃	△	O	△	*	*	*
		得 ₂	×	O	×	*	*	*
	개연	会 ₂	O	O	×	*	*	*
		应该 ₂	×	O	×	O	O	O
	가능	能 ₃	×	O	×	*	*	*
		可能 ₁	O	O	×	*	*	*
		可能 ₂	×	O	×	O	O	O

*는 이러한 분포에서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는 이러한 분포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해당 정보구조를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는 이러한 분포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1) 동적 양태조동사는 아직 동사에 가깝기에 여전히 초점 영역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사는 주어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이동할 수 없다. 때문에 강세를 통해 문장 정보구조를 바꾼다. 즉, 강세가 주어에 있을 때, 주어가 초점이고, 강세가 술어에 있을 때 술어초점 구조가 된다. 하지만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통제할 수 있는 성분이면 주어의 의지에 따라 어순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이나 장소 등이 그것이다.

(155) a. 他Foc[敢去].

전제: [他_x]

단언: [x=敢去]

초점: 敢去

초점 영역: VP

b. Foc[他]敢去

전제: [x敢去]

단언: [x=他]

초점: 他

초점 영역: NP

c. *敢Foc[他]去。

2) 의무 양태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초점 영역 내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동적 양태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초점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재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규칙, 도덕)의 허가 또는 필요를 나타낸다. 그러나 의무 양태조동사는 화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주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조동사가 문두로 이동하여 논항초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화자의 허가를 나타내지 않는 조동사는 문두에 올 수 없다.

(156) a. 被撞的人Foc[应该得到赔偿]。

전제: [被撞的人x]

단언: [x=应该得到赔偿]

초점: 应该得到赔偿

초점 영역: VP

b. Foc[被撞的人]应该得到赔偿。

전제: [x应该得到赔偿]

단언: [x=被撞的人]

초점: 被撞的人

초점 영역: NP

(157) a. 应该Foc[他]去。

전제: [x去]

단언: [x=他]

초점: 他

초점 영역: NP

b. *应该他Foc[去]。

(158) *能Foc[他]去。

3)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사건의 가능성 혹은 필연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여전히 객관적 명제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화자가 청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정보구조를 역시 강세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159) a. 他Foc[会去]。

전제: [他x]

단언: [x=会去]

초점: 会去

초점 영역: VP

b. Foc[他]会去。

전제: [x会去]

단언: [x=他]

초점: 他

초점 영역: NP

c. *会Foc[他]去。

하지만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160) a. 车可能Foc[坏了]。

전제: [车x]

단언: [x=坏了]

초점: 坏了

초점 영역: NP

b. 可能车坏了。

① 전제: [x坏了]

단언: [x=车]

초점: 车

초점 영역: NP

② 전제: [车x]

단언: [x=坏了]

초점: 坏了

초점 영역: VP

③ 전제: [—]

단언: [x=车坏了]

초점: 车坏了

초점 영역: S

3.2 양태조동사와 주제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현대중국어는 SVO 어순의 언어로서, 행위의 대상은 동사의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61) a. 他已经买了那本书了。 그는 이미 그 책을 샀다.
b. 那本书他已经买了。 그는 이미 그 책을 샀다.

(161a)에서 목적어인 ‘那本书’가 원래 위치에 있고 문장에 특수 강세를 부가하지 않으면 문장의 목적어는 문장의 자연초점이다. 만약 문장의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면 문장의 주제가 된다.

조동사에 따라서 주제와의 분포관계가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양태조동사와 주제 T와의 분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可能) 那本书 (可能) 他 (可能) 已经买了。

① T ② S ③ VP

3.2.1 동적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동적 양태조동사의 예문을 보자.

- | | | |
|-------|---------------|----------------------|
| (162) | a. 英语他会说。 | 영어는 그가 말할 수 있다. |
| | b. *英语会他说。 | |
| | c. *会英语他说。 | |
| (163) | a. 那本书他肯卖。 | 그 책은 그가 기꺼이 팔 것이다. |
| | b. *那本书肯他卖。 | |
| | c. *肯那本书他卖。 | |
| (164) | a. 那本书我可以找到。 | 그 책은 내가 찾을 수 있다. |
| | b. *那本书可以我找到。 | |
| | c. *可以那本书我找到。 | |
| (165) | a. 韩语他能说两句。 | 한국말은 그가 몇 마디 할 수 있다. |
| | b. *韩语能他说两句。 | |
| | c. *能韩语他说两句。 | |
| (166) | a. 老鼠张三敢吃。 | 쥐는张三이 감히 먹을 수 있다. |
| | b. *老鼠敢张三吃。 | |
| | c. *敢老鼠张三吃。 | |
| (167) | a. 那本书她不肯卖。 | 그 책은 그녀가 팔려고 하지 않는다. |
| | b. *那本书不肯她卖。 | |
| | c. *不肯那本书她卖。 | |
| (168) | a. 这个汉堡我要吃。 | 이 햄버거는 내가 먹을래. |

b. *这个汉堡汉堡要我吃。

c. *要这个汉堡我吃。

예문을 통해 동적 양태조동사인 ‘会’, ‘肯’ 등은 주어 뒤에만 올 수 있으므로, 당연히 주제의 앞에도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적 양태조동사의 부정형식과 정반의문형식도 마찬가지이다. 동적 양태조동사는 주어의 뒤에만 출현 가능하므로 주어의 앞뿐만 아니라 주제의 앞에도 출현하지 못한다. 동적 양태조동사는 그 분포가 고정적이어서 정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표지나 운율적 방식으로 정보포장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3.2.2 의무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의무 양태조동사는 주어 앞에 올 수 있지만 주제 앞에는 올 수 없다. 예는 다음과 같다.

(169) a. 驾照必须你本人去拿。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당신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

b. *必须驾照你本人去拿。

(170) a. 地还得我来拖。

바닥은 또 내가 닦아야 한다.

b. *还得地我来拖。

(171) a. 明天晚上的文艺座谈会, 应该你去参加。

내일 저녁 문예 좌담회에 네가 참가해야 한다.

b. *应该晚上的文艺座谈会你去参加。

(172) a. 这件事可以你亲自说。

이 일은 네가 직접 말해도 된다.

b. *可以这件事你亲自说。

(173) a. 生小孩这件事要父母双方来决定。

아이를 낳는 이 일은 부모 쌍방이 결정해야 한다.

b. *生小孩这件事父母双方要来决定。

(174) a. 好吃的不能你一个人吃。

맛있는 건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 b. *好吃的你一个人不能吃。

이를 통해 의무 양태조동사는 주어의 바로 앞에 놓일 수는 있지만, 주제의 앞에는 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주어의 바로 앞에 오는 경우는 주어를 초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제는 초점과 정보구조에서 상보적인 분포를 갖는다. 즉 어떤 성분이 주제라는 것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 양태조동사가 문두에 쓰이는 것은 바로 뒤에 오는 성분을 초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초점이 아닌 주제의 앞에 놓이는 것은 이러한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3.2.3 인식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본 소절에서는 인식 양태조동사와 주제의 분포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인식 양태조동사는 ‘可能’과 ‘应该’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제의 앞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적 양태조동사와 마찬가지로 주어 뒤에만 오기 때문이다.

- (175) a. 那本书可能他已经买了。
아마도 그 책은 그가 이미 샀을 것이다.
b. 可能那本书他已经买了。
아마도 그 책은 그가 이미 샀을 것이다.
- (176) a. 那部电影应该他已经看过了。
그 영화는 그가 이미 보았을 것이다.
b. 应该那部电影他已经看过了。
아마 그 영화는 그가 이미 보았을 것이다.
- (177) a. *那本书会他买。
b. *会那本书他买。
- (178) a. *这本书能他卖吗?
b. *能这本书他卖吗?
- (179) a. *她有了钱, 那件衣服肯定{得₂/要₃}她买。
b. *她要是有钱, 肯定{得₂/要₃}那件衣服她买。

앞서 ‘会’의 정반의문형식과 ‘不会……吗’ 형식도 주어가 초점이 아닌 주제가 될

때 주어 앞에 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 정반의문형식 및 부정형식과 주제와의 분포관계도 함께 살펴보겠다. 먼저, ‘會’를 제외한 기타 주제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인식 양태조동사의 정반의문형식과 부정형식은 여전히 주제 앞에 나타날 수 없다. ‘应该’, ‘可能’의 경우 ‘會’의 정반의문형식과 부정형식이 주제 앞에 오는 양상과 같다.

- (180) a. *那部电影应不应该他看过了?
b. *应不应该那部电影他看过了?
- (181) a. *那部电影不应该他看过了。
b. *不应该那部电影他看过了。
- (182) a. 那本书可不可能他已经买了? 그 책은 그가 이미 사지 않았을까?
b. 可不可能那本书他已经买了? 그 책을 그가 이미 사지 않았을까?
- (183) a. *那本书不可能他已经买了。
b. *不可能那本书他已经买了。
- (184) a. 这部电影会不会他已经看过了?
이 영화는 그가 이미 보지 않았을까?
b. 会不会这部电影他已经看过了?
이 영화를 그가 이미 보지 않았을까?
- (185) a. *那本书不会他已经看过了。
b. *不会那本书他已经买了。
a1. 那本书不会他已经看过了吧? 그 책은 그가 이미 읽은 것은 아니겠지?
b1. 不会那本书他已经买了吧? 설마 그 책을 그가 이미 산 것은 아니겠지?

이들은 주어가 주제로 쓰일 때 주어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제 앞에도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꼭 그 뒤의 성분을 초점으로 삼기 위해서 주어 혹은 주제 앞에 오는 것이 아니다. 즉 초점을 부각시키는 역할 외에 주제 연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3.3 양태조동사와 시간사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시간사도 주어 앞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양태 조동사와 다양한 분포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조동사와 주어 앞에 오는 시간사 간의 분포 양상은 주제와의 분포

양상과 유사하다.

- (186) a. 可能明天他要买那本书。
아마도 내일 그는 그 책을 살 것이다.
b. 明天可能他要买那本书。
일 아마도 그는 그 책을 살 것이다.
- (187) a. *应该_i 明天他去。
b. 明天应该_i 他去。
내일은 그가 가야 한다.
- (188) a. *敢明天他去。
b. *明天敢他去。

따라서 이 절에서 주어 앞에 있는 경우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주어 뒤에 있는 경우만을 살펴보겠다. 양태 조동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분포를 가진다.

他 (可能)明天(可能)会赢那场球。

S ① Time ② VP

하지만 조동사의 양태의미 유형에 따라 시간사와의 분포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다른 양태 유형과 시간사의 조합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태 조동사가 서로 다른 분포에서 대응하는 의문형식과 부정형식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양태 의미유형을 가진 조동사의 의문형식과 부정형식의 분포 양상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3.3.1 동적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본고의 통계에 따르면, 동적 양태조동사에서 ‘능력’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같은 동적 양태인 의지류와는 다르다. 능력은 일반적으로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시간사와 함께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임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189) a. 肚子好了的话, 我明天{能/可以}吃三碗。

배가 다 나으면 나는 내일 세 그릇을 먹을 수 있을 거야.

b. *我{能/可以}明天吃三碗。

(190) a. 我去年会跳那个舞, 现在不会跳了。

나는 작년에 그 춤을 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출 줄 몰라.

b. *我会去年跳那个舞, 现在不会了。

(189-190)을 보면 조동사 앞에 과거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미래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 (189a)와 (190a)처럼 임시적인 능력의 경우 시간을 표시할 수 있지만, (189b)와 (190b)와 같이 어느 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장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때문에 시간사는 사건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의 시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초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주로 강세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191) a. 你什么时候会跳那个舞?

당신은 언제 그 춤을 출 줄 알았어요?

b. 我‘去年会跳那个舞。

저 작년에 그 춤을 출 줄 알았어요.

(192) a. 你去年会跳那个舞吗?

당신 작년에 그 춤을 출 줄 알았어요?

b. 我去年‘会跳那个舞。

저 작년에 그 춤을 출 줄 알았어요.

다음으로 의지류 조동사를 보자. 의지류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사 앞과 뒤에 모두 위치할 수 있다. 조동사 앞에는 과거시간이나 미래시간 혹은 반복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출현 가능하지만, 조동사 뒤에는 과거 시간이 올 수 없다.

(193) a. 她唉声叹气地问道:“你真的非要今晚回到里斯本?”

그녀는 한숨을 쉬며 ‘너 정말 꼭 오늘 밤 리스본으로 돌아가야 하니?’라

고 물었다.

b. 她昨晚非要回里斯本, 所以昨天就回去了。

그녀는 어젯밤 꼭 리스본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어제 돌아갔다.

(194) a. 太恐怖了! 再也不敢晚上出去了。

너무 무서워요! 다시는 밤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b. 你晚上敢出去吗?

당신은 밤에 나갈 엄두가 나십니까?

조동사가 시간사 뒤에 올 때에는 [시간사]+[조동사+VP] 구조이고, 조동사가 시간사 앞에 위치할 때에는 [조동사]+[시간사+VP] 구조이다. 즉 전자는 시간사가 조동사의 초점 영역에 있지 않고 후자는 조동사의 초점 영역에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다.

(195) a. 你白天去还是晚上去? 二选一。

너는 낮에 가니 아니면 밤에 가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b. 我要晚上去, 不想白天去。

저녁에 갈래. 낮에 가기 싫어.

*b1: 我晚上要去。

(196) a. 你晚上要去吗?

저녁에 갈래?

b. 我(晚上)要去。

(저녁에) 갈래.

*b1: 我要晚上去。

(195)은 낮에 가는지 밤에 가는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에 대한 확인임으로 시간성분이 초점으로 쓰이는 것이다. (196)의 시간사 ‘晚上’은 조동사가 위치한 구 전체의 시간배경이기에 전제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시간사 앞뒤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사람(주어=화자)이 정보에 대해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2 의무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의무 양태조동사 ‘能’이 시간사 앞뒤에 나타나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단어들은 시간사 앞뒤에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97) a. 警察在追捕我, 我必须现在见他!
경찰이 날 쫓고 있어. 난 지금 그를 만나야 해!
b. 你不知道庭琛现在必须专心写论文吗? 你还要烦他到什么时候?
庭琛이 지금 논문 쓰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걸 모르세요? 언제까지 그를 귀찮게 할 겁니까?
- (198) a. 不过你要5点之前交给我, 因为5点截止。
그런데 너는 5시 이전에 나에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5시에 마감하기 때문이다.
b. 你5点之前要做完, 做不完会被罚款。
네가 5시까지 다 해야 한다. 다 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 (199) a. 你不应该今天来, 今天我很忙。
너는 오늘 오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나는 매우 바쁘다.
b. 你今天应该来上课, 怎么没见到你呢?
너는 오늘 수업 받으러 와야 했는데, 어째서 너를 만나지 못했지?
- (200) a. 味道太香了, 吃吧, 我{可以/*能}明天再减肥。
냄새가 너무 좋다, 먹자,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도 돼.
b. 我们晚上{可以/*能}去减肥中心。
우리는 저녁에 피트니스 센터에 가도 된다.

‘能’이 단독으로 화자의 허가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의문형식이나 부정형식이 시간사 앞에 추가될 수 있다.

- (201) a. 味道太香了, 我{可以/能}明天再减肥吗?
냄새가 너무 좋은데, 나 내일 다시 다이어트 해도 될까요?
b. 你{不能/*不可以}下午给我打电话吗? 非得晚上打?
당신은 제게 오후에 전화해 줄 수는 없나요? 꼭 밤에 전화해야 돼요?

c. 你{能不能/可不可以}下午给我打电话? 晚上我睡得早。

당신은 제게 오후에 전화해주면 안될까요? 밤에 저는 일찍 자거든요.

조동사가 시간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시간사가 나타내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요구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주어가 아니다. 물론 (201a) 처럼 일인칭의 경우 화자와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에는 주어의 의지나 요구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조동사가 시간사 뒤에 오는 경우에는 시간상의 허가 혹은 요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现在必须写论文’은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논문을 써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가지 분포 형식에 있어서의 정보구조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았다.

(202) a. 你今天能发给我吗?

너 오늘 나에게 보내줄 수 있니?

b. 好像不行, 弄不完。

안 될 것 같아, 다 할 수 없어.

a. 那你什么时候能发给我?

그럼 너 언제 나에게 내줄 수 있어?

b. 明天能弄完。明天发给你吧。

내일 다 할 수 있어. 내일 너에게 보내줄게.

(203) a. 你能今天发给我吗?! 不要明天发。

너 오늘 나에게 보내줄 수 있니?! 내일 보내지마.

b. 好, 今天11点左右发给你。

알겠어. 오늘 11시쯤에 너에게 보내줄게.

(202)에서 能이 시간사 뒤에 올 때에는 객관적 상황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고, 시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203)과 같이 시간사가 ‘能’ 뒤에 있을 때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허가 혹은 바라는 시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초점이다.

3.3.3 인식 양태조동사가 쓰인 경우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应该₂’, ‘可能’은 시간사 앞뒤에 모두 올 수 있다. 예문 (204-206)와 같이 ‘应该₂’, ‘可能’을 제외한 다른 인식 양태조동사 뒤에는 일반적으로 시간 성분이 뒤따르지 않는다.

- (204) a. 我可能明天去养老院。
나는 아마도 내일 양로원에 갈 것이다.
b. 我明天可能去养老院。
나는 내일 아마도 양로원에 갈 것이다.
- (205) a. 我应该明天去养老院。
나는 아마도 내일 양로원에 갈 것이다.
b. 我明天应该去养老院。
나는 내일 아마도 양로원에 갈 것이다.
- (206) a. 他明天会送她回家。
그는 내일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이다.
b. *他会明天送她回家。
- (207) a. 我明天要离开韩国了。³³⁾
나는 내일 한국을 떠날 것이다.
b. *我要明天离开韩国了。
- (208) a. 如果不早睡, 明天又得₂迟到。
일찍 자지 않으면 내일 또 지각할 것이다.
b. *如果不早睡, 又得₂明天迟到。
- (209) a. 他明天能₃来吗?
그는 내일 올 수 있을까?
b. *他能₃明天来吗?

(206-209)의 경우, 이 조동사들은 미래 시간에만 쓰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나타내기에 먼저 미래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应该’, ‘可能’ 앞에 시간

33) 鲁晓琨(2004)은 ‘짐작하다’를 표현하는 용법을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필연성을 추측한다’에 귀속시켰지만, [미래 시간사 + 要 + VP] 구조에 출현하고, VP가 나타내는 행위가 행위자의 통제 가능한 행위라면, 그 문장에서 ‘要’는 미래시제표지로 문법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가 나타나면 다른 조동사와 달리 ‘应该’, ‘可能’의 시간 위치로 간주할 수 없다. 문장에서의 시간사는 모두 동사구가 나타내는 동작행위를 하는 시간이다. 앞에서 언급한 ‘会不会’도 마찬가지다.

- (210) a. 他会不会明天去养老院?
그는 내일 양로원에 갈까?
b. 他明天会不会去养老院?
그는 내일 양로원에 갈까?

(210)을 예로 들면 ‘会不会’는 발화시간에 추측하는 것이고, 내일이라는 시간에 추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들의 이동은 초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앞서 (206b)와 같이 ‘会’ 뒤에 시간사 ‘明天’을 붙이면 비문이 되는데, ‘会’ 뒤에 시간사가 부가된 경우도 있다.

- (211) a. 你告诉他, 我晚上会去看他。
당신은 그에게 내가 저녁에 그를 보러 갈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b. 你告诉他, 我会晚上去看他。
당신은 그에게 내가 저녁에 그를 보러갈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会’ 뒤에 시간사를 붙일 경우, 해당 시간사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미래 시간일 수 없다. 예를 들어, (211b)에서 ‘我会晚上去看他’라는 문장은 성립한다. 이 문장을 ‘*她会明天去看他’와 비교해보면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会’ 뒤에 올 수 있는 시간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시간사이다. 예를 들어 ‘晚上’의 경우, 지금 이미 지난 밤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매일 밤일 수도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212) a. 他常常会晚上去看他。
그는 종종 밤에 그를 보러 간다.
b. 我明后天会晚上去看他。
나는 내일 모레 저녁에 그를 보러 갈 것이다.
c. 他那时会晚上来看我。

그는 그때 밤에 나를 보러 오곤 했다.

다시 말해 여기의 ‘晚上’은 구체적인 시점이 아니다. 구체적인 미래 시점은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시간이 선택 가능한 시간 범위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213) a. 如果只能明天, 后天或大后天出去一趟的话, 我会明天出去。

만약 단지 내일, 모레 또는 모레만 한 번 나갈 수 있다면, 나는 내일 나가겠다.

b. *如果只能明天, 后天或大后天出去一趟的话, 我明天会出去。

시간사가 조동사 뒤에 나타나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시간사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동사 뒤의 성분의 정보량에 따라 초점이 다를 수 있다. 위의 예문 모두 맨 동사이기에 동사의 정보량이 시간사보다 낮기 때문에 시간사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3.4 양태조동사와 전치사구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박정구(1995)는 중국어 전치사구의 분포를 크게 주어 앞, 주어와 술어 사이, 그리고 술어 뒤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었고, 부정사 ‘不’와의 분포관계와 해당 분포관계의 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한 전치사구는 정보초점이 될 수 있으며 앞에 부정사를 붙일 수 있다. 주어 앞에 있는 전치사구는 정보의 초점이 되기 어렵기에 ‘不’의 부정초점도 될 수 없다. 동사 뒤에 위치한 전치사는 술어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정사를 붙일 수는 없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214) a. 你们不往南边走吗?

당신들은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b. *你们往南边不走吗?

(215) a. *代表们, 不对于老张的发言, 想展开任何评论。

b. 代表们, 对于老张的发言, 不想展开任何评论。

대표님들은 장 씨의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도 펼치기 싫어했다.

(216) a. 他不住在青岛。

그는 청도에 살지 않는다.

b. *他住不在青岛。

여기서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은 조동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3.4.1 주어와 술어 사이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주어와 술어 사이에만 올 수 있는 전치사로는 ‘往’, ‘给’, ‘和’, ‘向’, ‘比’, ‘把’, ‘被’ 등이 있다. 동적 양태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구 앞에 온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217) a. 树木必定是明白了它所处的地位, 因此能往下扎根,往上成长。

나무는 분명히 그것이 처한 위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b. *树木必定是明白了它所处的地位, 因此往下能扎根,往上成长。

(218) a. 我们是乐队的人, 听说你可以把10种风格合而为一, 爵士乐王莫顿先生想和你较量一下。

우리는 밴드 멤버인데, 당신이 10가지 스타일을 합쳐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즈 왕 모顿씨가 당신과 한번 겨루어 보고 싶어 합니다.

b. *我们是乐队的人, 听说你把10种风格可以合而为一, 爵士乐王莫顿先生想和你较量一下。

(219) a. 在这种气氛之下, 阿里更不敢把丢鞋的事告诉父母了。

이런 분위기에서阿里는 더욱 감히 신발을 잃어버린 일을 부모님께 알리지 못하였다.

b. *在这种气氛之下, 阿里把丢鞋的事更不敢告诉父母了。

(220) a. 我要向她表白。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려고 한다.

b. *我向她要表白。

하지만 동적 양태조동사가 ‘比’와 공기하는 양상은 조금 다르다. ‘일을 잘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会’, ‘能’, 의지를 나타내는 ‘肯’, ‘敢’은 다른 동적 양태조동사와 달리 전치사구 뒤에 올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이 그러하다.

(221) a. 我比他大一岁, 比他会说话, 比他身体好, 我能吃的他不能吃, 我能做的他不能做。

나는 그보다 한 살 많고, 그보다 말을 잘하며, 그보다 몸도 건강하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는 먹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할 수 없다.

b. *我比他大一岁, 会比他说话, 比他身体好, 我能吃的他不能吃, 我能做的他不能做。

(222) a. 一感冒比平时还能睡, 不说了去睡觉了。

감기에 걸리면 평상시보다 잠을 잘 수 있기에, 더 말하지 않고 자러 갔다. 가서 자야지!

b. *一感冒能比平时还睡, 不说了去睡觉了。

(223) a. 世界上有许多做事有成的人, 并一定是因为他比你会做, 而仅仅是因为他比你敢做。

세상에는 많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그가 너보다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너보다 감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世界上有许多做事有成的人, 并一定是因为他比你会做, 而仅仅是因为他敢比你做。

(224) a. 老一辈比现在的窝囊废肯吃苦多了。

어른 세대는 지금의 녀석들보다 더 고생을 견뎌낼 수 있었다.

b. *老一辈肯比现在的窝囊废吃苦多了。

일반적인 능력은 ‘比’자문으로 나타낼 수 없다. 예를 들면, ‘比他会说汉语’, ‘比他能说一口流利的汉语’는 어떤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만 나타낼 뿐이고 정도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能’, ‘会’와 의지를 나타내는 ‘敢’은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도의 차이는 그들과 정도부사의 결합에서 확인할 수 있

다. ‘很能睡’, ‘非常会说’, ‘不太敢做’, ‘不太肯吃苦’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의무 양태조동사와 인식 양태조동사는 이러한 전치사구와 공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 앞에 위치한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225) a. 过马路时应该往两边看。
 길을 건널 때에는 양쪽을 살펴야 한다.
 b. *过马路时往两边应该看。
 (226) a. 收了人家的钱, 就得给人办事。
 남의 돈을 받았으면 일을 봐 주어야 한다.
 b. *收了人家的钱, 就给人得办事。
 (227) a. 回学校以后, 你们肯定得被我吵醒。
 학교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나에 의해서 깨어날 거야.
 b. *回学校以后, 你们得被我肯定得吵醒。

그 이유를 말하자면, 전치사들은 동사와 긴밀한 관계로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작동사 혹은 동사구이다. 일부 조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띠지만, 동작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向他(表白)’는 성립하지만 ‘向他(要表白)’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要’의 동사용법 ‘向他要点钱’은 성립한다. 조동사는 대부분 동작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전치사구 뒤에 올 수 없다. 이 전치사들과 동사의 관계가 더 가깝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전치사와 접속사 용법을 겸한 단어들은 오직 접속사로 쓰일 때에만 조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접속사로 쓰일 때에는 접속사 앞의 성분을 포함한 접속사구 전체가 주어를 이룬다. 이를 통해 전치사구와 동사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깝고 접속사구와 동사 사이의 관계가 더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8) a. 你应该{和/跟}她说一下。
 그 여자한테 말 좀 해야지.
 b. 你{和/跟}她应该感到庆幸。
 너와 그녀는 다행이라고 느껴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应该’, ‘可能’ 뒤에 직접 동작성 술어와 함께 나타나는 전치사구와 공기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 (229) a. 大家要看好他, 因为他晚上{?可能/*应该₂/会}往外跑。
 b. 大家要看好他, 因为他晚上{可能/应该₂}会往外跑。
 c. 他{可能/应该₂}往南跑了。
 d. 他{可能/应该₂}比他高。

(229a)에서 ‘应该往外跑’는 완전히 비문이고 ‘可能往外跑’ 뒤에 ‘会’를 붙이면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예문 (229a)에서 ‘会’만 있을 경우 모두 자연스럽다. 이는 이 문장의 시간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往外跑’가 자체적으로 시간을 한정하지 않는 동사구이기 때문에 미래시간에 발생할 사건을 나타내려면 시간 특성을 가진 ‘得’, ‘会’ 등을 붙여야 한다. 이를 통해 ‘应该’와 ‘可能’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동사가 전치사구 앞에 위치하면 전체 동사구를 수식한다. 이때 전체 동사구를 조동사의 초점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박정구(1995)는 (214)에서 부정사가 전치사구 앞에 있을 때 부정초점은 전치사구라고 언급했다. 조동사가 전치사구 앞에 있을 때는 초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 (230) a. 我要向她表白, 不是要向她同桌。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짝꿍에게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다.
 b. 我要向她‘表白’, 不是要向她道歉。
 나는 그녀에게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것이다.
 c. (你要做什么?) 我要向她表白。

- (231) a. 回学校以后, 你们肯定得被我吵醒, 而不是被闹钟吵醒。
 학교로 돌아간 후에, 너희들은 틀림없이 나에 의해 시끄러워서 깰 것이지, 알람시계에 의해 깨지 않을 것이다.
 b. 回学校以后, 你们肯定得被我‘吵醒’, 而不是被我叫醒。
 학교로 돌아간 후에 너희들은 틀림없이 나에 의해 시끄러워 깰 것이지 나에 의해 불려서 깨지 않을 것이다.

c. (你们回学校以后会怎么样?) 肯定得被我吵醒。

위의 예문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문장의 초점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다른 문맥적 의미는 주로 강세에 의해 표현된다. 예문 (230)에서 문장의 강세가 전치사가 이끄는 대상인 ‘她’에 있으면 초점의 위치도 ‘她’에 있다. 만약 동사 ‘表白’에 강세가 있으면 초점의 위치 역시 ‘表白’에 있다. (231)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동사가 지시하는 초점이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전치사구와 동사로 이루어진 동사구 전체에 있을 수도 있으며 전치사구 뒤의 동사구에 있을 수도 있다.

3.4.2 주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한 전치사를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분포를 갖는 전치사는 ‘在’, ‘从’, ‘由于’, ‘对于’, ‘对’ 등이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232) a. 在学校他说普通话。
학교에서 그는 표준어를 말한다.
b. 他在学校说普通话。
그는 학교에서 표준어를 말한다.
- (233) a. 大家对于这个问题各持己见。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각자 자기 의견을 갖고 있다.
b. 对于这个问题, 大家各持己见。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치사에서 일부는 조동사 앞에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는 그 앞과 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234) a. 他在学校敢说普通话。
그는 학교에서 감히 표준어를 말할 수 있다.
b. 他敢在学校说普通话。
그는 감히 학교에서 표준어를 말할 수 있다.

- (235) a. 你在学校应该说普通话。
너는 학교에서 표준어를 말해야 한다.
b. 你应该在学校说普通话。
너는 학교에서 표준어를 말해야 한다.
- (236) a. 他在学校会说普通话。
그는 학교에서 표준어를 말할 수 있다..
b. 他会在学校说普通话。
그는 학교에서 표준어를 말할 것이다.
- (237) a. 他对于他所听见的不敢相信。
그는 그가 들은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었다.
b. *他不敢对于他所听见的相信。
- (238) a. 大家对于这个问题不能掉以轻心。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
b. *大家不能对于这个问题掉以轻心。
- (239) a. 大家对于这个问题{会/应该会(应该*)/可能会(*可能)}认真考虑。
b. 大家{*会/*应该/*可能}对于这个问题认真考虑。
a1. 大家对于这个问题{应该₂/可能₂}都认真考虑过了。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봤을 것이다.
b1. 大家{应该₂/可能₂}对于这个问题都认真考虑过了。
여러분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것이다.

‘在’ 앞에 올 수 있는 조동사는 앞 절에서 언급한 시간성분 앞에 올 수 있는 조동사들과 같다. 즉 사람의 의지나 관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앞뒤에 모두 올 수 있다. 전치사구 앞뒤에 위치할 때에 따른 정보구조의 차이는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 (240) a. 你应该在家里说方言, 不要在学校说。
너는 집에서만 방언을 쓰고, 학교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b. *你应该在家里说方言, 不要在学校说。
- (241) a. 你在学校应该说普通话, 不要说方言。
너는 학교에서 표준말을 써야 하고, 방언을 쓰지 말아야 한다.
a. *你应该在学校说普通话, 不要说方言。

예문(241)와 같이 조동사 ‘应该’가 ‘说普通话’ 앞에 오면 일반적으로 ‘应不应该说普通话’, ‘应该说什么话’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치사구는 문장의 초점 영역에 있지 않다. 이와 달리 ‘应该’가 전치사구 앞에 오면 전치사구를 초점 영역에 위치시켜 초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在’와는 달리, (237-239) 에서의 ‘对于’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앞에만 온다. 이는 ‘对于’가 주제를 이끌어 내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은 원래 동사 뒤에 위치하므로 조동사가 지시하는 초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동하여 주제화된 전치사구는 조동사의 초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应该’, ‘可能’, ‘会不会’만이 이러한 전치사 앞에 올 수 있다. 따라서 주어 앞과 뒤에 모두 위치할 수 있는 전치사구의 경우 조동사 앞에 오면 주제, 뒤에 오면 초점일 가능성이 크다.

3.4.3 주어의 앞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항상 주어 앞에 오는 전치사는 ‘关于’, ‘至于’ 등이다. ‘关于’, ‘至于’는 기본적으로 주제를 이끌어 낸다. 따라서 학술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들을 주제표지로 본다. 따라서 앞에 조동사의 분포 원리에 의하면 대부분 조동사가 이들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예문을 보자.

- (242) a. 关于这一问题, 日本可能有自己独立的判断。
이 문제에 관해, 일본은 아마 자기들의 독자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
b. 可能关于这一问题, 日本有自己独立的判断。
이 문제에 관해, 일본은 자기들의 독자적 판단이 있다.
- (243) a. 关于这一问题, 应该你们自己去解决。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b. *应该关于这一问题你们自己去解决。
- (244) a. 关于目前的经济状况, 大家不敢说太多。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것들을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b. *大家不敢关于目前的经济状况说太多。

(242-244)는 각각 인식 양태조동사, 의무 양태조동사와 동적 양태조동사가 있는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예문이다. (242-244a)에서 조동사는 문장 주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구 다음의 후행 문장이 성립하면 전체 문장도 성립된다. 하지만 조동사의 의문형식이 전치사구와 함께 나타나면 문장의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45) a. 这种问题, 应不应该你们自己去解决?
 이런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느냐?
 b. 这种问题, 应该你们自己去解决吗?
 이런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느냐?
- (246) a. ??关于这一问题, 应不应该你们自己去解决?
 b. ??关于这一问题, 应该我们自己去解决吗?

(245)과 (246)를 통해 ‘关于’가 이끌어 내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关于’, ‘至于’와 앞 절에 언급한 ‘对于’가 이끌어 내는 주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동사와 공기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247) 至于考不研究生的问题, 你要问问你的老师。
 대학원 시험을 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선생님께 여쭙어 보아야 한다.
- (248) a. {*可能/*应该}至于考不研究生的问题, 你要问问你的老师。
 b. {*会不会/*可不可能}至于这个问题, 我以前说过,这次就不再说说了。
- (249) a. {可能₂/应该₂}这个问题, 你要问问你的老师。
 아마도 이 문제는 너의 선생님께 물어봐야 한다.
 b. {会不会/可不可能}这个问题他以前说过?
 이 문제는 그가 전에 말한 적이 있지 않을까?

위의 예문을 (242-243)와 비교해보면 ‘可能’ 등은 ‘关于’와는 공기가 가능한 반면, ‘至于’와 공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关于’와 ‘至于’가 주제를 이끌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50) a. 去不去旅游现在已经定了, 至于去哪里, 你们决定吧。
 여행을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정해졌으니 어디로 갈지는 너희들이 결정해라.

- b. *去不去旅游已经定了, 关于去哪里, 你们决定吧。
- (251) a. 关于去哪里旅游这个问题, 我们讨论了很久。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했다.
- b. *至于去哪里旅游这个问题, 我们讨论了很久。

呂叔湘(1980)에 따르면 ‘至于’는 또 다른 주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예문(250)에서 ‘至于’가 문장에서 두 번째 주제인 ‘去哪里旅游’라는 문제를 이끄는 기능을 한다. (251)에서 ‘关于’는 대화에서 관심사의 한 가지 주제를 이끈다. 따라서 ‘关于’보다 ‘至于’는 주제 도입보다 주제 전환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可能’ 등은 주제도입만 가능하고 새로운 주제의 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3.5 양태조동사의 특수 분포 및 정보구조

3.5.1 양태조동사가 문말로 후치되는 경우

현대중국어 구어에서 ‘来了吧, 你哥哥’, ‘到家了吧, 他大概’와 같은 예와 같이 원래 문장 가운데에 위치하였던 문장성분이 문말로 이동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 문장성분이 주어일 수도 있고 부사어 등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양태조동사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他走了吧应该’와 같다. 이런 분포 양상을 갖고 있는 조동사는 주로 인식 양태조동사이다. 그런데 왜 인식 양태조동사만 이러한 문말 후치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두 종류의 조동사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부류의 조동사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동적 양태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문말로 후치할 수 없지만 후치현상과 비슷한 형식이 존재한다.

- (252) a. 他会说韩语。 그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
b. *他说韩语会。
c. 说韩语, 他会。 한국어를 하는 것을 그는 할 줄 안다.
- (253) a. 我一顿饭可以吃三碗面条。 나는 한 끼에 국수 세 그릇을 먹을 수 있다.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b. *我一顿饭吃三碗面条可以。
 c. 一顿饭吃三碗面条, 我可以。 한 끼에 국수 세 그릇을 먹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 (254) a. 我要吃汉堡。 나는 햄버거 먹을래.
 b. *我吃汉堡要。
 c. *吃汉堡我要。
- (255) a. 他不肯花钱吃这个。 그는 돈을 써서 이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b. *他不花钱吃这个肯。
 c. 花钱吃这个, 他不肯。 돈을 써서 이것을 먹는 것을 그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 (256) a. 他不敢做这个。 그는 감히 이것을 할 수 없다.
 b. 做这个, 他不敢。 이것을 하는 것을 그는 감히 할 수 없다.

상기 예문에서 b를 보면, 동적 양태조동사가 문말에 오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동사가 문말로 후치되면 주어와 동사구가 절을 이루어 주제가 되고 조동사는 술어가 된다. 동적 양태조동사는 단독적으로 술어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위의 예문c는 성립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후치가 아니고 조동사는 그저 술어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X不X’로 구성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 양태조동사도 문말로 후치할 수 없다.

- (257) a. 我们必须这样做。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b. *我们这样做必须。
- (258) a. 不应该浪费机遇, 也不应该沉溺于机遇。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기회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
 b. 浪费机遇不应该, 沉溺机遇也不应该。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되며, 기회에 빠져서도 안 된다.
 c. 为注定失败的事做出努力, 这种事, 究竟应不应该?
 실패할 운명적인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 (259) a. 你可以跟我说。
 당신은 나에게 말할 수 있다.
 b. 他不在, 我是他的好朋友, 你跟我说也可以。

그는 부재중이고 나는 그의 좋은 친구니까 나에게 말해도 돼.

c. 我跟你说可以不可以?

내가 너에게 말하면 안 되나요?

(260) a. 我们能进去。

우리는 들어가도 된다.

b. *我们进去能。

c. *我们进去能不能?

예문을 보면 (258), (259)과 같은 문장은 성립할 수 있다. 이때의 ‘应该’와 ‘可以’는 역시 술어로 쓰인다. 다시 말해서 다른 위치에서 이동해 온 것이 아니고 동사의 특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술어로 쓰이는 것이다. 그들은 ‘是……的’구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261) 我们好好学习是应该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62) 去是可以的。

가도 된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동적 양태조동사와 의무 양태조동사는 모두 후치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인식 양태조동사를 보자.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会₂’와 ‘能₃’을 빼면 거의 다 후치할 수 있다. BCC에서 추출한 예문을 보자.

(263) a. 考试周, 考试周, 考死了要。

시험 주간, 시험 주간, 시험 때문에 죽겠다.

b. 浙江湖州渔民捕获200斤重青鱼, 体长近2米。成精了这是要!

절강 호주 어민이 200근의 청어를 잡았다. 몸길이가 2미터 가까이 달했다. 이건 경지에 올랐다고 해도 되겠다!

(264) a. 把我们当傻子玩了吧你应该。

너는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놀은 거겠지.

b. 我直接就晕倒了应该。

나는 바로 곧 기절해 버렸을 거야.

(265) a. 为什么呢? 放在电脑上可以充, 一般插头上不能充? 今天被雪冻到了可能。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왜? 컴퓨터에 놓으면 충전이 되고 일반 플러그에서는 충전이 안 돼? 오늘 아마 눈에 얼어 붙었을 거야.

b. 最近神经了吧可能。

요즘 미쳤나 봐.

위의 예문에서 조동사 앞에 일반적으로 어기사 ‘吧’, ‘啊’ 등이 있기 때문에 절 전체를 주어로 볼 수 없고, 조동사도 술어로 볼 수 없다. 예문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조동사뿐만 아니라 문장의 주어도 함께 후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어에서 자주 발생하며 구어의 표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张伯江·方梅(1995)는 일반문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대화 환경이기에, 먼저 청자가 모르는 정보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정보처리방식이 청자의 심리적 인지과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짧고 축박한 대화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 하도록 대화자에게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명제정보를 먼저 말하고 양태정보를 보충하는 것은 초점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에서 주어도 같이 후치한 경우도 많은데 후치된 주어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 후치된 주어를 주제로 판단한다. 周士宏(2008)에서 ‘怎么了你?’ ‘找着了没有, 你的书?’와 같은 예문을 문말 주제문이라고 보았다. 조동사가 후치되는 문장도 주제문이 가장 많다. 하지만 후치된 문장은 반드시 주제문이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66) a: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 车坏了吧{可能₂/应该₂}. 차가 고장났나 봐요, 아마도.
- (267) a: 摩托车坏了? 오토바이가 고장났어?
 b: 不是, *自行车坏了{可能₂/应该₂}. 아니요, 자전거가 고장났어.
- (268) a: 车怎么了? 차가 왜 그래?
 b: 坏了{可能₂/应该₂}. 고장났나 봐요, 아마도.

(266)와 (268)를 통해 문장초점 구조와 술어초점 구조에서의 조동사도 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7)의 경우, 오토바이가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자전거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될 때, 자전거라는 논항을 부각시켜야 하기에, 이 경우 ‘不是,

{应该/可能}是自行车坏了’와 같이 조동사는 초점 앞에 와야 한다. 이를 통해 논항초점일 경우 조동사가 후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 양태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명제의 양태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후치도 문장의 객관적 정보의 전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2 양태조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중국어의 양태조동사는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양태조동사가 단독으로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간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양상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동적 양태조동사는 모두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 | | | |
|-------|------------|-------------------|
| (269) | a: 他会说韩语吗? | 그 사람 한국말 할 줄 알아요? |
| | b: 会。 | 할 줄 알아요. |
| (270) | a: 大蒜能杀菌吗? | 마늘은 살균할 수 있어요? |
| | b: 能。 | 살균할 수 있어요. |

의무 양태조동사도 거의 다 단독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러나 ‘必须’, ‘得’ 같은 경우는 문법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 | | |
|-------|----------------|-------------------|
| (271) | a: 我必须去吗? | 내가 가야 하나? |
| | b: *必须。 | |
| (272) | a: 爸爸得去接孩子? | 아빠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 |
| | b: *得。 | |
| (273) | a: 这本书要带过去吗? | 이 책을 가져가야 해? |
| | b: 要。 | 가져가야 해. |
| (274) | a: 我们应不应该好好学习? |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
| | b: 应该。 | 열심히 해야 해. |
| (275) | a: 我可不可以去? | 내가 가도 되나? |
| | b: 可以。 | 가도 돼. |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276) a: 我们能不能进? 우리는 들어가도 되나?
b: 能. 들어가도 돼.

인식 양태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277) a: 妈妈又得₂说你? 엄마가 또 너를 혼낼 것 같아?
b: *得.
(278) a: 大清国要完? 대청제국은 망할 것 같아?
b: *要.
(279) a: 他已经到了? 그가 벌써 도착했어?
b: *应该.
(280) a: 老师会来? 선생님이 오시나요?
b: 会. 오실거야.
(281) a: 他恼火地说: “他可能去吗?” 그는 화를 내며 ‘그가 갈 수 있어?’라고 말했다.
b: “可能, 怎么不可能?” ‘가능해, 어떻게 불가능해?’
a1: 他已经走了? 그 사람 벌써 갔어?
b1: ?可能. (可能吧.) 아마도.
(282) a: 你看他能来吗? 그 사람이 올 것 같니?
b: 能, 能来. 와, 올거야.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사건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모두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의미를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를 통해 화자의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더 이상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CC말뭉치에서 인식 양태조동사 단독으로 질문에 답하는 경우가 있다.

- (283) a: 啊……这个叫做发箍对吧? 아...이걸 머리띠라고 하죠?
b: 应该吧. 아마도.
(284) 曾哥: 干嘛把头发染啦? 증형: 왜 머리 염색했어?
我: 一切从头开始啊. 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曾哥: 你傻啊? 증형: 너 바보야.
我: 可能吧. 나: 그럴지도 몰라.

이 경우에 ‘应该’와 ‘可能’를 동적 양태조동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와 같이 초점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의 초점은 ‘叫不叫做发箍’, ‘傻不傻’에 있지 동적 양태조동사와 의무 양태조동과 같이 ‘能不能’, ‘应不应该’의 대답이 아니다. 여기에서 ‘应该’와 ‘可能’이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명제적 정보가 ‘应该’와 ‘可能’등에서 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초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6 소결

본장에서 진행한 양태조동사와 주어, 주제화된 성분, 시간사, 전치사구의 분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양태조동사 가운데 동적 양태조동사는 주어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앞에 올 수 없다. 이들은 주어가 통제 가능한 성분, 예를 들어 시간, 장소 등의 성분의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 의무 양태사는 화자가 사회적 규정 혹은 외재적 조건에 의한 허가 혹은 필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만약 양태사가 화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행위의 주체를 부각하고자 하면 주어 앞에 온다. 즉 주어 앞에 오게 되면 초점을 부각시키게 된다. 의무 양태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주어를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무 양태조동사는 주어가 쓰이는 주제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제 앞에도 올 수도 없다. 이러한 단어들이 오는 문장의 정보구조는 일반적으로 어휘적 수단과 운율적 수단에 의해 작용하며, 통사적으로 양태사의 위치 변경을 통해 초점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객관적 사건의 가능성이나 필연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이동할 수 없다. 오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조동사 ‘应该₂’와 ‘可能₂’만이 주어 앞에 올 수 있다. 주어 앞에 올 때 그 뒤의 문장은 세 가지 정보구조 유형 모두 가능하다. 이들은 주어가 쓰이는 주제 앞에 올 수 있기에 다른 주제 앞에 올 수도 있다. 그 뒤에 오는 주제는 그 앞에 오는 주제와 달리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제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양태조동사는 부정형식 혹은 정반의문형식이 있으면 이 두 가지 형식은 화자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두에도 올 수 있다.

3.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양태조동사의 분포와 정보구조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양태조동사의 분포 양상

조동사		①	NP1	②	NP2	or	NP2	③	VP
			T1		T2		F		
동적 양태	会 ₁	×		×		×		O	
	能 ₁	×		×		×		O	
	可以 ₁	×		×		×		O	
	敢	×		×		×		O	
	肯	×		×		×		O	
	要 ₁	×		×		×		O	
의무 양태	必须	×		×		O		O	
	得 ₁	×		×		O		O	
	应该 ₁	×		×		O		O	
	要 ₂	×		×		O		O	
	可以 ₂	×		×		O		O	
	能 ₂	×		×		×		O	
인식 양태	要 ₃	×		×		×		O	
	得 ₂	×		×		×		O	
	会 ₂	×		×		×		O	
	应该 ₂	O		O		O		×	
	能 ₃	×		×		×		O	
	可能 ₁	×		×		×		O	
	可能 ₂	O		O		O		×	

둘째, 양태조동사는 대부분 문말로 후치될 수 없다. 이는 조동사가 여전히 명제 정보를 이루기 때문이다. 후치할 수 있는 단어는 주로 인식 양태조동사이다. 인식양태조동사는 명제정보보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양태정보이다. 명제정보를 먼저 말하고 양태정보를 보충하는 것이 초점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후치할 수 있는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의미를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다. 화자의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더 이상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앞 장에서는 조동사의 분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양태부사의 분포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주로 양태부사의 분포가 조동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4.1 양태부사와 주어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먼저, 양태 부사와 주어의 분포관계를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동사 혹은 형용사 등 술어성분에 대한 수식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일부 부사는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 양태사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주어 앞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양태부사를 문장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崔誠恩(2002)은 인지언어학의 전형 범주 이론을 바탕으로, 양태부사는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이며, 양태부사의 의미 영역은 전체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전형적인 분포는 주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를 비전형적 분포라 하였다. 이를 통해 양태부사가 주어 앞에 오는 것은 조동사와 달리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두에만 위치하는 양태부사는 드물고, 양태부사는 거의 모두 주어 뒤 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와 같이 주어 뒤는 부사의 기본적인 분포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13: 양태부사와 주어의 위치관계³⁴⁾ (단위: %)

	부사	S+부사	부사+S	부사,+S
1	必定	100	0	0
2	必然	100	0	0
3	簡直	100	0	0
4	未免	10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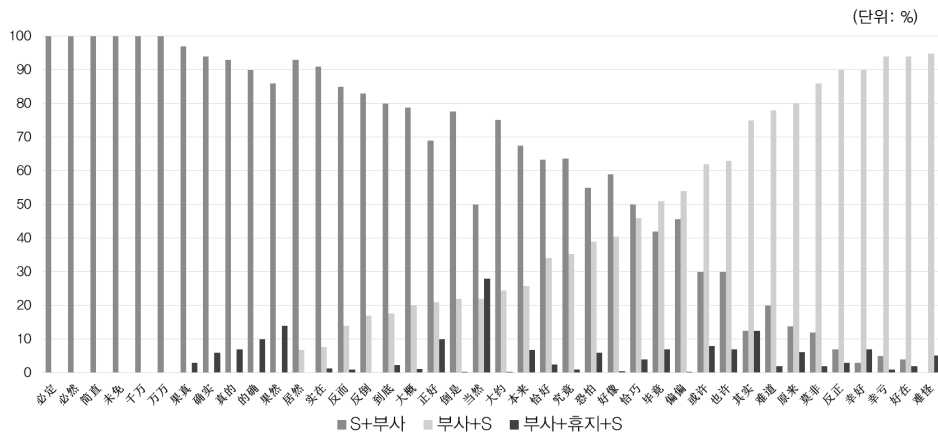
34) 宋少萌(2017)이 BCC 말뭉치를 대상으로 양태부사가 주어 앞뒤에 출현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표는 ‘양태부사+r(대명사)’ 혹은 ‘(대명사)r+양태부사’의 검색 결과이다. ‘부사+S’는 부사와 주어 사이에 휴지가 삽입되는 경우이다.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5	千万	100	0	0
6	万万	100	0	0
7	果真	97	0	3
8	确实	94	0	6
9	真的	93	0	7
10	的确	90	0	10
11	果然	86	0	14
12	居然	93	6.8	0.2
13	实在	91	7.6	1.4
14	反而	85	14	1
15	反倒	83	17	0
16	到底	80	17.6	2.4
17	大概	78.8	20	1.2
18	正好	69	21	10
19	倒是	77.6	22	0.4
20	当然	50	22	28
21	大约	75.2	24.5	0.3
22	本来	67.4	25.8	6.8
23	恰好	63.3	34.2	2.5
24	究竟	63.6	35.4	1
25	恐怕	55	39	6
26	好像	59	40.5	0.5
27	恰巧	50	46	4
28	毕竟	42	51	7
29	偏偏	45.7	54	0.3
30	或许	30	62	8
31	也许	30	63	7
32	其实	12.5	75	12.5
33	难道	20	78	2
34	原来	13.8	80	6.2
35	莫非	12	86	2
36	反正	7	90	3
37	幸好	3	90	7
38	幸亏	5	94	1
39	好在	4	94	2
40	难怪	0.1	94.8	5.1

이는 다음 그림에서 더 쉽게 볼 수 있다.

그림2: 양태부사와 주어의 위치관계



위의 표를 보면, 일부 양태부사는 거의 문두에 위치하는 반면, 일부 양태부사는 문두에 위치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부사들은 자유롭게 주어 앞뒤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면 양태부사가 조동사처럼 앞에 초점과 주제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유형별로 살펴보겠다.

4.1.1 의무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먼저 의무 양태부사를 살펴보겠다. 徐晶凝(2008)은 의무 양태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가운데만 위치할 수 있으며, 문두에 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의무 양태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의무 양태는 사건에 관한 양태이기 때문이다. 의무 양태를 표지하는 술어 부분만을 자신의 관할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千万’, ‘万万’ 등 항상 명령문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제외하면 다른 의무 양태부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문두에 올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285) a. 走到半路车坏了, 我们{只得/只好}下车。
 도중까지 차가 고장나서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었다.
- b. 爸爸不在家, {只好/只得}我来撵走送礼的人。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선물을 드리는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

- (286) a. 你{还是/*最好/*不妨}去看看吧。

가서 좀 보는 것이 좋겠다.

你{*还是/最好/不妨}去看看。

너는 가 보는 것이 좋겠다.

- b. {还是/*最好/*不妨}你去看吧。

네가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还是/最好/不妨}你去看看。

네가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 (287) a. 你{千万/万万}不能说出来。

너 절대 말하지 마.

- b. {*千万/*万万}你不能说出来。

유의해야 할 것은 ‘还是’가 ‘...하는 편이 좋다’는 뜻을 나타낼 때 ‘最好’, ‘不妨’과 달리 뒤에 일반적으로 어기조사 ‘吧’를 수반한다. 앞서 의무 양태조동사 앞에 놓인 성분은 주제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의무 양태부사가 양태조동사와 같은지 살펴보자.

우선 양태부사는 조동사와 달리 모두 ‘X不X’정반 의문형식과 ‘不X’형식을 구성하지 못하고 양태부사 자체는 초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사는 ‘不’와 공기할 때 ‘不’ 앞에 위치한다.

- (288) a. 我晚上去买鞋子, 发现没有折扣了, 只好不买。

나는 저녁에 신발을 사러 갔는데 할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 b. 弟弟妹妹都想买, 可是我们钱不够, 只好我不买了。

남동생, 여동생들이 모두 사고 싶었지만 우리는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지 않을 수밖에 없다.

- (289) a. 如果上班路程不远, 你{最好/不妨}不乘公共汽车, 而改步行。

출근길이 멀지 않을 경우에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좋다.

- b. {最好/不妨}我们不去听《塞维尔的理发师》歌剧, 而去看点别的。

우리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를 듣지 않고 다른 걸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不’는 양태부사의 초점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동사와 같이 ‘X不X’ 정반의문형식과 ‘不X’형식으로 문장의 정보구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주로 강세나 문맥 혹은 초점/주제 표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1) 의문형식

앞장에서 의문사와 조동사의 공기양상을 통해 문장의 초점 위치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양태부사는 앞장에서 언급한 ‘应该₂’와 같이 의문사와 공기할 수 없다. 예는 다음과 같다.

- (290) a. *谁只好下车?
b. *只好谁下车?
(291) a. *你还是做什么?
b. *还是谁去看看?
(292) a. *我千万不要做什么?

이는 ‘应该₂’와 같이 화자가 단언을 할 때 부가하는 양태성분은 전제에서 올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부사가 없는 의문문을 통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어 뒤에 있는 경우를 보자.

- (293) a: 我们怎么办? 우리 어떡해?
b: (我们) {只得/只好}下车喽. 내릴 수밖에 없어.
(294) a: 我去不去? 나 갈까 말까?
b: (你){还是/最好/不妨}去吧. 가는 것이 좋겠다.
(295) a: 我说不说? 나 말할까 말까?
b: (你){千万/万万}别说出来. 절대로 말하지 마라.

예문(293-295)에서 문장의 주어 뒤에 휴지나 주제 표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문장은 모두 주제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제문에서는 주제를 생략할 수도 있고 술어 부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술어초점 구조인 경우 문장 중에 어휘 명사구는 주제적 지위, 즉 비-초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이를 증명하려 한다.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문두에 있는 명사구가 초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화용적 기능인 선행질문의 ‘누구’,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지시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사가 부가된 명제는 ‘누구’, ‘무엇’으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 | | |
|-------|---------------------|-------------------------|
| (296) | a: 谁下车? | 누가 내려? |
| | *b: 我们{只得/只好}下车。 |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야 한다. |
| (297) | a: 谁去? | 누가 가? |
| | *b: 你{还是/最好/不妨}去吧。 | 네가 가는 게 낫겠어. |
| (298) | a: 谁去那个地方? | 누가 그 곳에 가? |
| | *b: 你{千万/万万}别去那个地方。 | 너는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마라. |

위의 예문들에서 부사가 없을 때에는 ‘谁’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문두의 NP가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에 양태부사가 있을 때는 ‘我们’, ‘你’가 ‘谁’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문두에 있는 명사구가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 양태부사가 주어의 앞에 있을 경우를 보자.

- (299) a: 誰去攆走送禮的人?
누가 선물을 주는 사람을 쫓아내러 가나요?
b: 爸爸不在家, {只好/只得} 我去喽。
아빠가 안 계셔서 내가 갈 수밖에 없어.
- (300) a: 誰去? 讓他去吧。
누가 가? 그가 가게 해라.
b: 他去不太合適, {還是/最好/不妨} 你去吧。
그가 가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 네가 가는 게 낫겠다.

의무 양태부사 ‘只好’, ‘只得’는 의무 양태조동사와 같이 주어의 앞에 있을 때는 외부 환경에 의해 행위의 주체가 결정된다. ‘最好’, ‘还是’는 주어에 대한 화자의 조언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와 관련이 있고, 문두에 있을 때 화자가 조언하고자 하는 행위 주체를 두드러지게 하므로 논항초점 구조이다. 하지만 ‘最好’, ‘不妨’은 주어 앞에 나타나더라도 주어가 어떤 행위를 수행할 것을 조언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는 (300b)와 같다. 이러한 문장에서 양태부사의 뒤는 일반적으로 단문이 아니고 복문이다. 이에 대해서 양태부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겠다.

따라서 ‘只好’, ‘只得’, ‘最好’, ‘还是’, ‘不妨’은 주어 앞에 이동하면 주어를 초점으로 삼는 기능을 한다. 이에 비해 ‘千万’, ‘万万’은 명령문에서 주어에게 명령하거나 금지할 때에만 쓰이기 때문에 주어 앞에 올 수 없다. 따라서 ‘千万’, ‘万万’은 술어초점 구조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1.2 인식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다음으로 인식 양태부사를 살펴보겠다. 표1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인식 양태부사에서 필연성을 나타내는 부사인 ‘必定’, ‘必然’, ‘一定’, 확실성을 나타내는 ‘的确’, ‘确实’, ‘真的’ 등은 주어 바로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연성을 나타내는 ‘好像’, ‘似乎’, ‘恐怕’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也许’, ‘大概’, ‘或许’ 등이 문두에 오는 현상은 흔히 관찰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 | | | |
|-------|----------------------------------|-------------------|
| (301) | a. 张三{真的/的确/确实}考了第一。 | 张三이 진짜 1등 했어. |
| | b. { <u>*真的/?的确/?确实</u> }张三考了第一。 | |
| (302) | a. 他们{ <u>必定/必然/一定</u> }会分手。 | 그 둘은 반드시 헤어질 것이다. |
| | b. { <u>*必定/*必然/*一定</u> }他们会分手。 | |
| (303) | a. 他们{ <u>好像/似乎/恐怕</u> }已经走了。 | 그들은 이미 간 것 같다. |
| | b. { <u>好像/似乎/恐怕</u> }他们已经走了。 | 그들은 이미 간 것 같다. |
| (304) | a. 他们{ <u>也许/大概/或许</u> }去。 | 그들은 갈지도 모른다. |
| | b. { <u>也许/大概/或许</u> }他们去。 | 그들은 갈지도 모른다. |

문장에서 부정사가 나타나도 위와 같은 분포 양상을 보인다. 인식 양태부사는 사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인식 양태부사는 부정사 ‘没’와 공기할 수도 있다.

- | | | |
|-------|----------------------------------|-----------------------|
| (305) | a. 张三{真的/的确/确实}没考第一。 | 张三이 진짜 1등을 안 했어. |
| | b. { <u>*真的/?的确/?确实</u> }张三没考第一。 | |
| (306) | a. 他们俩{ <u>必定/必然/一定</u> }不会分手。 | 그 둘은 반드시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b. {*必定/*必然/*一定}他们不会分手。
- (307) a. 他们{好像/似乎/恐怕}还没走。 그들은 아직 안 간 것 같다.
b. {好像/似乎/恐怕}他们还没走。 그들은 아직 가지 않은 것 같다.
- (308) a. 他们{也许/大概/或许}不去。 그들은 아마도 가지 않을 것이다.
b. {也许/大概/或许}他们不去。 아마도 그들은 가지 않을 것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인식 양태부사에서 확실성을 나타내는 ‘的确’, ‘确实’, ‘真的’ 등은 주어 바로 앞에 올 수 없지만, 뒤에 휴지를 두면 문장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 (309) “老爷在哪儿?” “就坐在窗前, 他什么都看得见。”的确, 他就坐在窗前, 什么都看见了。
‘나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창가에 앉아 있어. 그는 뭐든지 다 볼 수 있어.’ 확실히, 그는 창문 앞에 앉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보였다.
- (310) “你会去吗?” “我一定会去的, 你放心好了。真的, 我一定会的, 你相信我就得了, 我说话是算数的。”
‘너 갈 거야?’ ‘꼭 갈 테니 안심해. 정말이야, 내가 꼭 할게, 날 믿으면 돼, 내 말은 유효하다고’라고 말했다.

‘的确’, ‘真的’, ‘确实’ 등의 부사는 주어 앞에 직접 올 수 없는데, 위와 같은 문장은 문두에 자주 보이는 문장이다. 물론 이 형식이 모든 부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好像’, ‘似乎’, ‘恐怕’, ‘也许’, ‘大概’, ‘大约’ 등 단어 뒤에는 휴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真的’ 등처럼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필연성을 나타내는 부사인 ‘必定’, ‘必然’, ‘一定’ 뒤에는 휴지가 있어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형식을 보면서 살펴보겠다.

1) 초점 표지 ‘是’

다음으로 인식 양태부사와 초점 표지의 공기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1) a. 张三{真的/的确/确实}是考了第一。张三은 진짜 일등을 했다.
b. {真的/的确/确实}是张三考了第一。 진짜로 张三이 일등을 했다.
- (312) a. *他们{必定/必然/一定}是会分手。

- (313) b. {必定/必然/一定}是他们会分手。 틀림없이 그들이 헤어질 것이다.
 a. 他们{好像/似乎/恐怕}是已经走了。 그들은 이미 간 것 같다.
 b. {好像/似乎/恐怕}是他们已经走了。 그들이 이미 간 것 같다.
 (314) a. *他们{也许/大概/或许}是去。
 b. {也许/大概/或许}是他们去。 아마도 그들이 갈 것이다.

인식 양태부사와 ‘是’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양상이 조금 복잡한데, 왜냐하면 일부 인식 양태부사는 ‘是’와 함께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6a)와 (308a)처럼 부사들이 원래 단독적으로 문장 가운데에 쓰일 때에는 문장이 성립할 수 있지만, ‘是’를 삽입하면 문장의 수용도가 달라진다. 예는 (312a), (314a)와 같다. 따라서 여기서 먼저 이 단어들과 ‘是’의 공기제약을 살펴보자.

먼저, 이는 부사 뒤에 있는 성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용사, 동사성 술어 앞에 있는 ‘是’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초점 표지가 아닌 강조어기를 나타내는 ‘是’이다. ‘是’는 그 자체가 이미 확정성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추측 혹은 확정할 필요가 없어 다른 부사와 공기하지 않는 것이다.

- (315) a. 他们是去。 그들은 간다.
 a1. *他们也许是去。
 b. 他是去买菜。 그는 야채를 사러 간다.
 b1. 他们也许是去买菜。 그들은 아마 야채를 사러 갔을 거야.
 (316) a. 他很帅。 그는 멋있다.
 b. 他也许很帅。 그는 아마 멋질 것이다.
 c. *他也许是很帅。

모든 인식 양태부사는 (315a), (316)에서의 ‘也许’와 같이 강세를 지니는 ‘是’와 공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315b) 같이 그들은 강세를 지니지 않는 ‘是’와 공기하여 동사가 아닌 ‘是’ 뒤의 ‘买菜’를 초점으로 삼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313a)의 경우 술어 부분에 약하게 읽는 ‘是’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어가 없더라도 문장은 성립된다. (312)과 비교해보면 (313a)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추측이고 (312)은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이다. ‘是’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 표지이기에 미래 상황에 나타나면 적절하지 않다.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311), (312)에서 필연성과 확실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직접 주어 앞에 올 수 없지만, ‘是’를 삽입하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문장 앞에 ‘是’와 양태부사가 부가되면 주어를 강조하므로 위의 두 문장에서 주어가 초점이 된다. 여기에서 ‘是’를 제거하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양태부사들은 단독적으로 주어 명사구를 초점으로 부각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뒤의 논항이 초점일 경우, 반드시 부사 뒤에 ‘是’가 필요한데, 아래에서는 논항초점인 경우에 휴지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 (317) a. 的确, 他不会回来了。
 확실히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b. *的确, 是他不会回来了。
 (318) a. 常居士接了桌子, 站起来道: “真的是她说要到月宫饭店去玩一宿?”
 常居士는 테이블을 연결하고 나서 일어나 정말 그녀가 월궁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놀겠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b. *常居士接了桌子, 站起来道: “真的, 她说要到月宫饭店去玩一宿?”

예문(317b)는 뒤에 ‘是’를 부가하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은 논항초점 구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예문(318a)에는 원래 ‘是’가 있는데, (318b)에서 ‘是’를 빼고 휴지로 대체하면 불가하다는 것은, 문장이 논항초점 구조일 때 휴지를 두게 되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지 뒤에 있는 주어는 일반적으로 약하게 읽어도 되고, 주어 뒤에 휴지나 주제 표지를 지닐 수 있기에, 주제-평언 구조로 판단된다. 따라서 (309)이나 (310)과 같은 문장에서 ‘真的’ 등의 뒤는 주제이다. ‘真的’ 뒤에 휴지를 두어, 후행 문장이 주제-평언 구조이며, 술어초점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의문형식

먼저 양태부사가 주어 뒤에 오는 경우를 보자.

- | | |
|--------------------------|-------------------|
| (319) a1: 谁考了第一? | 누가 1등을 했어? |
| *b1: 张三{真的/的确/确实}考了第一。 | 张三은 진짜 일등을 했어. |
| a2: 张三考了 ‘第一’ | 张三이 일등을 했어? |
| b2: 对, 张三{真的/的确/确实}考了第一。 | 응, 张三이 진짜 1등을 했어. |
| a3: 怎么了? 发生了什么事了? | 왜 그래? 무슨 일이야? |

- *b3: 张三{真的/的确/确实}考了第一。 张三이 진짜 1등을 했어.
 (320) a1: 谁会分手? 누가 헤어질까?
 *b1: 他们俩{必定/必然/一定}会分手。 그 둘이 반드시 헤어질 거야.
 a2: 他们俩会怎么样? 그 둘은 어떻게 될까?
 b2: 他们俩{必定/必然/一定}会分手。 그 둘은 반드시 헤어질 거야.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왜 그래?무슨 일이야?
 *b3: 火山{必定/必然/一定}会爆发。 화산은 반드시 폭발할 것이다.
 (321) a1: 谁去? 누가 가?
 *b1: 他们{也许/大概/或许}去。 그들은 아마 갈 것이다.
 a2: 他们去不去? 그들은 가느냐 안 가느냐?
 b2: 他们{也许/大概/或许}去。 그들은 아마 갈 것이다.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3: 火山{也许/大概/或许}爆发了。 화산은 아마도 폭발한 것 같다.
 (322) a1: 谁走了? 누가 갔어?
 *b1: 他们{好像/似乎/恐怕}已经走了。 그들은 아마도 이미 간 것 같다.
 a2: 他们走了吗? 그들은 갔어?
 b2: 他们{好像/似乎/恐怕}已经走了。 그들은 아마도 이미 간 것 같다.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3: 火山{好像/似乎/恐怕}爆发了。 화산이 아마도 폭발한 것 같다.

이 단어들은 ‘谁会来’처럼 ‘谁的确考了第一’라고 질문 할 수 없기 때문에 ‘的确’ 등은 화자가 스스로 명제 정보에서 부각시키는 양태정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을 통해 인식 양태부사가 나타나는 문장은 주어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닌 술어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문장들은 모두 술어초점 구조이다. 즉 그 앞은 모두 주제이고, 초점이 아니다.

‘也许’, ‘大概’, ‘大约’, ‘好像’, ‘似乎’, ‘恐怕’ 같은 경우는 앞장에 언급한 ‘可能₂’과 의미가 비슷하다. 따라서 그들이 문두에 오는 경우 ‘可能₂’과 같이 세 가지 정보 유형의 문장을 모두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323) a1: 摩托车坏了? 오토바이 고장났나?
 b1: {也许/大概/或许}自行车坏了。 아마도 자전거가 고장난 것 같다.
 a2: 自行车坏了? 자전거가 고장났나?
 ?b2: {也许/大概/或许}自行车坏了。 아마도 자전거가 고장난 것 같다.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a3: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3: {也许/大概/或许}车坏了。 아마도 차가 고장난 것 같다.

따라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好像’, ‘似乎’, ‘恐怕’, ‘也许’, ‘大概’, ‘大约’가 주어 앞뒤에 다 나타날 수 있으며, 주제나 초점을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휴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하나, 휴지 없이 직접 주제 앞에 위치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4.1.3 평가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다음으로 평가 양태부사를 살펴보려 한다. 평가 양태부사가 나타나는 문장의 정보특성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의문을 나타내는 ‘到底’, ‘究竟’, ‘难道’, ‘莫非’는 의문문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그들과 초점 간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究竟’, ‘到底’ 등은 의문사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 (324) a. *谁究竟去上海?
a1. 究竟谁去上海?
 과연 누가 상해에 가느냐?
b. *什么东西究竟才是对我们有益的?
b1: 究竟什么东西才是对我们有益的?
 과연 어떤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325) a. *谁到底来了?
a1. 到底谁来了?
 도대체 누가 왔니?
b. *什么到底让你这么感动?
b1: 到底什么让你这么感动?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감동시켰니?

예문(324-325a)는 의문문으로서 의문사 ‘谁’가 초점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양태부사 뒤의 NP가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谁究竟去上海?’는 비문이며, 이는 초점이 양태부사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앞 장의 결론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到底’, ‘究竟’과 같이 의문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难道’와 ‘莫非’는 일반의문문에서 올 수 없고 반어문에서만 올 수 있기에 의문사를 통해 초점 위치를 판단할 수 없다. (326)와 (327)과 같이 ‘难道’, ‘莫非’가 나타나는 예문의 의문문의 초점은 모두 술어에 있기 때문에 술어초점 구조이다.

(326) 爱情难道一定需要爱吗?

애정은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것일까?

(327) 那两个拖拖拉拉的家伙莫非不来了?

저 두 느장부리는 녀석들이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이를 통해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양태부사를 통해 양태부사 앞의 NP가 초점이 될 수 없고,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직 평가 양태부사가 주어 뒤에 오는 경우만을 살펴보겠다.

평가 양태부사는 비록 전체적으로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지만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포 양상도 다르다. BCC에서 추출한 결과를 보면 화자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 ‘居然’, ‘反倒’, ‘反而’ 등이 주어 앞에 있는 경우는 드물고, ‘竟然’은 거의 주어 앞에 올 수 없다.³⁵⁾ ‘难怪’, ‘怪不得’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이끌어 내는 양태부사는 항상 주어 앞에 온다.

(328) a. 她不但不责备他, {居然/反而}还帮他照料他的事。

그녀는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뜻밖에도/오히려} 그의 일을 돌보아 주었다.

b. *她不但不责备他, {居然/反而}她还帮他照料他的事。

(329) a. 这小子真有钱, {怪不得/难怪}(他)老在戏馆子里听戏了。

이 녀석은 정말 돈이 많구나, 어쩐지 (그가) 항상 극장에서 연극을 보더라니.

b. *这小子真有钱, 他{怪不得/难怪}老在戏馆子里听戏了。

35) 徐晶凝(2008)은 문장부사(문두에 올 수 있는 부사)와 VP부사로 나눴는데, ‘反倒’, ‘居然’, ‘竟然’, ‘竟’를 VP부사로 보았다. 하지만 杨德峰(2009)에서 ‘竟然’, ‘居然’는 주어 앞에 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단어들이 NP 앞에 나타나는 경우, 문장의 정보구조를 살펴보자.

- (330) a. 居然张三赢了。
 뜻밖에도 张三이 이겼다니.
 b. 反而他有点奇怪。
 오히려 그가 좀 이상하다.
 c. 好在你不在那边, 幸亏我不能过去。
 다행히 네가 저쪽에 없어서 다행히 나도 지나갈 수 없었다.
 d. 难怪你不吃虾。
 어쩐지 새우를 안 먹더라니.

예문(330)에서 양태부사 뒤에는 일반적인 명사나 대명사, 혹은 사람의 이름이 올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초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NP가 주제인지 초점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양태부사 뒤에 한 문장이 오고 NP가 문장초점의 일부분도 될 수 있다.

먼저, NP가 초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양태부사가 문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NP 뒤의 술어가 NP에 대한 진술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NP가 양태부사 앞에 있을 때는 초점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NP가 양태부사 뒤에 위치할 때는 초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운율적으로도 위 문장의 강세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330a-b)에서는 양태부사 뒤의 NP를 일반적으로 강하게 읽어야 하고 (330c-d)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하게 읽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태부사 뒤에 강세나 ‘是’를 첨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331) a. 居然{’是}张三赢了。 뜻밖에도 张三이 이겼다니.
 b. 反而{’是}他有点奇怪。 오히려 그가 좀 이상하다.
 c. ??好在{’是}你不在那边, 幸亏{’是}我不能过去。
 d. ??难怪{’是}你不吃虾。

예문(331a-b)에서는 NP에 강세가 놓일 수 있으며 초점 표지를 삽입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331c-d)에서는 강세를 놓거나 ‘是’를 삽입할 경우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를 통해 (331a-b)에서만 NP가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맥에 따라

(331a-b)에서의 문장은 직접적으로 ‘谁’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331a)에서 ‘你猜谁赢了? 居然是张三赢了’라고 말할 수 있다. (331b)에서 누군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那些人没什么可疑的, 反而是他有点奇怪’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331a-b)에서 NP가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1ab)에서는 강세를 NP에 둘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문장에서는 ‘居然’, ‘反而’이 술어초점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1c)의 술어 부분에 특수 강세를 부가하면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두 문장에서 자연강세가 원래 서술부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다. (331c-d)에서 강세가 술어에 있으면 술어초점 구조가 된다. 따라서 (331c-d)에서의 NP는 주제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문맥 속에서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다.

- (332) a. 我很担心你, 好在你不在那边.
나는 네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너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
b. 你对虾过敏啊, 难怪你不吃虾.
너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구나. 어쩐지 새우를 안 먹더라니.

예문(332)에서 부사 뒤의 NP는 모두 앞 문장에서 이미 출현했거나 지금 대화 중에 있는 지시체이다. 따라서 예문(332)에서 NP는 모두 주제이다.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NP가 양태부사 뒤에 올 때는 문장의 정보구조가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치가 다른 양태부사는 정보 특성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怪不得’와 같은 양태부사는 자주 주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居然’와 같은 양태부사는 초점을 도입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양태부사의 분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표10의 각각의 분포에서 대표적인 어휘를 4개씩 선택하여 가장 유효한 예문 50개를 선정하여 집계하였다.

표14: 양태부사가 위치한 문장에서 정보구조의 차이

분포	양태부사	NP앞			NP뒤
		논항초점	문장초점	주제-평언 ³⁶⁾	술어초점
주어 뒤	居然	5	6	0	39
	反而	5	2	2	41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주어 앞	反倒	3	1	1	46
	偏偏	6	9	13	22
	毕竟	2	8	30	11
	幸好	0	1	49	0
	难怪	0	1	48	1
	怪不得	0	2	48	0

위의 표는 우리의 추측을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항상 문두에 위치한 ‘怪不得’의 뒤에 나오는 성분의 대부분은 주제이고, 항상 NP 뒤에 위치한 양태부사 ‘居然’은 일반적으로 술어초점을 표시하여 문두로 이동하면 주어는 논항초점이 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5: 양태부사가 ‘NP’ 앞에 있을 때 문장의 정보구조

양태부사+NP+VP/AP					
양태 유형	양태부사	의미	논항초점	술어초점	문장초점
의무	只得, 只好 还是, 最好, 不妨 千万, 万万	필요	O	×	×
		의무	O	×	×
		허가	*	*	*
인식	的确, 确实, 真的 必定, 必然, 一定 好像, 似乎, 恐怕 也许, 大概, 大约	확실	*	*	*
		필연	*	*	*
		개연	O	O	O
		가능	O	O	O
평가	居然, 竟然 反而, 反倒, 偏偏 正好, 恰好, 恰巧 毕竟, 反正, 当然 幸亏, 幸好, 好在	놀라움	O	△	△
		의외성	O	△	△
		공교로움	O	O	O
		관계	O	O	O
		다행	O	O	O

36) 양태부사 뒤에 있는 성분의 정보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제-평언 구조’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어 뒤에 있을 때 표시되는 ‘술어초점 구조’와도 구별할 수 있다.

	难怪, 怪不得 到底, 究竟	깨달음	△	O	O
	难道, 莫非	의문	O	O	O

*는 이러한 분포에서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는 이러한 분포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해당 정보구조를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는 이러한 분포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양태부사는 양태조동사와 달리 의미가 많이 문법화 되어 초점 영역에 위치할 수 없다. 즉 명제 정보가 아닌 화자의 태도나 관점인 양태 정보를 나타낸다. 명제 내용이 아니므로 화자의 표현 의도에 의해 문장의 정보구조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미유형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 1) 의무 양태부사는 화자가 주어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동하여 논항초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 (333) a. 你{千万/万万}Foc[别去那个地方].

전제: [你x]

단언: [x=别去那个地方]

초점: 别去那个地方

초점 영역: VP

- b. *{千万/万万}你Foc[别去那个地方].

- (334) a. 我只好Foc[撵走送礼的人].

전제: [我x]

단언: [x=撵走送礼的人]

초점: 撵走送礼的人

초점 영역: VP

- b. {只好}Foc[我]去撵走送礼的人。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전제: [x去攥走送礼的人]

단언: [x=我]

초점: 我

초점 영역: NP

- 2) 인식 양태부사는 화자가 사건의 필연성을 나타내면 술어초점 구조이다. 사건의 주체, 발전 등에 대한 추측이면 각 정보구조 유형 모두가 가능하다.

- (335) a. 她必然Foc[会离开那里]。

전제: [她x]

단언: [x=会离开那里]

초점: 会离开那里

초점 영역: VP

- b. *必然她Foc[会离开那里]。

- (336) a. 车好像Foc[坏了]。

好像车Foc[坏了]。

- b. 好像Foc[车]坏了。

- c. 好像Foc[车坏了]。

- 3) 평가 양태부사는 일반적으로 의미유형에 따라 분포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위치하면 술어초점을 나타내고 주어 앞에 위치할수록 주제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 (337) a. 他竟然Foc[没去]。

전제: [他x]

단언: [x=没去]

초점: 没去

초점 영역: VP

b. ?竟然Foc[他没去]。

(338) a. 怪不得(他)Foc[老在戏馆子里听戏]。

전제: [他_x]

단언: [x=老在戏馆子里听戏]

초점: 老在戏馆子里听戏

초점 영역: VP

b. ?他怪不得Foc[老在戏馆子里听戏]。

여기서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336a)와 같은 경우이다. (336a)에서 보듯이 양태부사가 주어 앞에 올 때와 주어 뒤에 올 때 모두 술어초점 구조이다. 즉 이 두 가지 상이한 문장 형식에서 모두 주제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가 양태부사 앞뒤에 위치할 때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339) a. 她见了领导以后一直闷闷不乐, 好像领导对她说了什么。

그녀가 상사를 만난 후 줄곧 시무룩한 것이 아마도 상사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b. *她见了领导以后一直闷闷不乐, 领导好像对她说了什么。

c. 领导好像对她说了什么。

상사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340) a. 她那天总是突然问我时间, 好像她有什么要紧事, 一定要在九点之前办妥。

그녀는 그날 계속 갑작스럽게 나에게 시간을 물었는데, 아마도 그녀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 반드시 9시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 것 같았다.

b. ?? 她那天总是突然问我时间, 她好像有一些要紧事, 一定要在九点之前办妥。

c. 她好像有什么要紧事。

그녀는 아마도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예문(339a)에서 비록 ‘领导’라는 지시체가 앞 문장에서 출현했지만 양태부사 ‘好

像’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두 문장의 주제가 다를 때, 뒤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양태부사 뒤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양태사 뒤의 주제는 앞 문장의 주제와 같은 경우도 있다. 예는 (340)과 같다. 예문(340a)에서 ‘好像她有什么要紧事’ 앞에 ‘她’가 출현했더라도 ‘好像’ 뒤에 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이는 ‘她’ 후행절의 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方梅(2017)에서는 “영형태 주어라는 코딩 수단은 주제 연속체(topic-chain)에서 혼한 연속성 주제의 표현형태이다. 하지만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평가 부사가 문두에 출현할 때는 주제 연속체는 차단된다. 이러한 주제 연속체의 차단 효과는 문장에서 주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하였다. 그녀의 예는 다음과 같다.

(341) 康有为也遭到通缉, 幸亏他及时登上了英国客轮“重庆号”, 逃亡日本, 总算是躲过一劫。

康有为도 지명 수배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는 제때에 영국려객선 ‘충칭호’에 올라 일본으로 도망가서 재난을 모면했다.

方梅(2017)에 따르면, (341)에서 주제 명사 ‘康有为’는 첫 절에서 이미 주어로 나타났기에 통사적으로 그 뒤에 동일 지시체인 주어 명사는 숨길 수 있음에도 주제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대명사로 나타내는 이유는 ‘幸亏’의 관할 영역은 현재절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제 성분이 명시되어야만이 현재절보다 넓은 관할 영역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문두에 있는 양태부사는 후속절의 주제를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张谊生(2000)은 텍스트적으로 보면 다수의 문두에 있는 부사 자체는 주제-평언의 일부에 속하지 않지만, 텍스트 선형 서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문두에 자주 위치하는 2음절 부사와 휴지를 가지고 있는 양태부사의 연결기능은 더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그는 연결기능이 현대중국어 부사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두에 위치하는 부사는 담화 맥락에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거나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는 양태부사는 위아래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양태부사의 연결기능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42) a. 怪不得老师一直夸你, 你真的很聪明。
 어쩐지 선생님이 계속 칭찬해 주더라니, 너 정말 똑똑하구나.
 b. *怪不得老师一直夸你, 真的你很聪明。
 c. ?怪不得老师一直夸你, 真的, 你很聪明。
- (343) a. 你说他不来, 他居然来了。
 너는 그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가 뜻밖에 왔다.
 b. *你说他不来, 居然他来了。
 c. ?你说他不来, 居然, 他来了。
- (344) a. ?我们应该把我们的生活交织起来, 你说对吗? 我也许是胡说。
 b. 我们应该把我们的生活交织起来, 你说对吗? 也许我是胡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교차시켜야 해요,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내가 헛소리하는 것일 지도 모르죠.
 c. 我们应该把我们的生活交织起来, 你说对吗? 也许, 我是胡说。
- (345) a. ?你们经常说她, 她怪不得不在家住。
 b. 你们经常说她, 怪不得她不在家住。
 당신들이 늘 그녀를 이야기하더니, 어쩐지 그녀가 집에 살지 않네요.
 c. ?你们经常说她, 怪不得, 她不在家住。

예문(342-343)에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제는 다르지만 ‘真的’, ‘居然’이 여전히 주제 뒤에 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양태부사는 연결기능을 갖지 않는다. (344)에서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제가 다를 때, 주제는 ‘也许’의 뒤에 오기 때문에, 이 때 ‘也许’는 주제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345)에서는 ‘怪不得’가 기본적으로 문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결기능을 갖는다. 그 뒤에 일반적으로 논항초점이 출현할 수 없으므로 휴지를 놓을 필요가 없다. (345c)에서 휴지를 부여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이를 통해 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양태부사는 연결 기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양태부사와 주제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앞 장에서 양태부사가 주어 앞과 뒤에 오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주로 주제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겠다.

(也许) 那本书 (也许) 他 (也许)已经买了。

① T ② S ③ VP

4.2.1 의무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의무 양태사에서 ‘千万’, ‘万万’의 경우 주어 뒤에만 출현하기에 ‘T ③ VP’ 구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주제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이다. ‘只得’, ‘只好’, ‘还是’, ‘最好’, ‘不妨’는 주어 앞에 올 수 있으므로 ‘T ② S ③ VP’ 구조의 두 분포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 단어들이 주제 앞에 올 수 있는 지를 살펴보려 한다.

- (346) a. 那种裙子千万别再穿了。
그런 치마는 절대로 다시 입지 마라.
b. *千万那种裙子别再穿了。
- (347) a. 裙子只好下次再穿给大家看了, 抱歉抱歉。
치마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b. *只好裙子下次再穿给大家看了。
- (348) a. 既然已经分手了, 礼物还是还回去吧。
기왕 이미 헤어졌으니 선물은 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b. *还是礼物还回去吧。
- (349) a. 表嫂, 这件事最好你不管, 一切由我们去做, 你就装作不知道。
사촌 형수, 이 일은 네가 상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모든 것은 우리가 할테니, 형수는 그냥 모른 척 해.
b. 表嫂, 最好这件事你不要管。
사촌 형수, 이 일은 네가 상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 (350) a. 现在互联网这么发达, 有些不懂的东西不妨上网查一查。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으니,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다.
b. 不妨不懂的东西先上网查一查。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선 인터넷으로 찾아봐.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最好’와 ‘不妨’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제 앞에 올 수 없

다. 이는 역시 이들의 초점부각 기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最好’ 및 ‘不妨’ 뒤에 주제가 올 때 그들과 주제 사이에는 종종 휴지가 필요하다.

4.2.2 인식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의무 양태사에서 필연성을 나타내는 ‘必定’, ‘必然’, ‘一定’, 확실성(certainty)을 나타내는 ‘的确’, ‘确实’, ‘真的’ 등은 직접 주어 바로 앞에 올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T ③ VP’ 구조에서 주어 뒤에만 올 수 있다.

- (351) a. 这条左手一定要好好保留, 否则九龙帮还拿什么吓唬你?
이 왼손은 반드시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구룡이 도와줘도 뭘 가지고 너를 겁주지?
b. *一定这条左手要好好保留, 否则九龙帮还拿什么吓唬你?
- (352) a. 卡里的钱我确实没动过, 至于为什么少了, 这得问我爸。
카드에서의 돈은 내가 확실히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줄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물어야 해.
b. *确实卡里的钱我没动过, 至于为什么少了, 这得问我爸。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실성(certainty)을 나타내는 ‘的确’, ‘确实’, ‘真的’ 뒤에 휴지를 두면 주제 앞에 올 수 있고, ‘是’를 붙이면 초점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연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휴지가 있는 문장에서 이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53) a. 这次考试, 真的是张三考了第一。
이번 시험에서 정말 张三이 일등을 했다.
b. 真的, 这办法我试过! 很灵哦!
정말이야, 이 방법은 내가 해봤어! 실통하다!
- (354) a. 这次考试, 一定是张三考了第一。
이번 시험에서 틀림없이 张三이 일등을 했다.
b. *一定, 这次考试张三考了第一。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예문(353)를 통해 ‘的确’, ‘确实’, ‘真的’는 ‘①, T ② 是S ③ VP’구조에서 세 가지 분포에 모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354)을 통해, 화자의 필연성 판단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주제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好像’, ‘似乎’, ‘恐怕’, ‘也许’, ‘大概’, ‘或许’ 등은 제한 없이 주어 앞에 올 수 있으므로 세 가지 분포에 모두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355) 也许全世界, 我都可以忘记.
아마도 전 세계를 나는 잊을 수 있다.
- (356) 大概这一部分他们都看过.
아마 이 부분은 그들이 다 봤을 거야.

4.2.3 평가 양태부사가 쓰인 경우

평가 양태부사는 대부분 주어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제 앞에 올 수 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통계에 따르면 평가 양태부사의 분포는 세 가지 양상을 보인다. 첫째, 결과가 예상 밖임을 나타내는 ‘居然’, ‘竟然’은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S ③ VP’구조에서 나타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57) a. 这么重要的事儿, 我们{居然/竟然}不知道.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는 뜻밖에도 모른다.
- b. 这么重要的事儿, {居然/*竟然}我们不知道.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는 뜻밖에도 모른다.
- c. {*竟然/?居然}这么重要的事儿我们不知道.

둘째, 예상과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反而’, ‘反倒’, ‘偏偏’은 일반적으로 주제와 주어 사이에 오지 않고 ‘① TS ③ VP’에서 나타난다. 예는 다음과 같다.

- (358) a. 很多人喜欢的东西我反而不喜欢了, 我讨厌蜂拥随大流的人.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나는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별 때처럼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 b. *很多人喜欢的东西反而我不喜欢, 我讨厌蜂拥随大流的人.

- c. 尽管人们都说他不好,但我还是相信自己的感觉。反而其他一些人,我却不敢去相信他们。

사람들이 모두 그가 나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의 느낌을 믿는다. 오히려 다른 몇몇 사람들은, 내가 감히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

- (359) a. 这个人我偏偏实在无法忽视。

이 사람은 내가 유독 정말 무시할 수 없다.

- b. *这个人偏偏我实在无法忽视。

- c. 偏偏这个人我实在无法忽视。

유독 이 사람을 나는 정말 무시할 수 없다.

(358a)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물건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술어 부분은 예상과 반대로 문장이 성립한다. ‘反而’이 ‘我’ 앞에 오면 주어가 예상과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술어 부분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358b)는 성립할 수 없다. (358c)에서 ‘反而’ 뒤의 ‘其他一些人’이 ‘他’와 대비를 이루어 문장이 성립된다. (359)도 마찬가지다. 예상과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뒤의 주제가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대상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대비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주어 앞에 오는 부사들이다. 이 단어들은 문장 연결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제 앞에 오는 것이 더욱 빈번하게 관찰된다.

- (360) a. ?这个主意毕竟是你提出来的。

- b. 毕竟这个主意是你提出来的。

결국 이 생각은 네가 제기한 것이다.

- (361) a. ?那次聚会难怪他不去。

- b. 难怪那次聚会他不去。

어쩐지 그 모임에는 그가 가지 않더라니.

4.3 양태부사와 전치사구의 분포관계 및 정보구조

4.3.1 주어와 술어 사이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의무 양태조동사는 대부분 이러한 전치사의 앞에 위치해 있는데, 양태부사들 역시 양태조동사와 동일한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千万’, ‘万万’은 뒤에 반드시 양태조동사를 수반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전치사 앞에 올 수 없다. 예는 다음과 같다.

- (362) a. 狗狗吐了, 千万不要给他喂水或者食物, 先禁食12小时。
개가 토를 했으면 절대로 물이나 음식을 먹이지 말고 우선 12시간 동안 금식시키세요.
b. *狗狗吐了, 不要千万给他喂水或者食物, 先禁食12小时。
- (363) a. 我请各位注意, 万万不可把心里的愁云摆在脸上。
나는 절대로 마음 속의 근심어린 구름을 얼굴에 펼쳐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b. *我请各位注意, 不可万万把心里的愁云摆在脸上。

양태부사는 양태조동사의 앞에 와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치사구 앞에 와야 한다. ‘只好’, ‘只得’, ‘最好’, ‘不妨’, ‘还是’는 ‘千万’, ‘万万’과 달리 직접 전치사 앞에 올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의무 양태조동사와 같이 동작 행위에 대한 시행을 강조하므로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수식구조의 앞에 온다.

- (364) a. 那人不知该往哪里走, {只好/只得}向一个小孩打听。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 아이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b. *那人不知该往哪里走, 向一个小孩{只好/只得}打听。
- (365) a. {最好/不妨}把准考证号记录在手机里或者笔记本上, 方便以后查询成绩。
나중에 성적 조회하기 쉽도록, 수험표 번호를 휴대전화나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b. *把准考证号{最好/不妨}记录在手机里或者笔记本上, 方便以后查询成绩。

인식 양태부사와 평가 양태부사도 이러한 전치사 앞에 와야 하는데, 이러한 부사들이 뒤에서 어떤 사실을 이끌어낼 때 문장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전치사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치사구와 동사구를 모두 포함하여 부여된다.

또한 인식 양태부사와 평가 양태부사는 술어의 중심어가 형용사일 경우에 전치사구 앞뒤에 모두 올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366) a. 行人好像比往日少了许多。
 행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다.
 b. 行人比往日好像少了许多。
 행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다.
- (367) a. 玉皇山原来离市区也不远。
 옥황산은 원래 시내에서도 멀지 않았구나.
 b. 我坐在第一排, 突然感觉自己离讲台原来这么近。
 나는 첫 번째 줄에 앉았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강단에서 원래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 (368) a. 我哥就脾气臭点, 他对你真的很好, 所以你要多多包容哦!
 우리 형은 성질만이 나빠. 그는 너한테 정말 잘해 주니까, 네가 많이 감싸줘!
 b. 外公真的对我们很好, 我们想吃什么给我们买。
 외할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잘해주신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사 주신다.

양태부사가 뒤로 갈수록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조동사가 전치사구 앞뒤에 올 때에는 다시 문장의 전제를 세울 수 있지만, 양태부사가 오는 문장은 그것을 다시 전제화 할 수 없으며 초점구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他要在这里吃’라는 문장이 ‘谁要在这里吃?’의 대답으로 쓰일 때, 주어 뒤 부분은 전제로 쓰이고, 앞은 초점이다. 하지만 양태부사가 전치사구 앞에 나타나는 문장은 모두 주제문이다.

4.3.2 주어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앞장에서 전치사구가 주제로 쓰이는 경우 조동사 앞에만 올 수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양태부사도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 (369) a. 可怜的孩子, 在国外只好吃这些“垃圾食品”了.
 불쌍한 아이. 외국에서는 이러한 ‘정크 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다.
 b. 国内断货严重, 没办法, 只好在国外买了.
 국내에서는 품절(현상)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다.
- (370) a. 在图书馆最好不要大声喧哗.
 도서관에서는 크게 떠들지 않는 것이 좋다.
 b. 医生说需要少走动, 你最好在家休息3周.
 의사 선생님은 적게 걸어 다닐 필요가 있으며 3주 동안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양태조동사는 주제성이 강한 전치사구 앞에 올 수 없지만, 양태부사는 양태조동사와 다르다. 주제 앞에 올 수 있는 양태부사는 이러한 전치사구 앞에도 올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371) a. 对于这个问题, 大家好像没有什么异议.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다.
 b. 大家好像对于这个问题没有什么异议.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다.
 c. 大家对于这个问题好像没有什么异议.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유의해야 할 것은 주제 앞에 올 수 없는 확실성과 필연성을 나타내는 양태부사도 이러한 전치사 앞에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372) a. 我真的对于同学聚会这种东西没有什么热情.
 나는 정말 동창회라는 것에 대해 아무 열정이 없다.

b. 我对于同学聚会这种东西真的没有什么热情。

나는 동창회라는 것에 대해 정말 아무 열정이 없다.

(373) a. 他一定对于刚才的失言后悔至极。

그는 틀림없이 방금 한 실언에 대해 매우 후회할 것이다.

b. 他对于刚才的失言一定后悔至极。

그는 방금 한 실언에 대해 틀림없이 매우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372-373)에서의 ‘对于’가 이끌어 내는 명사구의 주제성은 (371)과 다르다. 왜냐하면 (371)은 전치사를 생략해도 성립되는데 (372-373)은 그렇지 않다. (372-373)에서의 ‘对于’는 ‘对’와 서로 교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를 이끄는 기능보다 대상을 이끌어 내는 기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3 주어 앞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경우

의무 양태부사는 일반적으로 주어 앞에 오는 전치사구 앞에 올 수 없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374) a. 关于这五件事, 还是别求人帮忙, 因为会越求越忙。

이 다섯 가지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구할수록 더 바쁠 테니까.

b. *还是关于这五件事, 别求人帮忙, 因为会越求越忙。

(375) a. 关于钱的问题, 我们只好请别人帮忙。

돈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b. *只好关于钱的问题, 我们请别人帮忙。

하지만 ‘不妨’, ‘最好’는 그 뒤가 꼭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 앞에 올 수도 있다. 이 두 단어는 (374-375)와 같은 문장의 맨 앞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가 있다.

인식 양태부사에서 필연성을 나타내는 ‘必定’, ‘必然’, ‘一定’ 역시 마찬가지이다. 확실성(certainty)을 나타내는 ‘的确’, ‘确实’, ‘真的’는 직접 주어 바로 앞에 올 수 없는데, 휴지가 부가되면 이러한 전치사구 앞에 올 수 있다.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 (376) a. 关于这个问题, 也许他最有发言权。
 이 문제에 관해 아마 그가 가장 발언권이 있을 것이다.
 b. 也许关于这个问题, 大家都不是特别了解。
 아마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 (377) a. 关于叔叔的事, 大家的确不知道。
 삼촌에 관한 일에 대해 다들 정말 몰랐어.
 b. *关于叔叔的事, 确实大家不知道。
 c. 真的, 关于叔叔的事, 大家都是才知道。
 정말이야, 삼촌에 관한 일에 대해 다들 모두 방금 알았어.

평가 양태부사에서, 문두에 잘 오지 않는 ‘居然’, ‘竟然’은 이러한 전치사 앞에 올 수 없고, 자주 문두에 오는 ‘难怪’, ‘怪不得’는 주제 앞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예는 다음과 같다.

- (378) a. 关于叔叔的事, 他{居然/竟然}没听过。
 삼촌에 관한 일에 대해 그는 뜻밖에도 듣지 못했다.
 b. 关于叔叔的事, {居然/*竟然}他没听过。
 삼촌에 관한 일에 대해 뜻밖에도 그는 듣지 못했다.
 c. *{居然/竟然}关于叔叔的事,他没听过。
- (379) a. *关于叔叔的事, 他难怪一点儿也不关心。
 b. ?关于叔叔的事, 难怪他一点儿也不关心。
 c. 难怪关于叔叔的事, 他一点儿也不关心。
 어쩐지 삼촌에 관한 일에 대해 그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위의 예문을 통해 초점 앞에만 올 수 있는 ‘还是’ 등은 주제 앞에 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행위자가 쓰이는 주제 앞에 올 수 있는 양태부사는 주제 앞에도 올 수 있다. (379b)와 같이 ‘难怪’가 문장 주어 앞에 오는 것이 문두에 오는 것보다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통해, ‘难怪’와 같은 단어들이 주제 연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양태부사의 특수 분포 및 정보구조

4.4.1 양태부사가 문말로 후치되는 경우

陆俭明(1980)은 중국어 구어에서의 후치 현상³⁷⁾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부사 후치 현상을 논의하였다. 그는 변이 구문의 특징을 문법적 관점에서 요약했지만 부사가 왜 후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아직 모른다’고 지적했다. 杨德峰(2008)은 《중국어 수준 어휘와 한자 등급 대강(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의 337개 부사를 정량적으로 집계하고, 부사의 후치는 부사의 음절, 부사의 종류와 의미, 부사 뒤에 있는 성분의 다양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지만, 여전히 부사의 위치가 바뀌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그가 부사의 후치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지만 후치 현상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기제를 다루지 않았기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중국어에서 후치할 수 있는 부사는 양태부사가 가장 많다. 이는 杨德峰(2008)의 조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16: 杨德峰(2008) 후치할 수 있는 부사의 비율

	수량	후치가능비율(%)	예:
양태부사 ³⁸⁾	34	48.6	还, 毕竟, 不妨, 差点儿
시간부사	21	30	曾经, 成天, 从此, 赶紧
상황부사	4	5.7	忽然, 顺便, 逐渐
범위부사	4	5.7	全部, 至多, 至少, 总共
정도부사	2	2.9	稍微, 有(一)点儿
중복부사	4	5.7	常常, 重新, 又, 再
관련부사	1	1.4	也

이에 본고에서는 이어서 ‘왜 양태부사가 가장 많이 후치될 수 있는가?’, ‘양태부사에서 어떤 것이 후치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7) 陆俭明(1980)에서는 ‘易位现象’라고 부른다.

38) 杨德峰(2008)에서는 ‘语气副词’라고 부른다.

먼저 의무 양태부사를 보겠다.

(380) *爸爸不在家, 我来撵走送礼的人{只好/只得}。

(381) a. 你别去了吧还是。 너 가지 마라, 그냥.

b. *你去{最好/不妨}。

(382) *你别去那个地方{千万/万万}。

‘只得’, ‘只好’은 모두 후치할 수 없다. (381b)에서의 ‘最好’는 여전히 ‘가장 좋다’의 의미의 술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부사 ‘最好’를 후치할 경우 술어로 쓰인 ‘最好’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후치하지 않는다. ‘还是’는 뒤에 ‘吧’와 함께 출현해야 때문에 후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吧’ 뒤에 위치한다.

(383) a. 没口罩, 我等死吧还是。

마스크가 없어. 난 죽음을 기다릴게, 그냥.

b. 不会吧! 这么巧吗? 我我我我……闪人吧还是!

그럴 리가! 이런 우연이? 나...빨리 갈게, 그냥!

c. 姐们儿, 回北京吃吧咱还是。

언니, 우리 북경으로 돌아가서 먹자, 그냥.

d. 好吧, 睡觉吧还是。

좋아요, 잠이나 자자, 그냥.

‘还是’가 후치되는 예문의 대부분은 주어가 없다. 때로 주어와 함께 후치된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인식 양태부사를 보겠다.

(384) *张三考了第一{真的/的确/确实}。

(385) *他们俩会分手{必定/必然/一定}。

(386) 他们不会来了{也许/大概/大约}。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387) 他们已经走了{好像/似乎/恐怕}。 그들은 이미 간 것 같아, 아마도.

인식 양태부사에서 확실성을 나타내는 ‘的确’, ‘确实’, ‘真的’ 등과 필연성을 나타

내는 부사 ‘必定’, ‘必然’, ‘一定’ 등은 후치할 경우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好像’, ‘似乎’, ‘恐怕’, ‘也许’, ‘大概’, ‘大约’ 등 단어들은 모두 후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장의 끝에 사용될 수 있는 양태부사는 보통 문장 가운데 위치할 수도 있고 문두에도 위치할 수 있는 부사임을 알 수 있다. 분포가 비교적 고정적인 부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포에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평가 양태부사를 살펴보겠다.

- (388) a. ?张三赢了居然。
b. ?他有点奇怪反而。
c. *你不在那边好在。
d. *你不吃虾难怪。

양태부사의 이러한 현상은 구어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다. 양태부사는 명제 외의 성분이고 화자의 태도 혹은 말투를 전달한다. 그러나 문장의 주절에서 전달하는 것이 핵심 정보이므로 의사소통에서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구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가 뒤에 위치하거나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양태부사를 뒤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양태부사로써 주로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毕竟’, ‘当然’, ‘反正’, ‘其实’와 의문을 나타내는 ‘到底’와 ‘究竟’ 등이 있다. 예문(385)에서 양태부사 앞은 완전한 명제이다. 누가 이겼냐고 물어볼 때 ‘张三赢了居然’으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NP는 초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후치 현상은 일반적으로 주제-평언 구조와 문장초점 구조에서 자주 보인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389) a. 我们正在打架的时候, 老师来了恰巧。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오셨다, 공교롭게.
b. 你给了他多少钱到底?
당신은 그에게 얼마를 주었어? 도대체.

예문(389a)에서 ‘恰巧’는 문장초점을 이끌어 내고, 우리가 싸울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문(389b)에서 의문사 부분은 초점이고 ‘你’는 주제이다. 따라서 문장은 술어초점 구조이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到底’, ‘究竟’과 같은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가 논항초점 구조에서 나타날 때도 후치할 수 있다.

- (390) a. {到底/究竟}谁去了?
 도대체 누가 간 거야?
 b. 谁去了{到底/究竟}?
 누가 간 거야? 도대체.

4.4.2 양태부사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陆俭明(1982)에서는 부사를 단독적으로 쓸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한 개의 부사를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부사 뒤에 어기조사를 덧붙여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³⁹⁾

- (391) a. 小李病了好几天了, 我得去看看他。
 小李이 아픈지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가 봐야겠어요.
 b. 本来嘛, 你早该去了。
 그러게. 넌 진작 갔어야 했어.
 (392) a. 你知道吗, 这个月我们超了百分之十。
 아세요? 이번 달에 저희가 10%를 넘겼어요.
 b. 真的? 你没开玩笑吧?
 정말? 농담은 아니죠?

예문(391)는 앞서 양태부사 뒤에 휴지를 둔 문장과 형식이 비슷하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앞에서 논의한 구조도 부사가 단독적으로 쓰이는 유형에 포함시킨다. 齐沪扬(2002)은 陆俭明(1982)이 언급하지 않았던 예를 보충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9) 陆俭明(1982)에서 이 형상을 ‘副词独用’이라고 하였고 부사가 단독적으로 쓰일 때나 문장을 이룰 때 혹은 단독적으로 술어가 되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구어 문법의 특수한 현상의 하나로 구성 성분을 많이 생략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 (393) a. 难道, 咱们就这么耗下去。 설마, 우리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b. 反正, 你看着办吧.
 어차피, 알아서 하세요.
 c. 原来, 他真是陷入了极大的困境.
 알고 보니 그는 정말 큰 곤경에 빠졌다.

예문(393)은 부사를 단독적으로 쓰는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문(393)에서 ‘难道’, ‘反正’, ‘原来’ 뒤의 휴지를 생략하여도 문장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문(393)에서 ‘难道’, ‘反正’, ‘原来’ 뒤에 휴지를 둘 때는 뒤의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휴지를 생략하여도 문장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391-392)에서는 ‘本来’, ‘真的’와 뒤의 문장을 합칠 수 없다. ‘本来’, ‘真的’ 뒤에는 본래 이 두 단어의 수식성분이 있었지만 생략된 것이다. 완전한 문장은 ‘你本来得去看看他’, ‘这个月我们真的超了百分之十?’이다. 부사를 단독적으로 쓸 때와 달리 예문(393)에서는 ‘难道’, ‘反正’, ‘原来’ 뒤의 문장을 생략하면 안 된다.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점을 생략할 수 없다. 부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될 때는 대답에서는 양태부사밖에 없거나 어기조사와 함께 출현한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부사가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양태부사가 단지 화자의 태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温锁林(2001)은 NP 앞에 담화(篇章)성분, 양태성분 및 문두 수식어 등이 출현할 수 있으나, 이들은 결코 문장의 맨 앞에서 실체를 개념화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의 예문으로 이를 증명하였다.

- (394) 幸亏这场火消防队来得早.
 다행히 이번 화재에는 소방대가 일찍 왔다.

위 예문의 ‘幸亏’는 문두에 위치하고 있으나 하나의 실체에 대한 논항이 아니며,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그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즉 평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제가 반드시 하나의 실체개념을 나타낸다는 의미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예문들은 부적절한 것이 된다. 본고에서는 양태부사가 단지 화자의 태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보적으로 말하면 양태부사는 일종의 양태정보를 전달한다. 양태부사는 일반적인 명제정보가 아니며 단독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태부사 그 자체는 초점이 될 수 없다. 구어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항상 많은 성분이 생략된다.

이 부사들은 구어에서 많이 쓰여 일반의문문에 긍정이나 긍정적인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예문(395)처럼 선택의문문이나 특수의문문에서 나타날 수 없다. 예를 들어,

- (395) a: 我们主任今天回不来了吧?
우리 주임이 오늘 돌아올 수 없겠지?
b: 也许. (陆俭明1980)
아마도.
a1: 谁今天回不来了?
누가 오늘 돌아올 수 없습니까?
b1: *也许.
(396) a: 今年我们还种棉花呀?
올해에도 우리는 목화를 심습니까?
b: 当然咯. (陆俭明1980)
물론이지.
a1: 今年谁还种棉花呀?
올해에도 누가 목화를 심습니까?
b1: *当然咯.

예문(395)을 통해 이 양태부사들은 논항초점 구조인 문장에서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395)에서 생략성분을 보충하면 ‘也许’는 문장 ‘你们主任也许今天回不来了’를 생략하는 것이고, (396)에서 ‘当然’은 ‘今年我们当然还种棉花喽’를 생략하는 것이다. 문장에서의 양태부사는 일반적으로 술어초점 앞에 덧붙여 화자의 의문에 대한 일종의 긍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也许’, ‘当然’은 역시 그 뒤의 초점을 표시하는 성분이지 초점이 아니다.

다음으로 어떤 부사가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보자.

먼저 의무 양태부사를 보겠다.

- (397) a: 爸爸不在家, 撵走送礼的人? b: {*只好/*只得}。
아버지는 집에 없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을 쫓아낼까?
- (398) a: 别去了。 b: {*还是/*最好}。
가지 마세요.
- (399) a: 你别去那个地方。 b: {*千万/*万万}。
너는 그 곳에 가지 마라.

다음으로, 인식 양태부사를 보겠다.

- (400) a: 她很漂亮。 b: {真的/的确/确实}。
그녀는 예쁘다.
- (401) a: 他们俩会分手。 b: {*必定/*必然/*一定}。
그 둘은 헤어질 것이다.
- (402) a: 他们不来了? b: {也许/大概/*大约}。
그들이 안 온다고?
- (403) a: 他们已经走了。 b: {?好像/*似乎/*恐怕}。
그들은 이미 갔다.

마지막으로, 평가 양태부사를 보겠다.

- (404) a: 张三赢了。 b: *居然。
张三이 이겼다
- (405) a: 他有点奇怪。 b: *反而。
그는 좀 이상해.
- (406) a: 他不在那边。 b: *好在。
그는 저쪽에 있지 않다.
- (407) a: 我不吃虾。 b: 难怪。
나는 새우를 먹지 않는다. 어쩐지.

그러나 (407)에서의 ‘难怪’는 다른 양태부사와 달리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나타나지 않고 술어초점을 별로 표시하지 않는데, (407b)와 같은 문장을 완전하게 보충할 경우 항상 주어 앞에 위치한다.

- (408) a: 今天这么冷呢!
오늘은 왜 이렇게 춥니?
b: 暖气坏了。
난방이 고장났다.
a: 怪不得呢。
어쩐지.
- (409) a: 这是谁啊, 我没见过啊?
이게 누구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b: 他是老张的儿子, 刚从老家来的。
그는 장형의 아들인데, 방금 고향에서 왔다.
a: 哦, 难怪啊。
오, 어쩐지.

예문(408-409)를 전부 보충하면 각각 ‘怪不得今天这么冷’, ‘难怪我没见过’이다. 문장은 역시 주제-평언 구조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의 문장과 달리 예문(408-409)에서 상대방은 언급했던 것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담화의 일종의 생략이다. 문장의 일부가 생략된 후에도 담화 문맥에 따라 상대방은 화자가 생략한 부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难怪’, ‘怪不得’도 일종의 생략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부사의 단독 사용과는 다르다.

4.5 소결

위의 논의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 양태부사는 의무 양태조동사와 같이 화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주체를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조동사가 문두로 이동하여 논항초점을 나타낼 수 있다. 주어 앞에 이동하는 것이 주어를 초점으로 삼는 것이기에 주제 앞에 올 수 없다. 인식 양태부사는 화자가 사건의 필연성을 나타내면 술어초점 구조이다. 사건의 주체, 발전 등에 대한 추측이면 각 유형은 모두 가능하다. 평가 양태부사는 비록 전체적으로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지만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포 양상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화자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 ‘居然’ 등은 주어 앞에 있는 경우는 드물고 ‘竟然’은 거의 주어 앞에 올 수 없다. ‘难怪’, ‘怪不得’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이끌어 내는 양태부사는 항상 주어 앞에 온다.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위치하면 술어초점을 드러내고 주어 앞에 갈수록 주제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표17: 양태부사의 분포 양상⁴⁰⁾

부사		①	NP1	②	NP2	or	NP2	③	VP
			T1		T2		F		
의무 양태	只得	×		×		O		×	
	只好	×		×		O		×	
	还是	×		×		O		×	
	最好	O		O		O		×	
	千万	×		×		O		×	
	万万	×		×		O		×	
인식 양태	真的	△		△		O		×	
	确实	△		△		O		×	
	必定	×		×		O		×	
	一定	×		×		O		×	
	好像	O		O		O		×	
	恐怕	O		O		O		×	
	大概	O		O		O		×	
	也许	O		O		O		×	
평가 양태	竟然	×		×		O		×	
	居然	△		△		O		×	
	反而	△		△		O		×	
	反倒	△		△		O		×	
	反正	O		O		O		×	
	毕竟	O		O		O		×	
	难怪	O		O		O		×	
	怪不得	O		O		△		×	

둘째, 문말로 후치할 수 있는 양태부사는 보통 문장 가운데 위치할 수도 있고 문두에도 위치할 수 있는 부사이다. 분포가 비교적 고정되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이러

40) 각 분류에서 두 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4. 양태부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한 분포에 나타나지 않는다. 양태부사의 후치 여부는 단순히 분포의 유연 여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며, 이는 명제 전체의 정보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논항초점 구조일 경우 일반적으로 후치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到底、究竟’와 같은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가 논항초점 구조에서 나타날 때도 후치할 수 있다. 후치할 수 있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양태부사는 오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더 이상 초점이 될 수 없다.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양태사들은 종종 연용될 수 있는데, 그들의 연용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기존 연구로는 양태조동사 사이의 연용이나 양태부사 사이의 연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马庆株(1988), Guo(1994), 宋永圭(2004), 彭利贞(2007) 등은 양태조동사의 연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史金生(2003)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양태부사간의 기본 연용 순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태부사와 양태조동사의 연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데, 그 예로는 潘田(2010)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오직 같은 종류의 양태부사와 양태조동사간의 연용만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존의 양태사 연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단어가 연용될 수 있는지와, 두 단어 중 어느 것이 앞에 오는지에 대해 집중되었다. 구체적인 두 단어가 어떻게 공기되는지, 몇 가지 공기 형식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공기 형식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하였다.

양태사의 연용 형식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연구의 주제로서 주목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이를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马庆株(1988)에서는 조동사의 연용을 조동사들이 연이어 인접해 있는지에 따라 연속 연용과 간격 연용으로 나눴고, 간격 연용은 조동사들 간의 문법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눴다.

a. 병렬 관계

它能够也应该为绝大多数人所接受。

그것은 절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절대다수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b. 점진 관계

火车司机不能下车吃饭, 要带饭在车上吃。

기차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밥을 먹을 수 없고, 밥을 가져와서 차에서 먹어야 한다.

c. 선택 관계

嫁了人连自己的袜子都不会或不肯洗, 那才是自私呢。

시집을 갔으면서도, 자기 양말을 빨 줄도 모르고 빨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것이다.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d. 순접 관계

人要活到老学到老, 我还得多学。

사람은 나이가 들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나는 아직 더 배워야 한다.

e. 역접관계

总是能够请下假来, 砍下的柴也不敢拿去卖。

늘 휴가를 낼 수 있지만, 베어 놓은 나무조차 감히 가져다 팔 수 없다.

위의 예문을 통해 马庆株(1988)이 언급한 간격연용은 주로 이 두 조동사 간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문장성분의 연결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간격 연용을 살펴볼 것인데, 주로 한 문장에서 양태사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맺는 것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양태사들이 한 문장이나 절에서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인데, 직접연용이나 두 양태사 사이에 다른 성분이 오는 경우도 살펴보겠다. 유의해야 할 것은 양태사들 사이에 부사만 오는 경우도 직접 연용으로 본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로는 ‘千万要’, ‘千万不要’가 있다. 직접 연용이 아닌 경우는 ‘也许你要重新开始规划’와 같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이를 ‘간접 연용’으로 부르겠다.

5.1 양태조동사 간의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彭利贞(2007) 등은 양태조동사의 연용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식 > 의무 > 동적

- (410) 面膜应该不能常做吧。 (인식> 의무)
팩을 항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411) 我想你妈妈应该能帮助你, 她的作文挺好的。 (인식> 동적)
너의 엄마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작문은 아주 훌륭하다.
- (412) 铺板当检查床矮了些, 但一个好医生, 应该能在各种条件下检查病人。 (의무> 동적)

환자를 검사용 침대로 쓰기에는 좀 낮지만, 좋은 의사라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환자를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彭利贞2007)

따라서 인식 양태조동사와 의무 양태조동사 모두 동적 양태조동사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적 양태조동사는 동사에 가장 가깝고, 다른 조동사보다 문장의 맨 안쪽에 나타나므로 인식 양태조동사나 의무 양태조동사와 공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뒤에 나타난다. 따라서 먼저 다른 두 종류의 조동사와 동적 양태조동사들의 공기 양상을 보겠다.

표18: 동적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조동사 조동사		동적 양태					
		敢	会	肯	要	可以	能
의무 양태	必须	必须∧敢	必须∧会	必须∧肯	必须∧要	必须∧可以	必须∧能
	得	得∧敢	得∧会	得∧肯	得∧要	得∧可以	得∧能
	应该	应该敢	应该会	应该肯	应该要	应该可以	应该能
	要	要敢	要会	要肯	×	要可以	要能
	可以	×	×	×	×	×	×
	能	×	×	×	×	×	×
인식 양태	可能	可能∧敢	可能∧会	可能∧肯	可能∧要	可能∧可以	可能∧能
	应该	应该∧敢	应该∧会	应该∧肯	应该∧要	应该∧可以	应该∧能
	会	会敢	×	会肯	会要	×	×
	能	能敢	能会	能肯	能要	×	×
	得	×	×	×	得要	×	×
	要	×	×	×	×	×	×

∧는 간접 연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무 양태조동사와 인식 양태조동사 자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적 양태조동사와는 다른 공기 양상을 보여준다. 다른 조동사와 동적 양태조동사들은 직접 연용할 수 있고, 그것들 사이에 다른 성분들도 나올 수 있다.

- (413) a. 没有能力的也要敢说, 有能力的就得敢做。
 능력이 없더라도 과감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으면 과감히 해야 한다.
 b. 他们敢去不管用, 得你敢。
 그들은 감히 가도 상관없을, 너가 감히.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 그들은 갈 수 있지만 쓸모가 없다, 네가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414) a. 他们认为, 要保证这个设想的实现, 首先就得肯下本钱抓教育, 造就人才.
 그들은 이 구상의 실현을 보장하려면 우선 기꺼이 밑천을 들여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 我们说再多也不管用, 得他自己肯去.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소용이 없고, 그 자신이 가려고 해야 한다.
- (415) a. 你不陪他, 他可能会不开心.
 네가 그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b. 可能他会做, 但是不想做.
 아마도 그는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c. 可能这首歌他会唱, 但是不想唱.
 아마도 이 노래는 그가 부를 수 있지만, 부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 (416) a. 歌, 真正的歌, 应该能丰富和提高人们的心灵.
 노래, 진정한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b. 全世界应该只有他能做得出来, 评委都不敢看, 太精彩了!
 전 세계에서 그 사람만이 해낼 수 있을 텐데, 심사위원들마저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멋지다!
 c. 应该这种事情只有他能做得出来.
 이런 일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必须’, ‘应该’, ‘得’ 등 의무 양태조동사가 문두에 올 때에는 뒤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적 양태조동사와 공기하는 (413-416)와 같은 문장은 논항초점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可能’, ‘应该’가 동적 양태조동사와 공기할 경우 두 가지 정보구조의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곧 주제 구조와 논항초점 구조이다.

다음으로 의무 양태조동사 앞에 올 수 있는 조동사를 살펴보려 한다.

표19: 의무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조동사		의무 양태					
조동사		必须	应该	得	要	可以	能
의무 양태	必须	×	×	必须得	必须要	必须可以	必须能
	应该	×	×	×	×	×	×
	得	×	×	×	得要	得可以	得能

인식 양태	可能	可能∧必须	可能∧应该	可能∧得	可能∧要	可能∧可以	可能∧能
	应该	应该∧必须	×	应该∧得	应该∧要	应该∧可以	应该∧能
	会	×	×	×	×	×	×
	能	×	×	×	×	×	×
	得	×	×	×	×	×	×
	要	×	×	×	×	×	×

의무 양태조동사들은 서로 다른 의무적 양태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다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必须’만이 다른 의무적 양태조동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필요 의미를 나타내는 ‘必须’는 똑같이 필요 의미를 나타내는 ‘得’와 공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彭利贞(2012)은 두 단어의 양태의 출처가 다르고, ‘必须’의 양태의미는 화자에게서 유래하며, 청자에게 강한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화자의 강한 개입이 존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得’가 표현하는 ‘필요’의 출처는 외적인 환경으로, 말하는 사람이 환경 요구의 관점에서 듣는 사람에게 강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 의무 양태조동사인 ‘必须’는 의무 양태조동사들과 직접 연용할 수밖에 없고, 인식 양태조동사는 간접 연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417) a. 他必须得去。 그는 가야만 한다.
b. 必须得他去。 그가 가야만 한다.
c. *必须他得去。
(418) a. 他可能得去。 그는 가야 할 것 같다.
b. 可能得他去。 아마도 그가 가야 할 것이다.
c. 可能他得去。 아마도 그는 가야 할 것이다.

(417)의 ‘必须’와 다른 의무 양태조동사 뒤에 모두 초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417b)처럼 함께 문두에 올 수 있다. (418b)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417c)처럼 분리되어 나타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동사 ‘必须’와 ‘得’가 나타내는 정보의 구조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두 단어가 하나의 초점 구조를 표현해야만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 양태조동사 앞에 올 수 있는 조동사를 보자.

표20: 인식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조동사		인식 양태			
		可能 ₁	会	要	得
인식	可能 ₂	×	可能 ∧ 会	可能 ∧ 要	可能 ∧ 得
양태	应该 ₂	应该可能 ₁	应该 ∧ 会	应该 ∧ 要	应该 ∧ 得

표20을 보면, 인식 양태사인 ‘可能₂’, ‘应该₂’만이 기타 인식류 양태조동사와 연용될 수 있다. 사실 동일한 의미 범주에서의 단어들이 연용되면 의미상의 중복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성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의 인식 양태조동사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있어 연용이 가능하다.

우선, 연용이 성립하려면 통사적인 제한을 받는다. 즉 문법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419-421)에서의 조동사는 문두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419-421b)는 성립되지 않는다. 인식 양태조동사인 ‘可能₂’, ‘应该₂’ 뒤는 주제와 초점 모두가 될 수 있다. ‘会’, ‘要’가 미래 상황을 나타낼 경우, 앞에 주제와 초점이 모두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동사는 연용할 수 있다. ‘得’는 주제 구조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可能₂’, ‘应该₂’와 연용할 때에는 주제구조일 수밖에 없다.

- (419) a. 他可能会去。 그는 아마 갈 것이다.
b. *可能会他去。
c. 可能他会去。 그는 아마 갈 것이다.
- (420) a. 他可能要毕业了。 그는 아마 졸업할 것이다.
b. *可能要他毕业了。
c. 可能他要毕业了。 아마도 그는 졸업할 것이다.
- (421) a. 妈妈可能又得说你。 엄마는 또 너를 혼낼 것이다.
b. *可能又得妈妈说你。
c. 可能妈妈又得说你。 아마 엄마가 또 너를 혼낼 것이다.

5.2 양태부사와 양태조동사의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양태조동사도 종종 양태부사와 공기한다. 양태부사는 조동사와 달리 기본적으로

완전히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표시한다. 그들은 조동사처럼 객관적인 허가나 미래 상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조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태조동사에서 양태부사만큼이나 주관성이 강한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부사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태부사와 연용되지 않는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그 예로는 ‘肯定’, ‘一定’, ‘必然’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양태부사와 양태조동사의 분포관계를 살펴보고, 이 단어들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겠다.

인식 양태부사는 인식 양태조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적 양태조동사와 연용될 수 있다.

- | | | |
|-------|----------------------------------|-----------------------|
| (422) | a. 他{应该 ₂ /可能}会做饭。 | 그는 아마 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 b. { *应该 ₂ /*可能}会他做饭。 | |
| | c. {应该 ₂ /可能}他会做饭。 | 아마 그는 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423) | a. 他{一定/肯定}会做饭。 | 그는 반드시 밥을 할 수 있다. |
| | b. { *一定/*肯定}会他做饭。 | |
| | c. { *一定/*肯定}他会做饭。 | |
| (424) | a. 他{大概/也许}会做饭。 | 그는 아마 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 b. { *大概/*也许}会他做饭。 | |
| | c. {大概/也许}他会做饭。 | 아마도 그가 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식 양태부사가 직접적으로 동적 양태 동사 앞에 위치하면, 주어에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大概’, ‘也许’ 등은 불확정적 판단을 나타내고, ‘一定’, ‘肯定’ 등은 확정적 판단을 나타낸다. ‘一定’, ‘肯定’은 문두에 올 수 없으므로, (423c)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양태부사 뒤와 동적 양태조동사 앞에 모두 주제와 초점이 올 수 있기에 전체 문장은 주제-평언 구조 혹은 논항초점 구조 모두 가능하다.

5.2.1 의무 양태조동사와 연용하는 경우

먼저, 의무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의 공기 양상을 보자.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只好’와 ‘只得’에는 의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只得’ 같은 경우 그 자체에 의무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得’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양태조동사와 공기하지 않는다.

- (425) a. 王喜光眼看没多少日子就要办七十大寿, 只得(*得)把事情告诉了白景琦。
 b. 王喜光眼看没多少日子就要办七十大寿, 只好(*得)把事情告诉了白景琦。
 王喜光은 칠순잔치를 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이 일을 白景琦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千万’은 ‘得’와 ‘要’의 앞에 오고, 의무 혹은 허가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양태조동사 바로 앞에 온다. 이러한 단어는 다음 예문과 같은 문장 가운데에 나타나면 문장의 술어를 부각시켜 술어 초점 구조를 만든다. 유의해야 할 것은 ‘千万’은 명령문에서만 올 수 있으므로 ‘得’, ‘要’, ‘不能’, ‘不可以’ 앞에 올 수 있지만, 긍정형식인 ‘可以’, ‘能’ 앞에 올 수는 없다. 예는 다음과 같다.

- (426) a. 做事情千万要三思而后行, 不要做出自己承担不起的事情。
 일을 할 때는 꼭 심사숙고한 후 실행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라.
 b. 两位万万不要为这点小事争执, 既没有什么好处, 还伤了和气。
 두 분은 절대로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마세요. 아무런 이득도 없고 화목한 기분까지 상하게 하니까요.
- (427) a. 这船上的东西很简单, 你以后千万不可以乱闯别人的房间。
 이 배의 물건은 정말 간단하지 않으니 너는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의 방에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b. *你千万可以进入别人的房间。
- (428) a. 大白天可千万不能从七楼往下跳, 否则要出危险的。
 별건 대낮에 절대로 7층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a. *大白天千万能从一楼往下跳, 不危险。

‘最好’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권하거나 제안할 때 쓰이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허용 혹은 의무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와는 연용할 수 없고, 완화의 여지가 있는 조동사와만 연용할 수 있다. 이는 ‘千万’과 정반대이다.

- (429) a. 鉴于该病的病情比较特殊, 最好要在医院进行治疗, 并请有经验的专科医生进行。
이 병의 병세가 상당히 특수함에 비추어 보아,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b. 在使用电热水袋时, 最好不要一边充电一边使用, 以免发生危险。
전기 온수 팩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 피하기 위해 충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430) a. 似乎要下雪了, 下吧下吧, 最好可以打雪仗。
아마 눈이 올 것 같네. 내려라, 내려라! 눈싸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b. *似乎要下雪了, 最好不可以打雪仗。
- (431) a. 方便面在开封之后, 最好能一次吃完, 避免面条在空气中氧化变质, 产生有害物质。
라면은 개봉 후 면이 공기 중에 산화되어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에 먹는 것이 좋다.
a. *方便面开箱后, 最好不能吃完, 给别人留点。

‘最好’는 주제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要’와 연용될 때 (429)와 같은 ‘TS最好不要VP’ 구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룰 수도 있다.

- (432) 最好这件事你不要再提。
이 일은 네가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433) 如果是工作上的事, 局里自己能解决的, 能通过正规渠道逐级解决的, 最好不要你再出面。
만약 업무상의 일이라면 부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다시 나서지 않으면 좋겠다.

‘还是’는 선택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의무 양태조동사와 공기할 수 있다. 앞에 ‘最好’, ‘千万’과 연용할 수 없는 ‘必须’, ‘应该’를 예로 보자.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 (434) a. 衣服还是应该与人的职业和身份相称。
 옷은 아무래도 사람의 직업과 신분에 맞아야 한다.
 b. 还是应该你开车嘛, 天天七点多准时醒。
 그래도 네가 운전해야지, 매일 7시가 넘으면 제시간에 일어나니까.
- (435) a. 我想我还是必须好好向他传达清楚。
 나는 아무래도 내가 그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 当然这个重要的工作还是必须交由我来执行, 因为冬天天气冷, 所以还是必须我去, 我必须要走两趟, 我送孩子去, 然后回来之后再上班, 再到学校去。
 당연히 이 중요한 일은 그래도 반드시 내가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내가 반드시 두 번 가야 한다. 내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나서 다시 돌아와 다시 출근하고 다시 학교에 간다.

표21: 의무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부사	조동사	의무 양태					
		必须	得	应该	要	可以	能
의무 양태	只好	×	×	×	×	×	×
	只得	×	×	×	×	×	×
	最好	×	×	×	最好 ∧ 不要	最好可以	最好能
	还是	还是必须	还是得	还是应该	还是要	还是可以	还是能
	千万	×	千万得	×	千万要 千万不要	千万不可以	千万不能

다음으로 인식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의 공기 양상을 보자. 인식 양태부사에 각 분포 형식이 모두 있기 때문에 평가부사는 생략하겠다. 인식 양태부사는 ‘必须’, ‘应该’를 제외한 양태조동사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

- (436) 他{应该₂/可能}得₂去。 그는 아마 가야할 것이다.
 (437) 他{大概/也许}可以₂去。 그는 아마 가도 될 것이다.
 (438) 他{?一定/肯定}能₂去。 그는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식 양태사가 의무류 조동사와 연용되어 있는 경우, 주체가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 중 ‘一定’이 허가류 조동사 ‘可以’, ‘能’과 공기하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 의미는 ‘肯

定’에 해당한다. 하지만 필요의미를 나타내는 ‘得’, ‘要’와 공기하면 화자의 지령이나 요구를 나타내며, 이때의 의미는 ‘必须’에 해당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인식 양태사는 ‘必须’, ‘应该’와 공기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않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439) 他{?大概/?也许/?可能/?应该₂/肯定}必须去。

(440) 他{?大概/?也许/?可能/?肯定}应该₁去。

(439-440)의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必须’, ‘应该’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应该’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판단하는 결과나 공인된 도덕규범, 사회적 규칙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재추정할 필요가 없다. ‘必须’는 행위 주체(또는 다른 요구 주체)가 확정된 것에 대한 화자의 요구를 표현하며, 역시 더 이상 추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말뭉치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도 보인다.

(441) a. 我想, 经理也许应该₁去做个摄影师。

나는 매니저가 아마도 사진사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 皇帝私下对我们说, 在内部, 错误可能应该₁归咎于他身边的人过分热忱, 一些人的个人看法。

황제는 내부에서의 잘못은 아마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것과 일부 사람들의 개인 견해 탓으로 돌려야 한다고 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c. 那把雨伞不是真的雨伞, 看来顶多可以遮遮阳光, 要用它来挡雨是没希望了。我想大概应该管它叫太阳伞。

그 우산은 진짜 우산이 아니어서 보아하니 많아봤자 햇빛이나 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사용하여 비를 막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아마도 그것을 태양우산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442) a. 但是要得到这一切, 她也许必须做一些事情。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그녀는 아마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

b. 一个人若要完全理解另一个人, 大概必须有过类似的处境, 受过类似的痛苦。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대략 비슷한 처지를 겪어 보았고, 비슷한 고통을 겪어 보아야 한다.

- (443) a. 他{*一定/*肯定}应该去做个摄影师。
b. 但是要得到这一切, 她{*一定/*肯定}必须做一些事情。

우리는 위의 예문과는 달리, (441a)에서 ‘也许应该去做个摄影师’는 의무상의 ‘옳음/옳지 않음’의 뜻을 나타내는 것보다 화자의 조언을 나타낸다고 여긴다. 이는 문장의 초점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장의 초점이 조동사에 있지 않고 그 뒤에 오면 의무적 의미를 중점으로 삼지 않기에 의무적 의미는 약해진다. 다시 말해 ‘应该去做个摄影师’는 무슨 직업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고 조동사 앞에 ‘也许’가 붙으면 화용적으로 화자의 조언을 더욱 완곡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인식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들의 간접 연용 양상을 보자.

- | | |
|---|-----------------|
| (444) a. 他{ <u>也许</u> / <u>大概</u> }得去。 | 그는 아마 가야할 것이다. |
| b. { <u>也许</u> / <u>大概</u> }他得去。 | 아마도 그는 가야할 것이다. |
| c. { <u>也许</u> / <u>大概</u> }得他去。 | 아마도 그가 가야할 것이다. |
| (445) a. 他{* <u>一定</u> / <u>肯定</u> }得去。 | 그는 반드시 가야 한다. |
| b. *{* <u>一定</u> / <u>肯定</u> }他得去。 | |
| c. { <u>一定</u> / <u>肯定</u> }得他去。 | 반드시 그가 가야 한다. |

‘大概’, ‘也许’ 뒤는 주제나 초점일 수 있고, 의무 양태조동사 앞도 그렇기 때문에 (444b)의 경우 두 가지 정보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444c)의 경우는 논항초점 구조일 수밖에 없다. ‘一定’, ‘肯定’은 주제나 초점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445b)는 성립될 수 없다. 인식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의 공기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2: 인식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의 공기 양상

조동사 부사		의무 양태					
		必须	应该	得	要	可以	能
인식 양태	也许	也许∧必须	也许∧应该	也许∧得	也许∧要	也许∧可以	也许∧能
	好像	好像∧必须	好像∧应该	好像∧得	好像∧要	好像∧可以	好像∧能
	一定	×	×	一定得	一定要	一定可以	一定能
	确实	确实, ∧ 必须	确实, ∧ 应该	确实, ∧ 得	确实, ∧ 要	确实, ∧ 可以	确实, ∧ 能

5.2.2 인식 양태조동사와 연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인식 양태부사와 인식 양태조동사의 연용양상을 보자.

인식 양태부사와 인식 양태조동사 연용 양상은, ‘可能’, ‘应该’와 인식 양태조동사의 연용 양상과 비슷하다. 즉 인식 양태조동사 앞에 위치하여 사건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나 판단을 나타낸다. 하지만 인식 양태조동사의 가능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정도가 다른 인식 양태부사와 연용되는 양상도 다르다. 예를 들어, 김나래 (2015)에서는 비 확정성 부사의 경우 강한 확정성은 갖지 않는 ‘应该₂’와의 공기는 자연스럽지만, 강한 확정성은 갖는 ‘得₂’와는 공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446) a. 他现在不出门, 一定得迟到。
그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늦을 것이다.
b. *你要不回来, 他大概得不高兴。
- (447) a. 至于工资改革, 也许应该和价格改革一样。
임금개혁도 아마 가격개혁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b. *现在她{一定/肯定}应该在家。 (김나래 2015)

‘得₂’는 항상 확정성 부사와 함께 나타나지만 꼭 확정성 부사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48) a. 你要不回来, 他大概又得不高兴。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아마 또 기분이 상할 것이다.
b. 你不写作业老师也许又得说你。
숙제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아마 또 너를 혼낼 거야.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필연성을 나타내는 ‘得₂’, ‘要₃’ 등은 주제구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제 앞에 올 수 있는 양태부사가 그들 앞에 올 수 있다. (449-450b)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449) a. 大概老师又得批评你。
아마도 선생님이 다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b. *大概‘老师又得批评你。
(450) a. *一定老师又得批评你。

인식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조동사의 공기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3: 인식 양태부사와 인식 양태조동사와의 공기 양상

부사 \ 조동사		인식 양태					
		会	应该	得	要	可能	能
인식 양태	也许	也许∧会	×	也许∧得	也许∧要	也许∧可能 ₁	也许∧能
	好像	好像∧会	×	好像得	好像∧要	好像∧可能 ₁	好像∧能
	一定	一定会	×	一定得	×	×	×
	确实	确实, ∧ 会	×	确实∧得	确实, ∧ 要	确实, ∧ 可能	确实, ∧ 能

5.3 양태부사들 간의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양태부사들은 다른 양태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데, 그 공기양상은 복잡하다. 史金生(2003)에서는 양태부사 내부의 연용순서를 언급한 바가 있다. 구체적인 연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3: 史金生(2003) 양태부사의 연용순서

증명	>	>	>	>	>	>	>	>
	의문	>	>	>	>	>	>	
		개연	><	><	><	>	>	
			관계	>	><	>	>	>
				특징	>	>	>	
					단정	>	>	>
						필연	>	
							의지	감탄

하지만 그는 이런 연용순서는 일종의 우선순위이거나 강한 어순이고, 양태부사가 연용할 때 일반적으로 이 순서에 해당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51) 也许人家真的不知道。 (개연 > 단정)

아마 그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452) 真的, 我们也许不适合, 谢谢你, 我生命曾经有你经过。 (단정 > 개연)

정말로, 우리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고마워요, 내 생명에 한때 네가 지나가 줘서.

史金生(2003)에 따르면 (451)와 같이 개연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부사는 단정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부사 앞에 와야 하지만 (452)에서 보이듯이 양자 위치 호환의 경우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양태부사들의 연용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徐晶凝(2008)은 의무 양태부사가 인식 양태부사나 평가 양태부사와 공기할 때 그들의 뒤에 온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먼저 그들의 의무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을 보도록 하겠다.

5.3.1 의무 양태부사와 연용하는 경우

먼저 의무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부사의 연용을 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무 양태부사들은 서로 다른 의무 양태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最好’는 명령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千千’,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万万’과 의미상 모순되며, 따라서 공기할 수 없다. 하지만 ‘最好’나 ‘还是’와 같이 의무 양태부사들이 연용되는 경우도 있다. ‘最好’와 ‘还是’는 비록 모두 의무의미에 귀속시켰지만, 이는 둘의 용법상의 특징에 의한 것이다. 의미적으로 보면 ‘最好’(제일 좋기는)와 ‘还是’(그래도)는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공기할 수 있다. ‘最好’의 분포 형식은 더 자유롭기에 일반적으로 ‘还是’ 앞에 온다. 그들의 연용 형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즉 둘이 함께 문장 가운데에 있는 경우(예문 453), 둘이 함께 문두에 있는 경우(예문 455a)와 하나는 문두, 하나는 문장 가운데에 있는 경우이다(예문 454).

- (453) 不过, 我劝您最好还是不去, 看了那些事情没有什么好处, 只能给您增加烦恼。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 보았자 좋을 게 없고, 고민만 늘릴 뿐이다.
- (454) a. 冬天正值春运选择坐飞机还是要慎之又慎啊, 最好大家还是坐火车吧。
 겨울이고 춘절 시즌이 되었으니 비행기 타는 것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무래도 기차를 타는 것이 제일 낫겠다.
 b. *冬天正值春运选择坐飞机还是要慎之又慎啊, 最好还是大家坐火车吧。
- (455) a. 依我看, 最好还是您自己去, 调查清楚, 这个家伙到底是何许人也。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당신 스스로 가서 이 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b. *依我看, 最好您自己还是去, 调查清楚, 这个家伙到底是何许人也。

(454b)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문장의 정보구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454b)의 문장은 기차를 타는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지를 강조하는 술어 부분 초점인데, ‘还是’를 주어 앞에 두면 논항초점 구조이기 때문에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455b)도 마찬가지로 ‘还是’의 위치가 문장이 나타내려는 정보구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식과 평가 양태부사와 의무 양태부사의 공기 양상을 보자. 인식 양태부사를 예로 살펴보자.

표24: 의무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

부사		의무 양태					
		最好	还是	只好	只得	千万	万万
인식 양태	也许	也许∧最好	也许∧还是	也许∧只好	也许∧只得	×	×
	好像	好像∧最好	好像∧还是	好像∧只好	好像∧只得	×	×
	一定	×	×	×	×	×	×
	确实	×	×	×	×	×	×
평가 양태	居然	×	×	×	×	×	×
	反而	×	×	×	×	×	×
	反正	反正∧最好	反正∧还是	反正∧只好	反正∧只得	反正∧千万	反正∧万万
	难怪	×	×	×	×	×	×

‘千万’과 ‘万万’은 명령문에서 쓰이기 때문에 다른 양태부사와 잘 공기하지 않는다. ‘最好’와 ‘还是’는 조언 의미를 나타내 필연성이나 확실의미와 일반적으로 공기하지 않는다. 오직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단어만 이들 앞에 올 수 있고 조언을 더욱 완곡하게 하는 화용 의미를 일으킨다. ‘也许’와 ‘只好’의 결합을 살펴보자.

- (456) 那你应该不让她母亲知道就把她弄到手。过后, 她也许只好逆来顺受。
그럼 너는 그녀의 어머니가 눈치 채지 못하게 그녀를 손에 넣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할지도 모른다.
- (457) a. 她已开始觉得, 必要时, 也许只好她一个人去, 甚至她自己愿意一个人去。
그녀는 필요시 혼자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미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혼자 가기를 원했다.
b. *她已开始觉得, 必要时, 也许她一个人只好去, 甚至她自己愿意一个人去。
- (458) a. “不做这工作了, 你去做什么呢?” “哦! 也许……” 我想了想说, “也许我只好写写文章, 或画点图画什么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 뭐 할 거야?’ ‘오, 어쨌면...’. 나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아마도 나는 글을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b. *不做这工作了, 你去做什么呢?” “哦! 也许……” 我想了想说, “也许只好我写写文章, 或画点图画什么的!”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457)에서 문장이 논항초점 구조를 나타내려면 두 성분이 모두 문두에 와야 한다. (457b)와 같이 ‘只好’를 문장 가운데에 두면 술어초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기에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458)에서 앞에 ‘你去做什么呢?’로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은 술어초점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458b)에서 ‘只好’가 주어 앞에 올 수 없다.

앞 두 장의 분석에 따르면, 의무 양태부사는 주어의 앞과 뒤에 올 수 있고, 인식과 평가 양태부사는 최대한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으며, 주제 앞에 올 수 있는 등 세 가지 분포 형식이 있다. 이들이 의미적으로 공기할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분포관계를 이룰 수 있다.

1) ①T+ ②+S+③+의무 양태부사+VP

S+ ③+의무 양태부사+VP

②+S+의무 양태부사+VP

①T+S+의무 양태부사+VP

2) ①T+②의무 양태부사 +S+VP

T+②의무 양태부사 +S+VP

①T+ 의무 양태부사 +S+VP

5.3.2 인식, 평가 양태부사와 연용하는 경우

인식 양태부사와 평가 양태는 참 명제에 대한 판단이나 태도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연용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일부가 연용되는 현상은 자주 보인다. 앞에 언급한 (445-447)은 바로 이러한 예이다. 먼저 전체적인 공기 양상을 보자.

표25: 인식, 평가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

부사		인식 양태			평가 양태		
		好像	确实	一定	居然	反正	难怪
인식 양태	也许	×	也许∧确实	也许∧一定	×	×	×
	好像	×	好像∧确实	好像∧一定	×	×	×
	一定	×	×	×	×	×	×
	确实	确实∧好像	×	×	×	×	×
평가 양태	居然	×	居然确实	×	×	×	×
	反而	×	×	×	×	×	×
	反正	×	反正∧确实	反正∧一定	×	×	×
	难怪	×	×	×	×	×	×

위의 표는 명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부사와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의 공기 양상이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459) 你要别的地方我不清楚, 反正山西男人确实是最憨厚的。
 네가 다른 지역을 원하면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山西남자는 확실히 정직하고 무던하다.
- (460) 欧洲之旅——不知道都是哪里, 反正确实很美。
 유럽 여행은 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히 아름답다.
- (461) 崔北海自己说道:“别的病也许一定要找大夫才有办法, 心病却是不必的。”
 崔北海는 스스로 ‘다른 병은 의사를 꼭 찾아봐야만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병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했다.
- (462) 如果有人告诉你, 一家企业1998年亏损3200亿日元, 2001年又亏损4800亿日元, 也许你一定觉得这家企业肯定“死定了”。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한 기업이 1998년에 3,200억 엔의 적자를 내고 2001년에 4,800억 엔의 적자를 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 기업이 틀림없이 ‘망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관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는 확정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공기하면 의미상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확정한 추측을 나타내는 ‘好像’, ‘也许’ 등은 확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确实’, ‘一定’ 등과 의미상 모순된다. 따라서 그들의 연용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 (463) a: 我真的去过。
난 정말 가봤어요.
b: 真的吗?
정말요?
c: 也许他真的去过。
아마도 정말 가봤을 거야.
- (464) a: 这种病一定要找大夫。
이런 병은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b: 真的吗?
정말요?
c: 也许一定要找大夫。
아마도 의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465) a: 这种病也许得找大夫。
이런 병은 아마도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
b: 是吗? 你觉得呢?
그래? 네 생각은 어때?
c: 的确, 这种病也许得找大夫。
확실히, 이 병은 아마도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예문을 통해 문두에 있는 양태부사는 일반적으로 양태부사를 가지는 문장 전체에 대한 확정 혹은 불확정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확정성을 나타내는 부사는 직접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부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 (466) a. *这种病的的确也许得找大夫。
b. 这种病也许的确得找大夫。
이런 병은 아마도 확실히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의 연용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① T+ ②+S+③+인식-확정+VP
인식-불확정

S+③+인식-확정+VP

②+S+인식-확정+VP

①T+ S+인식-확정+VP

2) ①T+②+S+③인식-불확정+VP

인식확정

②, +S+인식-불확정 +VP

徐烈炯(2002)에 의하면, 한 문장에 한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초점이 공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보초점에 주제초점이 더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 언어학에서 ‘초점의 이차출현(second occurrence of focus)’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 (467) 甚至[f彼得]也只[f知道歌德的一部小说].
심지어 피터조차도 괴테의 소설을 안다.

徐烈炯은 예문(467)를 초점민감 연산자를 ‘甚至’가 충당하는 ‘彼得’와, ‘只’가 충당하는 동사구 전체가 문장의 초점이라고 보았다. 예문과 같이 초점민감 연산자 ‘甚至’와 ‘只’가 한 문장에 제시되고 각각의 초점민감 연산자가 관할하는 문장성분으로 인해 초점이 두 개임을 보이며 문장 내 다중초점을 주장하였다.

서진현(2018)은 徐烈炯(2002)처럼 문장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초점이 모두 실현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일반초점만 존재하였던 문장에 대조초점까지 더해지면, 일반초점의 역할은 줄어들고 대조초점의 역할이 커져 더욱 큰 현저성을 갖는 초점만이 문장 내에서 진정한 초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진현(2018)은 祁峰(2012)의 ‘문장 초점의 실현규칙’⁴¹⁾을 이용하면서, 하나의 정보가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실현될 때 문장 내의 초점민감 연산자 혹은 초점 표지의 수량에 영향을 받지

41) 祁峰(2012)은 ‘문장의 초점 실현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하나의 단문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초점강요형식을 가질 수 있다.
- ② 모든 초점강요형식은 모두 화용적으로 현저성을 가진 초점가능성분에 영향을 준다.
- ③ 마지막에는 하나의 가능 초점성분의 현저성만이 전체 문장의 초점이 된다.
- ④ 현저성이 실현되는 원칙은 많은 초점강요형식이 하나로 융합되지 않을 시에는 문장에서 가장 높은 통사구조에 있는 가능성분이 그 현저성을 갖고 문장의 초점이 된다.

5. 양태사 연용에 대한 정보구조 제약

않고, 오직 하나의 초점 정보만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즉 한 문장에는 하나의 초점만 존재하고 그 초점은 문장성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문장 내의 문장성분에 대응된다고 본 것이다.

양태사들의 분포가 초점구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면, 두 양태사의 연용은 두 초점구조가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만일 두 양태사 A, B가 연용될 수 있다는 것은 두 초점구조 제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B가 모두 주제를 후치시킬 수 없거나 모두 주제를 후치시킬 수 있다면 연용될 수 있다. 또 A와 B의 사이에 X라는 주제가 삽입되는 경우를 보면, A가 주제를 후치시킬 수 있고 B가 주제를 전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A가 주제를 후치시킬 수 없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보구조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6. 결론

본고는 중국어의 양태사가 갖는 다양한 분포 형식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정보 구조이론을 근거로 양태사의 분포를 결정하는 원리와 조건을 밝혔다.

양태조동사에서 동적 양태조동사는 주어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앞에 올 수 없다. 이들은 주어가 통제 가능한 성분, 예를 들어 시간, 장소 등의 성분 일 경우 주어의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 의무 양태사는 화자가 사회적 규정 혹은 외재적 조건에 의한 허가 혹은 필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만 일 양태사가 화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행위의 주체를 부각하고자 하면 주어 앞에 온다. 즉 주어 앞에 오게 되면 초점을 부각시키게 된다. 의무 양태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주어를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무 양태조동사는 주어가 쓰이는 주제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제 앞에도 올 수도 없다. 이러한 단어들이 오는 문장의 정보구조는 일반적으로 어휘적 수단과 운율적 수단에 의해 작용하며, 통사적으로 양태사의 위치 변경을 통해 초점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식 양태조동사에서 객관적 사건의 가능성이나 필연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이동할 수 없다. 오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조동사 ‘应该₂’와 ‘可能₂’만 주어 앞에 올 수 있다. 그들은 명제 내용과 관계없이 온전히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므로 근본적으로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문법화 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인식 양태부사와 동일한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이들은 주어가 쓰이는 주제 앞에 올 수 있기에 다른 주제 앞에 올 수도 있다. 그 뒤에 오는 주제는 그 앞에 오는 주제와 달리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제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양태조동사는 부정형식 혹은 정반의문형식이 있으면 이 두 가지 형식은 화자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두에도 올 수 있다.

양태부사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태도나 관점을 나타내므로 표현 의도에 의해 문장의 정보구조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미유형에 따라 분포양상이 다르다. 의무 양태부사는 의무 양태조동사와 같이 화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주체를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양태부사가 문두로 이동하여 논항초점을 나타낼 수 있다. 주어 앞에 이동하는 것이 주어를 초점으로 삼는 것이라 주제 앞에 올 수는 없다.

인식 양태부사는 화자가 사건의 필연성을 나타내면 술어초점 구조이다. 사건의 주체, 발전 등에 대한 추측이면 각 정보구조 유형 모두 가능하다. 평가 양태부사는 비록 전체적으로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지만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포 양상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화자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 양태부사는 주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이끌어 내는 양태부사는 항상 주어 앞에 온다.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위치하면 술어초점을 드러내고 주어 앞으로 이동할수록 주제를 이끌어 내는 기능이 더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양태사의 분포형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26: 양태사의 분포 양상

양태	양태	T	양태	S	양태	S	양태	VP
		T		T		F		
동적							동적	
의무					[화자+]		[화자-]	
인식	가능		가능		필연(Δ) 가능(주관)		필연(객관) 가능(객관)	
평가	[예상+]		[예상-](Δ) [예상+]		[예상-] [예상+](Δ)			

양태사가 문말에 오는 현상은 구어 대화에서 말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정보를 먼저 나타내기 쉽고, 이미 말한 부분은 덜 중요하게 보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은 대부분 주제문이다. 일부 양태사도 이와 같이 문말에 위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적 양태사, 의무 양태사는 후치할 수 없고 인식 양태사와 평가 양태사 대부분은 후치할 수 있다. 후치할 때 문장과 양태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어기조사가 있다. 양태사가 후치하는 문장도 일반적으로 주제문이다. 왜냐하면 주제부분이 일반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제문에서 양태사는 술어초점에 가깝게 후치된 후, 객관적인 술어 정보가 더욱 돋보이게 한다. 유표적인 논항초점 구조를 사용할 경우, 양태사와 주어 논항의 관계가 더 긴밀하기 때문에, 주어 논항에 가까워야 함으로 후치할 수 없다. 또한, 화자가

하나의 새로운 사건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문장의 양태사는 일반적으로 명제 정보의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어 혹은 술어에 근접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후치는 정보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태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양상도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명제의 일부로 쓰일 수 있는 동적 양태사와 일부 의무 양태사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다. 동적 양태사와 일부 의무 양태사는 명제의 일부분이기에 단독적으로 사용될 때 문장의 초점이 된다. 일부 인식 양태사와 평가 양태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양태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대답의 경우, 양태부사만 사용하거나 또는 여기 조사와 함께 출현한다. 청자는 이러한 양태사를 통해 초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태사의 연용은 통사적 혹은 의미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보구조 제약도 받는다. 즉 같이 나타나는 양태사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정보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법화의 정도가 클수록 명제 외부에 위치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 양태사 체계에 대한 공시적 고찰을 통해 양태사의 주관화 과정도 엿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양태사는 외적인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의식 혹은 평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하고,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양태사의 주관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초점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다는 것을 다양한 예증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초점에서 초점 부각하는 역할을 거쳐서 초점에 민감하지 않은 담화표지로 변하는 과정을 양태체계에서 연구하고 증명하였다. 동사로부터 접속사까지의 점진적인 문법화 과정뿐 아니라, 화용적 역할에서도 초점에서 주제 도입 표지로 점진적으로 변모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연구에서 확장하여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参考文献】

1. 논문류

1.1 국문 논문

- 강병규(1997), 「現代中國語 樣相副詞 ‘大概’와 ‘也許’에 대한 比較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선주(2009), 「양상으로 본 중국어 조동사의 내부적 차이」, 『중국어문학논집』 제56집, 185-199.
- 김나래(2015), 「조동사, ‘應該’, ‘得’의 의미, 용법 비교 연구 — 의무 양태 의미와 인지 양태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60집, 55-80.
- 김종호(1993), 「現代中國語 副詞의 文章修飾機能에 관하여」, 『중국어언어연구』 第2輯, 101-128.
- 김지영(2019), 「현대중국어 양태조동사 ‘應該’의 통사적 특징과 문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鉉哲(2003), 「몇 가지 중국어법 용어 정의문제에 대하여」, 『中國語文學論集』 제24호, 221-233.
- 金鉉哲·權順子(2012), 「주관성 체현에 따른 ‘說’類 화용표지의 양태기능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제75호, 115-147.
- 金鉉哲·金紅梅(2016), 「현대중국어 ‘很能V’구조의 경계특징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제99호, 47-64.
- 金紅梅(2011), 「현대중국어 양태 표현 동사 ‘能’, ‘會’, ‘要’, ‘可以’의 오류 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紅梅(2017), 「현대중국어 ‘(NP)很能X’ 구문의 양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야페이(2020), 「현대중국어 ‘會’의 상, 서법, 시제 기능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하(2014), 「현대중국어 양태조동사 ‘要’의 어법특성 분석-주어와의 공기여부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53집, 201-229.
- 박성하(2015), 「현대중국어 ‘要’의 양태기능과 문법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하(2019), 「현대중국어 양태조동사의 부정형식에 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86집, 97-125.
- 박재승(2014), 「현대중국어 동적 양태 범주 설정에 관한 연구」, 『중어중문학』 제57집, 151-175.
- 박재승·신주현(2017), 「의무 양태 표지에 대한 연구 - ‘행위 통제권’과 ‘행위 결정권’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80집, 111-134.
- 박재승·이명정(2012), 「조동사 ‘能’과 ‘可以’의 기능 비교 - 양태범주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5집, 47-65.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제60집, 289-322.
- 백은희(2005), 「중국어의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17호, 551-572.
- 서진현(2018), 「현대한어 초점민감사 연구: 제한성 부사와 어기성 부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기섭(2009), 「현대중국어의 양상(Modality) 관련 표현에 대한 일 고찰」, 『中國人文科學』 第47輯, 109-138.
- 염죽균(2018),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재영(2008), 「중국 조동사연구 (1) - 현대중국어 조동사의 특징, 범위, 하위분류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第43卷, 277-299.
- 조은경(2009), 「중국어의 정보 구조 구현 기제와 부정 초점」, 『중국언어연구』 第29輯, 95-120.

1.2 중문 논문

- 蔡维天(2010), <谈汉语模态词的分布与诠释之对应关系>, 《中国语文》 第3期, 208-221.
- 曹逢甫(1996), <汉语的提升动词>, 《中国语文》 第3期, 172-182.
- 崔诚恩(2002), <现代汉语情态副词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博士学位论文.
- 戴耀晶(2003), <现代汉语助动词“可能”的语义分析>, 《语法研究和探索》(十二), 商务印书馆, 371-381.
- 范晓蕾(2014), <以“许可—认识可能”之缺失论语义地图的形式和功能之细分——兼论情态类型系统之新界定>, 《世界汉语教学》 第1期, 18-36.

- 范晓蕾(2015), <汉语方言的能性情态语义地图之补论>, 载于李小凡, 张敏, 郭锐等著, 《汉语多功能语法形式的语义地图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482-499.
- 方梅(2017), <饰句副词及相关篇章问题>, 《汉语学习》 第6期, 3-11.
- 傅雨贤(1983), <副词在句中的位置分布>, 《汉语学习》 第3期, 1-13.
- 郭昭军(2003), <从“会₂”与“可能”的比较看“会₂”的句法和语义>, 《语法研究和探索(十二)》, 商务印书馆, 382-396.
- 郭昭军·尹美子(2008), <助动词“要”的模态多义性及其制约因素>, 《汉语学习》 第2期, 35-40.
- 胡波(2015), <汉语情态助动词的提升与控制>, 《当代语言学》 第2期, 159-171.
- 胡建华·潘海华·李宝伦(2003), <宁波话与普通话中话题和次话题的句法位置>, 《话题与焦点新论》 徐烈炯·刘丹青主编, 上海教育出版社, 164-175.
- 胡建华(2007), <否定, 焦点与辖域>, 《中国语文》, 2007年 第2期, 99-112.
- 李宝伦·潘海华·徐烈炯(2003), <对焦点敏感的结构及焦点的语义解释(上)>, 《当代语言学》 第1期, 1-11.
- 李宝伦·潘海华·徐烈炯(2003), <对焦点敏感的结构及焦点的语义解释(下)>, 《当代语言学》 第2期, 108-119.
- 李泽琴(2014), <助动词“得”的情态语义分析——兼论与‘要’的情态义差别>, 《鸡西大学学报》 第1期, 133-135.
- 刘丹青(2016), <汉语中的非话题主语>, 《中国语文》 第3期, 259-275.
- 刘丹青(2018), <制约话题结构的诸参项——谓语句类型、判断类型及指称和角色>, 《当代语言学》 第1期, 1-18.
- 刘林(2016), <汉语焦点标记词的分类与句法特征>, 《语言研究集刊》 第1期, 107-123.
- 鲁晓琨(2016), <焦点标记“来”>, 《世界汉语教学》 第2期, 20-30.
- 鲁川(2003), <语言的主观信息和汉语的情态标记>, 《语法研究和探索(十二)》, 商务印书馆, 317-330.
- 陆俭明(1980), <汉语口语句法里的易位现象>, 《中国语文》 第1期, 28-41
- 陆俭明(1982), <现代汉语副词独用刍议>, 《语言教学与研究》 第2期, 27-41
- 陆俭明(2017), <重视语言信息结构研究, 开拓语言研究的新视野>, 《当代修辞学》 第4期, 1-17.
- 马庆株(1988), <能愿动词的连用>, 《语言研究》 第1期, 18-28.
- 潘田(2010), <现代汉语语气副词的情态类型研究>, 武汉大学博士学位论文.

- 彭利贞·刘翼斌(2007), <论“应该”的两种情态与体的同现限制>, 《语言教学与研究》 第6期, 30-37.
- 朴正九(1996), <汉语介词研究>, 国立清华大学博士学位论文.
- 朴正九(1996), <汉语的助动词>, 《中国文学》 第26卷, 391-403.
- 朴正九(2016), <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 《中国语文》 第4期, 387-396.
- 祁峰(2012), <现代汉语焦点研究>, 复旦大学博士论文.
- 祁峰·陈振宇(2013), <焦点实现的基本规则——以汉语疑问代词为例>, 《汉语学报》 第1期, 76-87.
- 齐沪扬(2003), <语气副词的语用功能分析>, 《语言教学与研究》 第1期, 62-71.
- 邵敬敏(1992), <语义对“比”字句中助动词位置的制约>, 《汉语学习》 第3期, 13-16.
- 宋少萌(2017), <现代汉语语气副词的分布与句子信息结构的关系探讨>, 《中国言语研究》 第72卷, 219-244.
- 宋少萌(2018), <汉语口语中的副词后置现象及生成动因探讨>, 《中国言语研究》 第74卷, 105-126.
- 沈家煊(2001), <言语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 第4期, 29-36.
- 史金生(2003), <语气副词的范围, 类别和共现顺序>, 《中国语文》 第1期, 19-33.
- 汤廷池(2003), <汉语的情态副词: 语意内涵与句法功能>, 《中研院史语所集刊》 第七十一本第二分.
- 王欣(2018), <现代汉语情态动词连用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肖奚强(2002), <模态副词句法语义分析>, 《中国语文学志》, 483-502.
- 谢佳玲(2006), <汉语情态词的语意界定: 语料库为本的研究>, 《中国语文研究》 第21期, 45-63.
- 玄珙(2004), <论汉语对比焦点标记“是”——兼论焦点标记对焦点敏感算子的制约>, 东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杨才英·梁万基(2015), <从功能视角谈汉语情态词的语义特征及句法表现——以‘必须’, ‘可能’, ‘可以’为中心>, 《中国学》 第53辑, 17-30.
- 于康(1996), <命题内成分与命题外成分——以汉语助动词为例>, 《世界汉语教学》 第1期, 27-34.
- 袁毓林(2000), <论否定句的焦点、预设和辖域歧义>, 《中国语文》 第2期, 99-108.
- 袁毓林(2002), <多项副词共现的语序原则及其认知解释>, 《语言学论丛》 第26辑, 313-339.

- 张万禾(2007), <助动词‘要’的情态语义分析>, 《现代语文(语言研究版)》 第1期, 66-68.
- 张云秋·林秀琴(2017), <情态副词的功能地位>, 《首都师范大学学报》 第3期.
- 张谊生(2016), <揣测与确信评注的兼容模式及其功用与成因>, 《世界汉语教学》 第3期, 331-341
- 周萍(2007), <基于位置分布的汉语语气副词研究>, 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周士宏(2009), <从信息结构的角度看焦点的分类>, 《汉语学习》 第5期, 35-42.
- 周士宏(2009), <信息结构中的对比焦点和对比话题——兼论话题焦点的性质>,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第4期, 12-16.
- 周颖(2014), <现代汉语情态词连用现象研究>, 贵州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朱冠明(2003), <汉语单音情态动词语义发展的机制>,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第6期, 43-48.

1.3 영문 논문

- Carlson, Greg N.(1977), “A unified analysis of the English bare plural”,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413-457.
- Van der Auwera, J. & V. Plungian(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79-124.

2. 단행본

2.1. 국문 단행본

- 고선주(외) 역(2000), 『정보구조와 문장형식』(Lambrecht Knud, 1994), 서울: 월인.
- 박정구(외) 역(1989), 『표준중국어문법』(Li, Charles N. Sandra A. Thompson, 1981), 서울: 도서출판사.
- 남궁양석(2008), 『현대 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상철 역(2004), 『최신 의미론』(John I. Saeed, 1991),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하(2006),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2. 중문 단행본

- 曹逢甫(2005), 《汉语句子与子句结构》,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陈昌来(2002), 《介词与介引功能》,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 刘丹青·徐烈炯(1998), 《话题的结构与功能》, 上海: 上海出版社.
- 刘月华(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 鲁晓琨 (2004), 《现代汉语基本助动词语义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彭利贞(2007), 《现代汉语情态研究》, 北京: 中国科学出版社.
- 齐沪扬(2000), 《语气词与语气系统》,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 汤廷池(2000), 《汉语词法论集》, 台北: 金字塔出版社.
- 徐晶凝(2008), 《现代汉语话语情态研究》, 北京: 昆仑出版社.
- 徐烈炯·潘海华(2005), 《焦点结构和意义的研究》,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杨德峰(2008), 《面向对外汉语教学副词定量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袁毓林(2002), 《汉语句子的焦点结构和语义解释》, 北京: 商务印书馆.
- 赵元任(1980), 《中国话的文法》, 丁邦新译, 香港: 香港中文大学出版社.
- 张伯江·方梅 (2005), 《汉语功能语法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 张谊生(2000), 《现代汉语副词研究》, 上海: 上海出版社.
- 朱德熙(1982),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2.3. 영문 단행본

- Bybee, Joan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ybee, J. H. & Fleischman, S. (1995),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ambrecht, Knud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yons, John (1977), *Semantics*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86, 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biers S, Beukema F, & Wurff W(EDT)(2002), *Mod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Verbal Syste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i, Renzhi (2004), “Modality In English And Chinese: A Typological Perspective”, PhD, Antwerp.
- Tsang, Chui Lim.(1981), “A semantic study of modal auxiliary verbs in Chinese”, PhD, Dissertation, UMI.

3. 사전 및 기타 참고자료

- 北京语言大学语料库: BCC, <http://bcc.blcu.edu.cn/>
- 齐沪扬(2011), 《现代汉语语气成分用法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 吕叔湘(1980),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中文摘要】

现代汉语情态词的分布与信息结构研究

首尔大学中文系

宋少萌

情态词, 顾名思义, 表达说话者情态的词类, 是语言中反映说话人看法或观点的主观标记。在汉语中多表现为情态助动词或情态副词。现代汉语中的情态词分布灵活, 本文认为情态词的不同分布形式反映了说话人所要表达的信息结构的不同。这不仅反映在主语、话题和介词短语等的分布关系上, 也反映在情态词的连用上, 它们的不同分布都受到信息结构的制约。

通过分析, 本文主要得出以下结论:

首先表达客观事件或事态的情态词一般不能移动, 这样的词包括动力情态助动词, 表示社会规定、外部条件的道义情态助动词和表示客观可能性的认识情态助动词。这些词构成一个客观命题, 说话者和听话者可以根据双方的心理认知状态来表达相应的信息结构。因为这样的情态词多为属性谓语, 而非事件谓语, 因此它们所在的句子一般为话题结构或谓语焦点结构, 这两种结构的不同只表现在句子的韵律上, 重音位置即焦点所在。但这些词中一部分能够带上事件性的“了₂”把事态转化为一个事件, 比如动力情态词, 因此这些词也能够出现在整句焦点句中。

能够表达说话人或主语观点或态度的情态词往往能够移动。这样的词包括情态副词和部分情态助动词。情态助动词主要包括动力情态助动词词中的意志类, 表示说话人看法或态度的道义情态助动词和认识情态词“应该₂”和“可能₂”。需要注意的是, 它们的移动会受到一定的限制。具体来说意志类情态助动词因为是表达主语的意志, 因此不能位于主语前突出主语为焦点, 只可在主语可控制的成分, 比如时间、场所等成分前后移动。道义情态助动词和道义情态副词都能够使听话人行使义务或决定行使义务的主体, 因此能够位于主语前突出主语为焦点。因为在主语前起突出焦点的作用, 所以后面不能出现话题, 因此也不能出现在一般话题的前面。这类词所在句子的信息结构一般词汇手段和韵律手段共同起作用, 体现在书面上即通过情态词的位置来改变

焦点的位置。我们归入认识情态助动词的“应该₂”和“可能₂”与表示客观可能性的认识情态助动词不同，他们不表示客观可能性，而是表示说话人的认识，它们与认识情态副词有同样的句法分布特点。情态副词与情态助动词不同，已经完全虚化为表达说话人看法的情态词，因此不能表达客观事件，也不能出现在预设中，它们的位置可随说话人想要表达的信息结构来安排自己的语序。从整体上来看，当其位于NP后时，句子一般是话题-陈述结构，即情态副词前面的NP是话题。当情态副词位于句首时，NP有可能是焦点也有可能是话题，也有可能是整句焦点的主语。具体来说，不同意义类型的情态副词所引导的句子类型有所不同。道义情态副词位于句首往往是突出行使义务的主体，因此其后一般是焦点。表示确定性的认识情态副词往往不能直接位于句首，表示可能性的情态副词位于句首时其后可以是话题、焦点或是整句焦点的主语。需要注意的是，情态副词后出现的话题与句首的话题不同，一般是与前面小句不同的新话题或后续小句话题链的首个话题。评价情态度副词中表示与说话人预期相同的情态副词往往位于句首引导话题，而表示与说话人预期相反的情态副词位于句首往往是为了突出焦点。一些情态副词位于句首时，对焦点的标示作用不够明显；一些情态副词还脱离不了真正的焦点标记“是”，一些情态副词后常跟话题，对焦点的凸显作用不明显。

在口语中，一些情态词可以单独使用或后置。能后置的情态词不仅仅是与分布灵活与否有关，与整个命题的信息结构也有关系。后置现象一般发生在话题-评论结构和句子焦点结构中。由于这种结构中的情态副词与命题中的论元无关，而是与谓语部分或者整个句子有关，所以即使脱离论元后置也不影响命题信息的传达。情态助动词和情态副词在单独使用有所不同。情态助动词单独使用时一般是焦点保留的结果，而情态副词一般不能再充当焦点，但听话人往往可以通过这些情态副词推断出说话人所要表达的命题信息。

另外，情态词的这些信息特点也反映在它们的连用上。情态词之间经常连用，尤其是情态副词和情态助动词。他们的连用不仅受到句法或语义上的制约，同样受到信息结构的制约。两个情态词想要连用成立，必须能够表达同一种信息结构。如果二者在语义上能够连用，但其分布形式所反映的信息结构矛盾，句子同样也无法成立。

本文通过对现代汉语情态词分布和信息结构关系的分析，也观察到情态词内部语法化程度的不同。从整体来看，情态词可以看做一个连续统。情态词的语义从表示客观情态义向表示说话人态度看法的主观情态义演变；情态词的信息地位不同，从充当焦点到对焦点敏感或突出焦点，再到向对焦点不敏感的话语标记转变，体现在句法上

即从动词向连词, 从句中向句子外围发展。

关键词: 情态; 情态助动词; 情态副词; 分布; 信息结构

学 号: 2015-30727